

04

예술가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2014
APRIL
vol.268

Cover Story

프레디 켐프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콘서트
반갑습니다 부산음악협회 신임회장 고정화
불멸의 거장 강태홍류 가야금산조의 종교성
그곳에 가면 복합문화공간 '예술지구 P'

2014 문예회관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지원사업

부산문화회관 토요일오감놀이터

얼씨구악

2014년 부모와 자녀가 함께 하는
즐거운 '토요일오감놀이터-얼씨구악'이 부산문화회관에서 펼쳐집니다.
가족과 친구가 함께 우리 국악기를 만들고 배우면서 소통하는
오감만족 놀이터 '얼씨구악'의 즐거운 난장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모집요강

운영기간 2014년 4월 ~ 11월(상반기 15강, 하반기 15강)

- 시 간 : 매주 토요일 10:00~12:00
- 장 소 : 부산문화회관(국제회의장)

모집인원 4인이 1팀 구성, 총 20팀 모집

- ※ 팀 구성은 학생을 둔 가족, 친척, 친구 등으로 구성(예, 초등자녀를 둔 4인 가족, 초등자녀와 할아버지, 아버지, 어머니 3대 가족, 두 친구 가족 등)

신청기간 상반기 2014년 3월 27일(목) ~ 4월 3일(목)

- ※ 하반기는 8월 공고

신청방법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culture.busan.go.kr) 선착순 접수

- 수강자 최종 명단은 2014년 4월 4일 금요일 홈페이지 게시 및 개별통보

교육강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 외부 강사

수강료 무료(일부 재료비 별도)

주최 문화체육관광부 부산광역시

주관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부산문화회관

문의 부산문화회관(051)607-3100

상반기강좌일정

- 4월 5일(토) 국악기 이해-과학, 수학이 담긴 가족 장구 만들기
- 4월 12일(토) 사물악기 배정 후 기본 국악장단 연습
- 4월 19일(토) 기본 국악 장단, 가락 익히기
- 4월 26일/5월 10일/5월 17일/5월 24일(토) 영남농악 기본 장단, 가락 익히기
- 5월 23일(금)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창단 30주년 기념공연 감상
- 5월 31일(토) 고령 우륵박물관 방문, 가야금연주 체험
- 6월 14일(토) 소금만들기 체험, 소금강습-소리내기
- 6월 21일/6월 28일/7월 5일/7월 12일(토) 소금강습-민요, 동요
- 7월 19일(토) 종합 발표회

※ 강좌일정은 변경 될 수 있습니다.

손열음, 김다솔, 권혁주, 김민지

금호아시아나 솔로이스츠




젊은 거장 4인의 패기와 열정이 넘치는 앙상블 무대!
피아니스트 손열음과 김다솔의 피아노 듀오,
손열음과 바이올리니스트 권혁주, 첼리스트 김민지가 연주하는
베토벤 피아노3중주 <대공>의 감동을 놓치지 마십시오!





PROGRAM


세르게이 라흐마니노프/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심포닉 댄스 (35')
베토벤 / 피아노삼중주 B-flat장조 '대공' ,Op.97

2014. 5. 21 WED. 7:30^{PM}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문화회관  부산아트매니지먼트

후원  AIR BUSAN

티켓 R 50,000 S 40,000 A 30,000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은 전화예매시 10%할인) 예매처  인터파크  팝부산 / 부산은행 전지점

문의  부산아트매니지먼트 051-740-5833 www.busanarts.com



Young Generation

예술감독 오충근
지휘 김상철

BSO YG CONCERT

BEETHOVEN
SYMPHONY SERIES I

2014년 4월 21일(월) 오후 7시 30분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후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부산광역시  부산문화재단

티켓 전석 2만원 (학생 50%할인)

예매 부산은행 전지점, 문화포털 팝부산 www.popbusan.com

문의 051) 621-4577 www.bso21.com

연주곡목 | Program

베토벤 L. v. Beethoven
에그몬트 서곡 작품84 Egmont Overture, Op.84
교향곡 제1번 C장조 작품21 Symphony No.1 in C Major, Op.21
교향곡 제2번 D장조 작품36 Symphony No.2 in D Major, Op.36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베토벤 교향곡시리즈 협연자 공모

유능한 인재발굴을 위한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BSO)의
본 공모에 비전을 가진 음악가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참가자격 한국 국적, 음악대학 졸업자 이상(부산출신)
곡 목 베토벤 - 바이올린 협주곡 작품61
베토벤 - 피아노 협주곡 제1번 ~ 제5번 中 전악장
응모방법 BSO E-mail 접수 <bso4577@naver.com>
제출 소정양식(프로필) 1부 및 음원녹음파일
제출마감 2014년 7월 31일(목) 오후6시까지
결과공고 추후 개별 통지
공모문의 (사)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사무국 051)621-4577

The 29th Eulsukdo Masterpiece Concert



BACH

Goldberg Variations

Cembalo

by Christine Schornsheim

예술감독 | 김원명

2014. **4.20** (일) 오후 5시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주최 | 을숙도문화회관, 국제신문 후원 | 금호아시아나 문화재단, 부산원음방송, 팝부산

예매 |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 부산은행 전 지점 문의 | 051-220-5812

금액 | 2천원(균일) * 초등학생이상 관람가능

무대감독 | 전광수 조명감독 | 박병주 음향감독 | 이광섭



LIG문화재단 기획공연 | LIG아트홀 · 부산

LIG 아트 플랫폼 2014

페스티벌 봄 협력

3.29 - 4.12

LIG아트홀 · 부산

LIG문화재단 1분 안의 10년 - 트랜지션
제작 4.11 금 - 4.12 토
한국, 독일, 일본 공동제작 임지애

페스티벌 봄
협력

사람들이 갑자기 새까맣게 모여든다
3.29 토
브라질 마르셀로 이블린/데몰리션 컴퍼니

바보들을 위한 경제학
4. 4 금
노르웨이 아문드 솔레 스벤

평일 8pm, 주말 5pm
티켓: 30,000원 예매: 인터파크 문의: LIG아트홀 T.051-661-8701
주최: LIG문화재단 협력: 페스티벌 봄

Contents

·
·

2014
APRIL
vol.268



- 08 **커버스토리**
프레디 캠프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콘서트

Cultural Story

- 10 **공연 일정**
- 12 **반갑습니다**
부산음악협회 신임회장 고정화
- 14 **해외통신원과 떠나는 지구촌 문화현장**
몸으로 듣는 음악: 청각 장애인들의 음악 세계_김지혜
- 18 **불멸의 거장**
강태홍류 가야금산조의 종교성_김혜진
- 20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세 가지 시선, 그리고 하나_강기표
- 22 **그곳에 가면**
복합문화공간 '예술지구 P'
- 24 **우리는 문화가족**
아마추어 극단 '몸투레'
- 26 **테마가 있는 여행**
기차타고 떠난 경주 수학여행 다시가기
- 30 **하인상의 생각그림**
돌고 또 돌고

Boards Inside

- 32 **프리뷰**
- 38 **리뷰**
- 40 **프로그램 가이드**
- 56 **새로 나온 음반**
- 57 **새로 나온 책**

Center News

- 58 **부산문화회관 소식**
- 60 **부산문화회관로**
- 62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월간 문화예술정보지 2014년 4월호 통권 268호

발행처 부산광역시 문화회관

608-811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76번길 1(대연동 848-4) Tel.051 120(주간), 051 607 6222(야간)

예술단 공연문의 051 607 3100 대관문의 051 607 6051~5

발행인 박성택 편집인 박원철 발행일 2014년 3월 25일 인쇄처 효민디앤피 051 807 5100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젊은 호로비츠’ 감성적인 연주의 비르투오조 프레디 켐프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콘서트

화려한 테크닉과 시적 감성을 겸비한 세계적인 피아니스트 프레디 켐프가 5월, 부산음악애호가들에게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콘서트’로 특별한 봄을 선사한다.

프레디 켐프는 현재 세계 클래식 피아노 음악계를 이끌어나가는 젊은 피아니스트 중의 한 명으로, 보는 순간 매혹되는 멋진 외모만큼이나 아름다운 그만의 화려한 테크닉과 섬세한 감성으로 관객들을 사로잡고 있다.

1992년 15세의 나이로 BBC ‘올해의 영 뮤지션 콩쿠르’ 우승, 1988년 제 11회 차이코프스키 콩쿠르 3위, 2001년 브릿 어워드 ‘영국 최고 클래식 신인 아티스트상’ 수상으로 세계적인 주목을 받은 프레디 켐프는 2004년 가진 첫 내한 연주회에서 프레디 켐프만의 감성과 테크닉으로 무대를 장악하면서 청중들에게 강렬한 인상을 남겼다. 제11회 차이코프스키 국제 피아노 콩쿠르에서 3위 수상 당시 프레디 켐프는 경연을 지켜본 관객들의 격찬을 받으며 우승자를 제치고 만장일치로 청중상을 거머쥐었고, 언론이 프레디 켐프를 그해 콩쿠르의 ‘영웅’으로 극찬한 이야기는 세계 음악계에서도 유명하다.

일 시 | 2014년 5월 19일(금) 오후 7:3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 B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7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607-3100



단 하루!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4,5번 연주
캠프는 그의 재능을 예술적인 결과물로
승화시킬 수 있는 성숙함과 음악성을
가지고 있다. ... 용기와 거침없는
격동성을 지니고 있지만
감성적인 면을 놓치지 않는다.”
- 데일리 텔레그래프

프레디 캠프는 1977년 런던에서 독일인 아버지와 일본인 어머니 사이에서 태어났다. 8세에 영국 로열 필 하모닉과의 협연으로 첫 데뷔 무대를 가진 프레디 캠프는 베를린 필, 모스크바 방송 교향악단, 상트 페테르부르크 필, 샌프란시스코 교향악단, 로테르담 필 하모닉, 벨기에 국립 교향악단, 빈 실내악단, NHK 교향악단 등과 연주를 해왔으며, 잘츠부르크 모짜르테움, 밀라노 콘서바토리, 함부르크 뮤직홀, 취리히 톤할레 음악당, 도쿄 산토리홀 등에서 리사이틀을 가졌다. 실내악에도 많은 관심을 가져온 프레디 캠프는 '캠프 트리오'를 결성하여 음반을 발표하고 전세계를 무대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는 프레디 캠프의 10년만의 단독 공연으로 많은 클래식 팬들의 기대를 모으고 있다. 특히 부산에서 갖는 첫 연주회라 부산 음악애호가들을 설레게 한다.

이번 부산무대에서 프레디 캠프가 선택한 레퍼토리는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 4번, 5번. 2002년 다니엘 가티의 지휘로 로열 필하모닉과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을 연주하여 호평을 받은 바 있는 프레디 캠프는 2011년 영국 11개 도시의 주요 공연장에서 다시 한 번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전곡 연주를 진행하는 등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에 대한 애착이 대단하다. 3개의 협주곡을 연주하는 일은 연주자에게 대단한 에너지와 집중력이 필요한 작업인 만큼 프레디 캠프에게도 이번 무대에 대한 기대가 크다.

이번 협주곡 무대를 위해 코리안 심포니오케스트라가 오랜만에 부산을 찾는다. 2014년 임현정 前 부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상임지휘자가 예술감독으로 부임해 화제를 모으고 있는 코리안심포니오케스트라는 1985년 3월 30일 순수 민간교향악단으로 출범해 지난 1987년부터 국립극장과 전속 관현악단 계약을 맺어 국립오페라, 국립발레, 국립합창의 반주를 맡아왔다. 이번 무대는 프레디 캠프가 직접 지휘를 맡아 감동적인 무대를 열어준다.

PROGRAM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3번 Piano Concerto No. 3 in c minor, Op.37

- I . Allegro con brio
- II . Largo
- III . Rondo. Allegro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4번 Piano Concerto No. 4 in G Major, Op.58

- I . Allegro moderato
- II . Andante con moto
- III . Rondo. Vivace

베토벤 피아노 협주곡 5번 Piano Concerto No. 5 in E flat Major, Op.73

- I . Allegro
- II . Andante un poco mosso
- III . Rondo (Allegro)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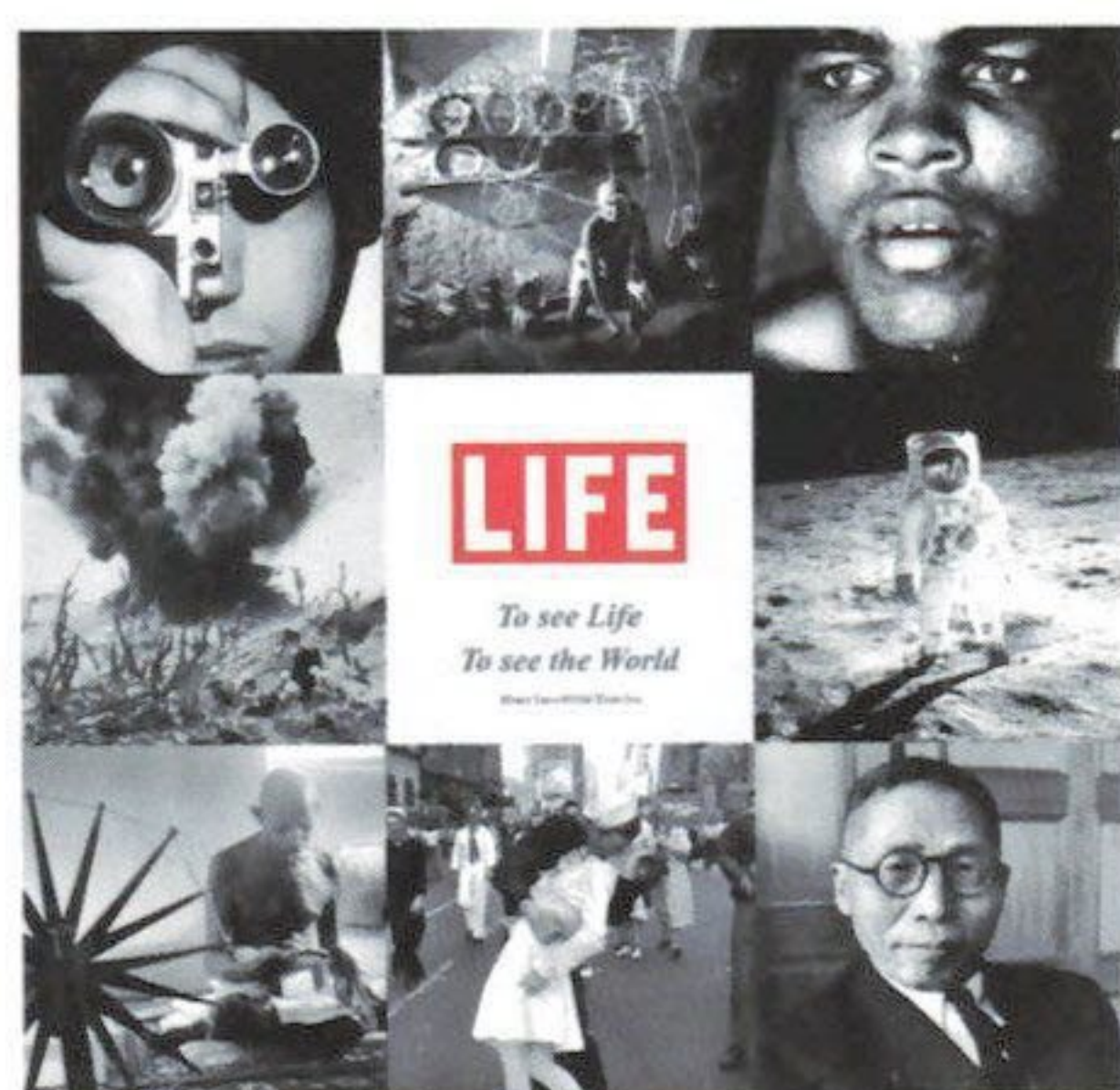


CULTURAL SCHEDULE

SUN

MON

TUE



전시 - 대전시실

부산문화회관 기획전시
하나의 역사, 70억의 기억 **라이프사진전**
1월 5일(일)-4월 12일(토) 대전시실

입장료
일반·대학생 1만 2천원, 중고생 1만원,
초등, 유아 8천원(만 4세 미만 무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매에 한해 2천원 할인)

※해설시간 : 오전 11시, 오후 2시, 5시
문의 디커뮤니케이션(612-6619)

1 **대**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99회 정기연
주회 '바르톡의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19:30 2만원, 1만5천원, 1만원, 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중 사랑반올림 for you 19:30
초대/김정아(010-9334-6105)

6

소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OFF 부문
극단 도깨비 '모자여행' 17:00
2만원, 1만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13

중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IN 부문
극단 배우창고 '가가가 오신다'
17:00 2만원, 1만5천원
부산연극협회(645-3759)

소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부산시민연극제' 14:00, 15:00, 16:0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

20

대 뮤지컬 '맘마미아' 오리지널팀 내한공연
14:00, 18:30 15만원, 12만원, 9만원, 6만원
예술기획 성우(1599-1980)

중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IN 부문
극단 몽키프로젝트 '뮤지컬 꽃동네'
17:00 2만원, 1만5천원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폐막식
19:00 부산연극협회(645-3759)

27

대 뮤지컬 '맘마미아' 오리지널팀 내한공연
14:00, 18:30 15만원, 12만원, 9만원, 6만원
예술기획 성우(1599-1980)

중 제37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하승경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 1만원/박정년(010-4391-1106)

7

중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IN 부문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비어짐
을 담은 사발 하나' 19:30 2만원, 1만5천원
부산연극협회(645-3759)

소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OFF 부문
극단 도깨비 '모자여행' 19:30
2만원, 1만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14

중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IN 부문
극단 배우창고 '가가가 오신다'
19:30 2만원, 1만5천원
부산연극협회(645-3759)

21

중 제38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베토벤 교향곡 시리즈 I
'YG Concert 19:30
균일 2만원/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621-4577, 010-8508-8310)

28

중 제37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솔로와 듀오의 밤' 19:30
균일 1만원/박정년(010-4391-1106)

소 나린 '4인 연주회' 19:30
무료/이미나(011-9332-5438)

8

중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IN 부문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비어짐
을 담은 사발 하나' 19:30 2만원, 1만5천원
부산연극협회(645-3759)

소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OFF 부문
극단 도깨비 '모자여행' 19:30
2만원, 1만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15

소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OFF 부문
극단 아프리카 몽 'Y(와이)' 19:30
2만원, 1만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22

대 뮤지컬 '맘마미아' 오리지널팀
내한공연 19:30
15만원, 12만원, 9만원, 6만원
예술기획 성우(1599-1980)

29

대 부산시립합창단 제151회 정기연
주회 '음악, 사람의 마음에 귀 기울이다'
19:30 1만원, 7천원, 5천원
부산시립합창단(607-3141~2)

중 이태리음악연구회 제38회 정기연주
'봄의 향연' 19:30
균일 1만원/정거화(010-8254-6178)

표 공연은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에
한하여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
십시오.
- 이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
안내는 <http://culture.busan.go.kr>
을 click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측에
문의바랍니다.

WED	THU	FRI	SAT
<p>2</p>	<p>3</p>	<p>4</p> <p style="text-align: center;"> ●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개막식 및 개막 축하공연 '운악' 19:00 2만원, 1만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p>	<p>5</p> <p>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41회 정기연주회 모차르트 '레퀴엠' 17:00 균일1천원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 </p> <p> ●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개막 축하공연 '운악' 17:00 2만원, 1만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p> <p> ●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OFF 부문 극단 도깨비 '모자여행' 17:00 2만원, 1만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p>
<p>9</p> <p style="text-align: center;"> ●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OFF 부문 극단 도깨비 '모자여행' 19:30 2만원, 1만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p>	<p>10</p> <p style="text-align: center;"> ●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IN 부문 극단 누리에 '칼치' 19:30 2만원, 1만5천원 부산연극협회(645-3759) </p>	<p>11</p> <p style="text-align: center;"> ●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IN 부문 극단 누리에 '칼치' 19:30 2만원, 1만5천원 부산연극협회(645-3759) </p> <p style="text-align: center;"> ●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부산시민연극제' 14:00, 15:00, 16:0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 </p>	<p>12</p> <p style="text-align: center;"> ●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부산시민연극제' 14:00, 15:00, 16:00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 </p>
<p>16</p> <p style="text-align: center;"> ●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IN 부문 극단 이그라 '들꽃소리' 19:30 2만원, 1만5천원 부산연극협회(645-3759) </p> <p style="text-align: center;"> ●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OFF 부문 극단 아프리카 몽 'Y(와이)' 19:30 2만원, 1만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p>	<p>17</p> <p style="text-align: center;"> ●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IN 부문 극단 이그라 '들꽃소리' 19:30 2만원, 1만5천원 부산연극협회(645-3759) </p> <p style="text-align: center;"> ●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OFF 부문 극단 아프리카 몽 'Y(와이)' 19:30 2만원, 1만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p>	<p>18</p> <p> ● ● 뮤지컬 '맘마미아' 오리지널팀 내한공연 19:30 15만원, 12만원, 9만원, 6만원 예술기획 성우(1599-1980) </p> <p style="text-align: center;"> ●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OFF 부문 극단 아프리카 몽 'Y(와이)' 19:30 2만원, 1만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p>	<p>19</p> <p> ● ● 뮤지컬 '맘마미아' 오리지널팀 내한공연 15:00, 19:30 15만원, 12만원, 9만원, 6만원 예술기획 성우(1599-1980) </p> <p style="text-align: center;"> ●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IN 부문 극단 몽키프로젝트 '뮤지컬 꽃동네' 17:00 2만원, 1만5천원 부산연극협회(645-3759) </p> <p style="text-align: center;"> ●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OFF 부문 극단 아프리카 몽 'Y(와이)' 17:00 2만원, 1만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p>
<p>23</p> <p> ● ● 뮤지컬 '맘마미아' 오리지널팀 내한공연 19:30 15만원, 12만원, 9만원, 6만원 예술기획 성우(1599-1980) </p> <p style="text-align: center;">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40회 청소년 협연의 밤 '2014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19:30 균일 2천원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3) </p> <p style="text-align: center;"> ● 강인경 귀국 피아노 독주회 19:30 균일1만원/음악풍경(987-5005, 010-6803-3886) </p>	<p>24</p> <p> ● ● 뮤지컬 '맘마미아' 오리지널팀 내한공연 19:30 15만원, 12만원, 9만원, 6만원 예술기획 성우(1599-1980) </p>	<p>25</p> <p> ● ● 뮤지컬 '맘마미아' 오리지널팀 내한공연 19:30 15만원, 12만원, 9만원, 6만원 예술기획 성우(1599-1980) </p> <p style="text-align: center;"> ● ● 부산시립교향악단 2014 웰빙콘서트 시리즈 '11시에 만나요' 오페라 하이라이트II '팔리아치' 11:00 균일 1만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p>	<p>26</p> <p> ● ● 뮤지컬 '맘마미아' 오리지널팀 내한공연 15:00, 19:30 15만원, 12만원, 9만원, 6만원 예술기획 성우(1599-1980) </p> <p style="text-align: center;"> ● 토요일상설무대-부산색소폰앙상블 16:00 무료(공연 30분 전부터 선착순 입장) 부산문화회관(607-6056) </p>
<p>30</p>			<p>전시 - 대전시실 제8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부산공모전 4월 16일(수) 10:00-4월 19일(토) 15:00 주최_사)국민예술협회 부산지회</p> <p>전시 - 대·중전시실 제20회 대한민국 전서예대전 입상작 4월 23일(수) 13:00-4월 26일(토) 14:00 주최_사)대한민국 서예인 연합회</p>

부산음악인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부산음악협회 신임회장

고정화



2014년 부산음악협회 회장으로 새로운 음악인생을 시작한 고정화 부산음악협회 신임회장.
새봄 시작과 함께 부산지역 음악인들을 아우르는 부산음악협회의 수장으로 바쁘게 움직이고 있는
고정화 회장은 부산음악협회 14대 회장이자 최초의 여성회장으로 부산음악계의 기대를 한데 모으고 있다.

“정년퇴직한 뒤 연습할 시간이 많아져서 좋았는데 처음 출마 제의를 받고 많이 망설였습니다. 부담스럽고 마음이 무거운 일이었지만 아버지가 그랬던 것처럼 부산음악계를 위해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출마를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고정화 회장은 부산지역 최초의 음악교수로 수많은 인재를 양성한 고태국 선생의 맏딸이다. 1980년부터 2010년까지 부산교대 교수로 재직하면서 많은 인재를 양성한 고정화 회장은 2012년 68세의 나이에 독주회를 갖는 등 퇴직 후에도 연주자로 왕성한 활동을 펼쳐왔다. 1995년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창단을 이끌며 초대 회장으로 활동하기도 한 고정화 회장은 2004년 한국예술평론가 협의회가 시상하는 올해의 음악 부문 최우수예술인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올해 5월에도 독주회를 계획했는데 부산음악협회 일을 맡게 되면서 부득이하게 취소를 했습니다. 앞으로 부산음악협회의 위상정립과 회원 간의 친목도모, 정보 교환, 음악문화의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요즘 고정화 회장은 지난 2월 부산음악협회장 취임 후 처음 가진 이사회에서 쏟아져 나온 협회 회원들의 주문, 바람들을 바탕으로 부산음악협회의 본격적인 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올해 부산음악협회가 풀어나갈 최고의 화두는 ‘부산마루국제음악제’이다.

“회원들의 요구가 가장 많았던 부분은 부산음악협회가 다시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주관에 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0년 부산마루국제음악제가 처음 열렸을 때만 해도 부산음악협회가 음악제를 주관했는데 제2회 행사부터 안타깝게도 음악협회의 손을 떠났습니다. 부산음악인의 참여 확대와 역량 결집, 음악계 화합을 위해서 주관 변경은 꼭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고, 원로들께서도 특별히 당부하셨습니다.”

고정화 회장은 부산마루국제음악제를 전체 부산 음악인들을 아우를 수 있는 음악제로 만들기 위해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관계자들과

합리적으로 풀어나갈 생각이다. 부산마루국제음악제 외에도 협회 예산 부족 또한 고정화 회장에게는 풀어야 할 숙제. 부산음악협회의 예산이 몇 년 사이 많이 줄었고 회원들의 참여부족으로 회원들이 많이 감소했기 때문에 협회 살림이 녹록하지 않다. 기존 부산음악협회에서 진행하던 그랜드피아노 페스티벌, 신인음악회, 대학교향악축제 등 일부 행사들을 재정비하고 시민들에게 차별화된 무대를 선사할 계획이다. 예산 부족으로 존폐 위기에 있던 대학교향악축제는 11월 을숙도문화회관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을숙도문화회관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그 외 올해 처음으로 ‘편곡창작음악제’를 신설, ‘한국창작음악진흥정책’에 맞는 한국작곡가들의 창작음악, 편곡음악으로 새로운 음악문화를 만들어 나갈 계획이다.

“부산음악협회의 모든 사업들은 부산지역 음악인, 부산시민들의 적극적인 애정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부산지역 음악인들과 부산음악협회 활성화를 위해 함께 고민하면서 협회 참여를 적극적으로 독려할 계획입니다.”

형편이 어려운 청소년들을 돕기 위해 구상중인 청소년음악교실에 벌써부터 재능기부를 약속한 회원들이 있어 한편으로 힘이 난다. 그래서 고정화 회장은 부산지역 연주인들이 연주할 수 있는 기회 마련, 지역의 격차 해소를 위해 봉사하겠다는 취임 첫 마음을 잊을 수 없다.

일흔 나이에도 쉽 없이 달려온 고정화 회장의 열정으로 울려 퍼질 즐거운 하모니가 벌써부터 기대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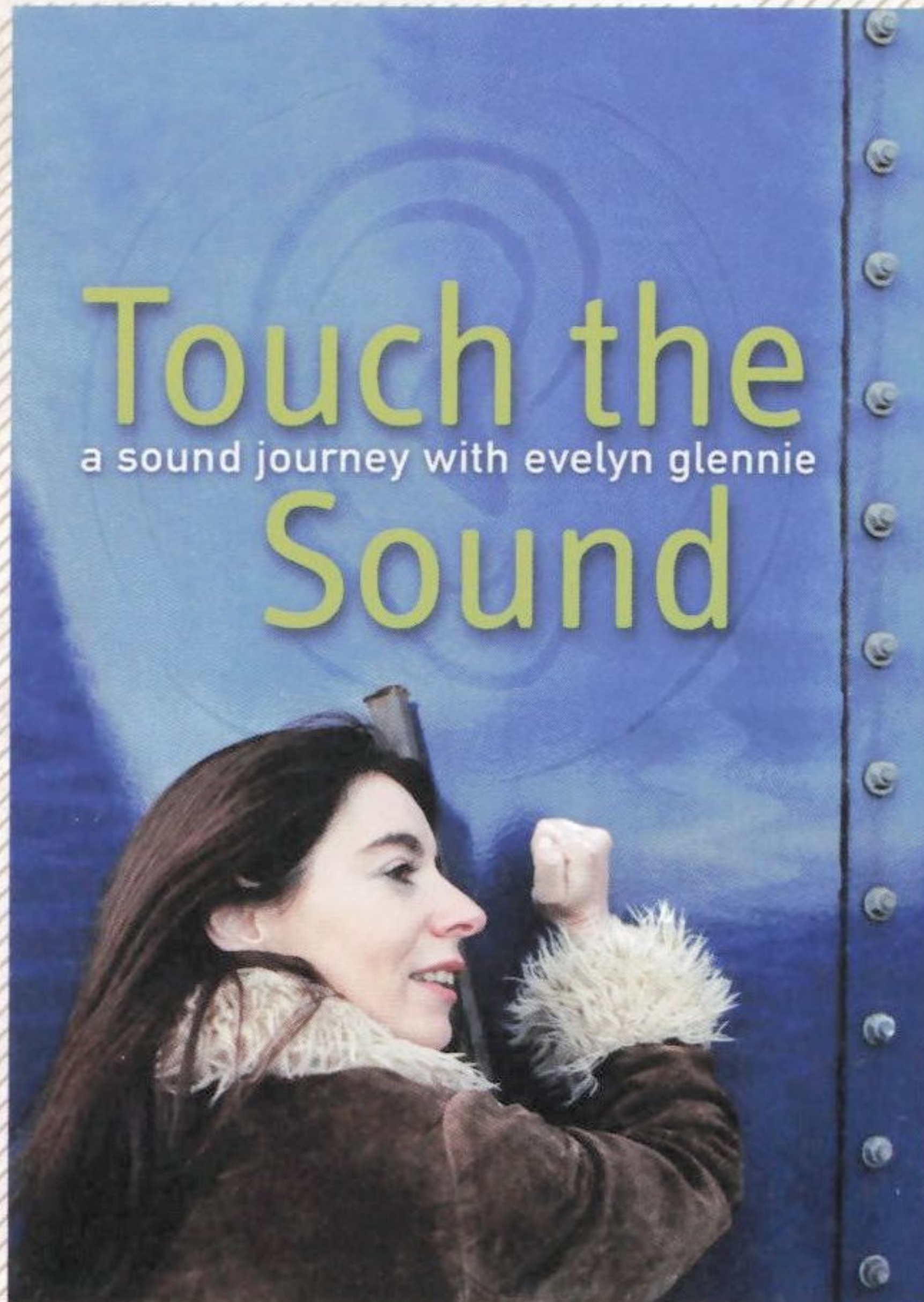
“

우리는 음악, 리듬, 자동차 소음, 전자기기 소리, 대화 등 끊임없는 소리 속에 파묻혀 생활한다. 20세기 현대 음악의 거장 존 케이지는 100퍼센트 방음이 된 방에서 미동조차 하지 않을 때 어떤 소리를 들을 수 있을까 라는 질문을 안고 사일런스에 대한 실험을 했는데 이 때 그는 자신의 심장 박동 소리를 들었다는 아이러니한 일화가 있을 정도로 소리는 삶의 존재를 증명하는 단서이기도 하다. 우리가 경험하는 일상의 소리들은 마치 믹서기에 넣어져 분쇄되어 원래 물질을 더 이상 분리할 수 없을 만큼 서로 어우러져 있고, 우리는 이것들을 무의식 가운데 흡수하고 또 분출한다. 특히 음악은 마치 거대한 자석처럼 지구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도 끌어모으는 힘을 가지고 있다. 그렇다면 청각 장애인들은 어떻게 음악을 듣고 느낄까? 이들은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당연하게 나누는 공동 언어와 공동 커뮤니케이션으로부터 소외되어야만 하는 것일까?

몸으로 듣는 음악: 청각 장애인들의 음악 세계

수회합창단





청각장애를 극복한 세계적인 타악기 연주자 에벌린 글래니

**몸으로
음악을 듣는
뮤지션들**

세계적인 작곡의 거장들인 베토벤, 스메타나, 포레는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들이었다. 놀랍게도 전화를 발명한 벨과 전신 부호의 발명자인 에디슨 역시 심각한 청각 손상을 가지고 있었다. 청각 장애인은 일반적으로 정지된 청각 기능을 대신할 수 있는 시각과 촉각이 크게 발달되어 있어서 소리, 특히 리듬을 아주 민감하게 느낀다. 즉 몸 전체를 통해서 음악을 ‘듣는다’는 이야기다. 예를 들어 신호등 앞에서 정차하고 있는 옆 자동차 운전자가 창문을 연채 강렬한 비트의 음악을 듣고 있을 경우 자신의 자동차까지도 울렁거리는 것을 느낄 수 있는데 이 때 자신도 모르게 손과 발을 움직이는 경험을 한 적이 있을 것이다.

이런 원리를 통해서 브리튼 출신의 에벌린 글래니는 청각 장애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몸을 마치 진동체인 것처럼 여기면서 자유자재로 신들린 경지의 연주를 보여주는 세계적인 타악기 연주자이다.

토비아스 크레머는 독일 최고의 청각 장애인 댄서로 대중들의 인기를 누리고 있다. “저는 음악을 듣지 못하지만 진동을 통해서 음악을 느낄 수 있어요. 음악의 볼륨이 높을수록 더 잘 느낄 수 있어요.” 그는 친구들과 함께 처음으로 간 디스코텍에서 음악을 듣지 못하고도 춤을 출 수 있는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었다. “디스코장의 음악이 너무 요란했는데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 친구들이 춤을 어떻게 추는지 보여줬는데 완전히 매료되고 말았어요.” 그는 2010년 독일에서 인기 있는 연예인 선발 대회인 ‘슈퍼 탤런트’ 에서 춤을 통해 백만 명의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그는 청각 장애가 음악의 길을 가로막는 핸디캡이 아님을 그의 춤을 통해 직접 보여주었다.

퀵스에 있는 성 게오르그 합창단은 청소년 청각 장애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창단된지 벌써 10년이 되었다. 그들은 그들의 손을 통해서 리듬 수화로 가스펠, 팝, 록

을 열창한다. 수화 뿐 아니라 제스처, 표정, 몸동작 모두가 노래를 이루는데 관중들은 마치 춤을 보는 듯한 느낌을 가지게 된다.

핀란드의 랩그룹인 사인마크는 들을 수 있는 노래와 수화로 이루어진 음악을 제공한다. 세명의 뮤지션 가운데서 래퍼는 청각 장애인이다. 그의 랩 가사들은 재빠른 손동작과 얼굴 표정을 통해서 뛰어나게 표현하여 보는 이들로 하여금 절로 감탄을 자아내게 할 뿐 아니라 세계 청각 장애인들에게 인기 래퍼이기도 하다.

첨단 테크닉과 눈으로 듣는 음악

청각 장애인들이 음악을 '들 수' 있는 또 하나의 방법은 그들의 놀랍게 발달된 시각을 이용하는 것인데 현대 과학의 힘을 빌어 오디오 서핑을 가능케 하고 있다. 무대 조명 효과에 흔히 쓰이는 스트로보 전광을 이용해서 음악의 다이내믹과 템포, 음색의 표현이 진동을 통해서 다양한 색깔과 그래픽의 움직임으로 표현되는 것인데, 예를 들어 컴퓨터 게임에서 보여지는 극적인 색깔과 템포 변화가 게이머에게 무의식적으로 흡수되어 게임에 빠져들게 되는 것도 비슷한 원리이고 집에서 음악을 스트로보 전광 효과와 함께 들을 수 있는 소프트 웨어도 있다.

하지만 록 콘서트 같은 라이브 무대를 방문해서 열광의 도가니 속으로 빠지는 강렬한 체험도 가능할까? 라우라 슈벵버는 수화와 춤, 동작을 통해서 청각 장애인들이 라이브 콘서트의 체험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독일에 몇 안되는 음악 수화 전문가이다. 그녀는 뮤지션들의 뮤직 비디오와 가사를 철저히 분석한 후 이것을 수화로 전달하는데, 팝 음악에 쓰이는 신조어나 감정 중심의 단어들을 전달하기 위해서 슬랭 수화도 개발한다. 또 단조로운 손의 동작에서 벗어나 마치 연기와 같은 얼굴 표정과 제스처, 춤까지도 가미해서 노래의 가사, 멜로디, 리듬, 느낌 등 복합적인 표현을 전달 가능케 한다. 록 콘서트와 같은 밴드, 조명, 거대한 음향 효과, 수화가 어우러진 종합 예술의 장에서 청각 장애





음악 수화 전문가 라우라 슈벵버



독일 청각 댄서 토비야스 크레머

인들은 들을 수 있는 사람과 같은 감정을 유발하게 되는데 이들은 비트에 맞춰 함께 박수를 치고 발을 구르며 열광한다.

그녀가 한 록 밴드의 콘서트를 ‘번역’하려고 했을 때 밴드의 기획사는 아주 회의적으로 반응했다. 수화인이 전달하는 음악이 청각 장애인들에게 얼마나 와닿을까? 그녀의 춤을 추다시피하는 큰 동작들이 밴드의 음악으로부터 주의를 분산시키지 않을까? 등 예상할 수 있는 우려였다. 하지만 결과는 아주 성공적이었다. 청각 장애인 관중들은 열광했고 들을 수 있는 관중들은 이를 보고 놀라워했다. 콘서트가 끝난 후 관객들은 무대 뒤로 찾아와서 청각 장애인들의 음악 세계와 수화에 대해서 놀라운 경험을 했으며 감사의 표현을 했다. 이것은 콘서트 주관 기획사와 뮤지션들 역시 마찬가지였다.

라우라 슈벵버와 같은 음악 전문 수화인들이 이런 특별한 미션을 수행하는 이유는 음악에 대한 열정과 함께 청각 장애인 가족이나 친구와의 각별한 우정과 같은 개인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어릴 때부터 이들에게 TV나 거리에서 흘러나오는 음악과 소리가 어떤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수화를 넘어선 독특한 표현 방식을 개발하게 되었는데 가족들이 즐거워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음악 수화가 하나의 일상 생활이자 열정 가득한 직업이 되었다. 독일은 청각 장애인을 위한 혜택이 많은 선진국이지만 그녀는 청각 장애인을 위한 흥미로운 음악 문화 공연 프로젝트들이 더 많이 기획되고 보급되기를 기대한다면서 이를 위해 자신의 열정을 쏟아붓겠다고 말한다.

참조 토비야스 크레머

비디오 수화 합창단 <http://www.youtube.com/watch?v=RuqBdyfQOzw>

사인마크 <http://www.youtube.com/watch?v=Q8YzAo2haKI>

라우라 슈벵버 <http://www.youtube.com/watch?v=GUSZ69XvqbE>

에벌린 글레니 <http://www.youtube.com/watch?v=fSKpgAV2420>

불멸의
거장

글
김혜진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수석
부산시 무형문화재 제8호
강태홍가야금산조 보유자 후보

사진
강태홍류가야금보존회

강태홍류 가야금산조의 종교성



강태홍 선생과 안양스님(대구 팔공산 동화사에서)

강태홍이 평생 깊은 불심을 지니고 살았음은 익히 알려진 바다. 때문에 그의 음악세계도 불교에 대한 신앙심 속에서 다져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의 일생에서 중요하게 부각되는 부분은 불도에 의 귀의이다. 그가 언제부터 불문에 심취하게 되었는지는 확실치 않지만 19세 때 광주 신청을 떠난 이후부터로 추측된다. 대구 동화사, 경주 불국사, 서울 봉원사, 부산 범어사 등 그가 머무는 곳이면 어디서나 사찰을 찾았고, 스님들과 교류를 하였다. 이러한 스님들과의 교류는 그의 음악생활과 음악세계에 실제로 많은 영향을 미쳤다.

효산(曉山)이라는 호는 부산 범어사의 기유담 스님에 의해 처음으로 알려졌고, 부산 안양사에서 있었던 강태홍의

삼재 음악공양 때 기유담 스님이 단소를 분 것이나 대구 동화사에서 스님과 찍은 사진 등은 이러한 스님들과의 교류를 충분히 짐작케 한다. 또한 그는 늘 염주를 지니고 다니면서 “사람으로 아홉 번을 환생해야 악(樂)을 할 수 있다”고 한 것이나, 풍류악보 ‘염불(念佛)譜’ 앞에 ‘일념(一念)’을 적어놓은 것들은 모두 그의 음악세계가 불교에 대한 신앙심 속에서 다져졌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그의 음악에 대한 평생의 집념 또한 불교 신앙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고 하겠다.

강태홍은 그의 생활 곳곳에서도 불교적인 색채를 강하게 보여준다. 화려해 보이는 서울의 연주생활을 싫어했던 것은 ‘오탁악세(五濁惡世)’를 벗어나 맑은 세상에서 정신을 정화하며 살려고 했던

의지이며, 늘 혼자 말없이 조용히 지내기를 좋아한 것은 몸소 묵언을 실행코자 한 것이며, 명상하며 좌선하기를 즐겨한 것은 자신의 삶과 음악을 화두삼아 묻고 답하여 깨치고자 한 것이다. 또한 평생 고향을 찾지 않고 가족 없이 혼자 살았던 것은 그가 세속의 연(緣)을 뛰어 넘고자 했던 것이며, 늘 가난 속에 살았지만 유머와 여유를 잃지 않았던 것은 그가 물질의 유무를 넘어서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강태홍의 불교적인 교리의 생활 실천 모습은 그가 무심과 공(空)을 지향하는 수행자로서의 길을 가고 있음을 보여준다. 나아가 이러한 그의 생활태도는 음악에 무심의 음악과 깨달음의 음악을 추구하게 되었고, 결국 그의 음

악을 담담하고 절제된 가운데 법열(法悅)의 환희감을 표현하는 음악으로, 신비감을 주는 깨침의 음악으로 느끼게 하는 원천이 된 것이라 여겨진다.

강태홍 가야금산조 형성기에는 당시 산조음악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고, 따라서 남도지방의 허튼 가락에 익숙했을 것이다. 하지만 20세 이후 불교를 믿었던 그는 자신의 음악을 짜 나가고 틀을 완성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불교적인 사고가 끊임없이 뒷받침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즉 그는 남도지방의 구슬픈 느낌을 주는 시김새를 완화시켜 담담함과 초월감을 표현하려 애썼고 강한 전성, 스타카토와 부드러운 미는 수법을 대비시켜 동중정(動中靜)의 절제된 조화미를 표현했으며, 화려하고 까다로운 붙임새를 자진모리와 휘모리에서 많이 사용하여 법열의 경지에서 느껴지는 신비감을 담았다. 이런 점 때문에 그의 가야금산조는 김창조계의 영향을 받았다고 하지만 김창조계의 가야금산조와는 음악적으로 특이하며, 분위기에서 신비감을 주는 결과를 낳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강태홍 산조음악의 독창성과 신비감은 모두 그의 음악성과 함께 깨달음을 얻어가는 법열의 상태, 무심과 공을 지향하는 반야사상이 바탕이 된 종교성에 의해 가능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예전의 명인들에게서 평가되던 강태홍 가야금산조의 신비감을 음악적으로 찾는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신비감이란 논리적으로 설명되거나 합리적으로 추론되는 성질의 것이 아니라 음악을 접했을 때 인간의 감성에 의해 종합적으로 느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신비감은 음악을 듣는 사람의 느낌이고, 연주자에게는 아마도 몰아의 경지에서 자

신의 음악에서 느끼는 환희감일 것이다. 강태홍이 평생 불문에 심취했던 걸 생각한다면 아마도 그의 음악에서의 신비감은 자신이 법열을 느끼는 순간의 음악일 수도 있을 것이다.

법열이라는 것은 곧 깨달음을 얻는 순간 느끼는 환희감이다. 이러한 환희감을 느끼는 법열의 상태는 다양한 사람들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느껴지게 마련이다. 깨달음을 얻고자 하는 이에게는 기존까지의 사물이 새로운 관점으로 보일 것이고, 화가에게는 화폭의 질서와 새로운 미적 기준이, 음악가에게는 새로운 형식과 가치기준이 생길 것이다. 이러한 예는 다양하게 찾을 수 있지만 특히 승려의 법고부(法鼓舞) 같은데서 우리는 법열의 경지를 느낄 수 있다. 연주자가 북가락에 몰아되어 무아의 경지에 이를 때 법열감은 극대화되고, 연주자의 환희감이 최고의 정점을 향할 때 관중은 신비감을 맛보는 것이다.

강태홍 가야금산조에서의 신비감을 적절히 설명하기는 다소 어렵지만 음악적인 면에서 찾는다면, 아마도 그의 음악에서 가장 화려하고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는 붙임새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물론 붙임새 외에도 시김새나 수법과 같은 여타 요소가 있겠지만 신비감을 느끼게 하는 가장 본질적인 요소는 붙임새에서 느껴지는 게 아닌가 생각된다. 특히 자진모리와 휘모리에서의 붙임새는 앞 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장단도 일반적인 붙임새가 없을 만큼 끊임없이 변화를 계속하며,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매우 정교하고 세련되며 까다롭게 되어 있다. 물론 이런 붙임새는 음악적으로 소화가 가능하여야만 느낄 수 있을 것이다.

평범함 속에서는 신비감이 느껴지지 않는다. 또한 연주자의 극점과 연주자의 정신이 음악 속에 녹아들어 있을 때 사람들은 신비감을 느끼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강태홍 가야금산조에서의 붙임새는 그의 음악적 기량에 의해, 자신과 음악이 하나가 됨으로서 느끼는 법열의 경지를 음악적으로 표출함에 의해 사람들에게 그의 음악성에 의해 뒷받침된 것이지만, 그가 일생을 불문에 심취해 살았던 만큼 자신의 음악 속에 무심과 공의 철학이, 또 법열의 환희감이 반영되어 우리에게 신비감을 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부산시무형문화제 제8호 강태홍류 가야금산조 보존회 연주모습.

건축으로 보는 부산, 부산 문화

글 강기표
건축가
건축사사무소 아체 ANP 대표



“카메라는 인간의 눈보다 뛰어나다, 그리고 사진은 실제보다 더 그림 같이 세상을 보여 줄 수 있으며, 이상적으로 그래야만 한다.” - 안드레아스 파이닝거, <라이프 사진전> 전시 텍스트 중에서

세 가지 시선 그리고 하나

세 가지 시선

“

누구는 여행지의 아름다운 풍경을 담고 싶어, 어떤 이는 어머니, 아내, 아이들의 모습을 간직하고 싶어, 어떤 이는 메모와 기록의 수단으로, 어떤 이는 자기표현의 매체로 사진을 찍는다. 이렇듯 사진은 누구에게나 친숙하고 보편화 되어있는 표현, 기록 매체이다.

사람들은 건축과 함께 생활하며 삶을 영위한다. 아침의 해가 창가에 드리우면 일어나 집에서 나와, 회사라는 건축물로 향하고, 휴일에 산이나 바다로 여행을 떠나더라도 종교건축물, 숙박시설, 문화시설 등의 건축물과 마주치며, 도시에 머물더라도 백화점, 영화관이라는 건축물에서 문화를 향유하고, 지친 삶을 재충전한다. 건축 사진은 건축과 도시에서의 우리의 삶을 카메라로 포착하기도 하고, 건축의 공간적 본질을 표현하기도 한다.

‘김재경’¹⁾ 작가는 건축에 대해 남다른 감각과 뛰어난 해석과 함께 절제된 심미성이 돋보이는 뛰어난 건축사진을 보여 주고 있으며, 그의 다큐멘터리적 시선은 우리 삶의 실체를 드러내 보이고 있다. 그의 작품 <영선동_006>은 영도 영선동의 빛바랜 페인트의 담벼락과 옥상 물탱크, 빨래 줄의 옷가지, 멀리 보이는 오래된 아파트 그리고 스치듯 지나가는 중년의 남자를 포착함으로써 영선동이 갖고 있는 질감과 삶의 흔적을 포착하고 있다. 그의 프레임 속 ‘영선동의 바닷가 산허리의 집들’은 일제 강점기를 거치며, 한국전쟁 이후 들어서기 시작한 ‘판자집’에서 ‘쓰레트집’으로 변화였고, 시간과 공간의 흔적과 삶의 무거운 어깨를 보여준다.

그녀의 집이자 작업실로 유명한 <비온후>의 ‘이인미’²⁾ 작가는 건축과 도시의 압축된 시선을 ‘프레임’이라는 틀 속에서 보여주고 있다. 그녀의 <Anotherframe> 시리즈는 건축의 이면에 숨겨진 공간을 통해 도시를 포착함으로써 도시의 건조성, 반복성, 낮선 시선 등을 표현하고 있고, 과거의 기억이 혼재하는 장면을 한 장의 사진에 압축하여 보여주고 있다. 도시풍경을 과거의 기억이나 장소로서의 삶이 아니라 자본주의에 내맡겨진 채 맹목적으로 도시화되어가는 삶을 무덤덤하게 보여주고 있다.



① ② ③ ④

- ① 부산 감천마을 20.6 X 28.3 cm (종이에 파란잉크 펜화)_©이관직
- ② 영선동-006_©김재경
- ③ Anotherframe01_©이인미
- ④ 동서학원 R&D센터_©윤준환

건축의 본질적 심미성 표현에 중점을 두고 있는 ‘윤준환’³⁾ 작가는 부산의 가장 활발한 건축사진 작가로서 건축의 심도 깊은 공간성을 카메라에 담고 있다. 그의 작품 <동서학원 R&D센터>를 비롯한 건축 사진에서 건축가에 의해 구현된 건축을 그의 시선으로 재해석함으로써 건축이 갖고 있는 공간적 질감을 충실히 표현하고 있다.

건축의 개념을 정리하고 발전시키는 건축 작업의 한 과정으로 스케치를 이용한다. 최근 ‘수원화성, 도시풍경소묘전’을 가진 ‘이관직’⁴⁾ 건축가는 스케치라는 표현 수단을 갖고, 사람들의 삶과 도시와 건축을 포착하고 기록, 표현한다. 파랑색 만년필의 부산 스케치<감천마을>은 감천의 집과 지붕, 전봇대, 산능선, 골목의 겨울 빠른 크로키를 통해 이 동네가 갖고 있는 과거의 흔적과 현재의 삶과 이들의 정체성, 장소성을 표현

하고 있다.

사진과 스케치는 기록하고 표현한다는 면에서는 유사성을 갖고 있다. 도시와 건축이 갖고 있는 질감과 장소성, 정체성을 표현하고 이를 도시와 건축에 대한 시선으로, 삶의 흔적으로 와 닿는다. 건축은 단지 개인의 경제적, 자기 과시적 현물이 아닌 도시와 사람의 공공적 자산이기도 하거니와 삶과 함께 더불어 자라나는 생물과 같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

기록과 표현의 현대적 매체로서 대중과 가까운 위치에 사진이 있다면, 건축가로서의 표현, 메모, 작업의 수단으로 ‘스케치’가 있다. ‘사진’이 기계적 스케치라고 한다면, ‘스케치’는 작가의 눈에 의해 포착되고, 손길로 표현된 결과물이다. 또한 건축가는 스케치를 통하여

- 1) 김재경은 1990년부터 공간과 건축, 인간의 풍경을 렌즈에 담아왔다. 1994년 개인전 [건축사진]을 시작으로 수많은 개인전과 그룹전에 참여했으며, 1998년 월간 [POAR]가 꼽은 ‘11인의 주목 받은 건축인’으로 선정된 바 있다. 사진집으로 [자연과 건축], [mute], [mute 2: 봉인된 시간], [건축 도시기행](공저) 등이 있고, 2003년 한미문화예술재단에서 주는 ‘올해의 작가상’을 수상했다.
- 2) 이인미는 동아대학교에서 건축을, 부산대학교 대학원에서 영상학을 전공하였다. 지금은 사진으로 건축과 도시를 만나는 일을 하고 있다. [FRAM:재현의 위치]를 비롯한 네 번의 개인전과 [2012 부산비엔날레-배움의 정원] 등 다수의 기획전과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그리고 [건축개념어사전] 등의 출판 작업에 참여하였다.
- 3) 윤준환은 동아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2001 도시건축사진 공모전] 대상 등 다수의 공모전에서 수상하였으며, 부산광역시 [도시 기록화작업 전속사진가], [월간 SPACE] 전속 건축사진가로 활발한 건축사진 작업을 보이고 있다. 개인전 [윤준환 유럽건축사진전, Gaze at the space]과 클레이아크 김해미술관 기획전 [Contemporary Han-ok] 등을 비롯한 다수의 기획전에 참여하였다.
- 4) 이관직은 고려대학교에서 건축을 전공하고, <공간연구소>, <이공건축>을 거쳐, 현재 <비에스디자인 건축> 대표로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건축가이다. [과천시정보과학도서관]을 비롯한 다수의 건축 작품이 있으며, 최근 개인전 [수원화성, 도시풍경소묘전]을 비롯하여 다수의 기획전에서 스케치 작품을 소개하고 있다.



복합문화공간 예술지구 P

“

회색빛 건물로 둘러싸인 삭막한 공단에
새로운 문화공간이 문을 열었다.

최근 금정구 회동동 금사공단에 문을 연
복합문화공간 '예술지구 P'가 바로 그곳.

오는 4월 19일 정식 개관을 앞두고 있지만

그동안 다양한 문화행사를 진행해오면서

개관 전부터 지역민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예술지구 P는 육성화학(주)의 후원으로 마련된 문화공간이다. 1천 464㎡ 부지의 창고로 사용하던 건물을 흔쾌히 내주면서 지금의 예술공간P가 탄생하게 됐다. 지난해 11월 리모델링 공사가 모두 마무리되면서 문화공간으로서 예술지구 P의 발걸음도 분주해졌다.

예술지구 P는 두 개의 건물에 다양한 문화공연이 펼쳐지는 전방위 공연장과 두 개의 전시관, 녹음실, 연습실, 세미나실, 촬영스튜디오, 그리고 예술가들이 창작을 하며 머물 수 있는 레지던시 공간이 들어서 있다. 운영은 창작공간 P와 아트랩 P, 전방위 예술극장 금사樂, 사진미디어공간 포톤 등 4개 단체가 공동으로 맡고 있다. 예술에 대한 '열정(Passion)'으로 하나로 뭉친 이들은 작가와 관객이 소통할 수 있는 그야말로 '예술지구'를 탄생시켰다.

'창작공간 P'는 예술가 레지던시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시각예술을 비롯한 다양한 장르의 예술가들이 창작에 전념할 수 있도록 국내외 미술가들의 전시를 기획하고 지원하면서 새로운 예술창작의 산실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그 첫 기획으로 3월 21일부터 기획전 '드로잉을 말하다'가 펼쳐진다. 현대미술에 있어서 드로잉의 개념과 범

위를 되짚어보는 전시로 박승모, 윤필남, 김성민, 강이수, 이창우, 변웅필, 조민협, 서민정, 정택금, 김이슬, 김정기 등 미술, 건축, 공예, 사진 등 다양한 장르에서 활동하는 11명의 작가가 참여한다. 전시는 5월 8일까지 계속된다. 미술현장을 기반으로 하는 인문학 연구를 지향하는 '아트랩 P'는 다양한 미술교육 프로그램 운영 외에도 미술비평과 문화담론을 다루는 잡지를 발행하고 비평집과 번역서, 아카이브를 출판하는 등 다양한 계획을 세우고 있다. 특히 '아트랩 P'는 정식 개관에 앞서 지난해 12월부터, 1980년대 이후 주요작가들의 작품세계를 테마별 주제로 살펴보는 '테마로 읽는 현대미술 특강'과 예비 큐레이터들을 위한 전시기획 실무특강을 석달 과정으로 운영하면서 참석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기도 했다. 전방위 예술극장 '금사樂'은 지역 예술가

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통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지역 대 지역, 장르와 장르 등 실험적인 콜라보레이션을 통해 새로운 형태의 공연 문화를 만들어갈 계획이다. 또, 인근 지역민들에게 가장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장르인 만큼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지역 주민과 만날 예정이다. 올해는 지역 인디 뮤지션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한 '인디아나 콘서트'를 비롯해 부산지역 뮤지션들을 주축으로 타 지역 뮤지션들과의 다양한 음악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로컬투락',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밴드를 지속적으로 후원하는 '밴드 인큐베이팅' 외에도 금사공단지역의 문화적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드림스쿨'을 매주 목요일마다 운영한다. 특히 드림스쿨은 지난해 한 차례 시행되어 지역주민들의 큰 호응을 얻으면서 2기 강좌때는 수강인원을 배로 늘일 계획이다. 이 밖에 금정구 관할구역 내

소외계층 아동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외 아동 자선공연, 2014 댄스교육캠프 IN 금사락, 2014부산 중/고등학교 댄스대회(7월 27일), 2014 저스트필링 세계 팝핑 배틀(8월 17일) 등 다양한 일정들이 그 순서를 기다리고 있다. 한편, 사진을 기반으로 하는 작가들의 네트워크 공간인 사진미디어공간 '포톤'은 지난해 12월 갤러리 개관전으로 사진작가 이희섭 씨를 초대, 사진전 '답(踏)답(答)한 차이의 반복'전을 열기도 했다, 예술지구 P는 옆 건물의 갑작스러운 화재로 한달 정도 개관이 늦어지면서 오는 4월 19일 정식 개관한다. 개관식 당일에는 전방위 예술극장 '금사樂'이 주관하는 전인권 콘서트 등 다양한 문화행사가 예정되어 있다.

문의/예술지구 P 070-4322-3557



“

한주를 새롭게 시작하는 월요일 저녁, 하루의 일과를 마친 사람들이 해운대문화회관으로 하나 둘 모여든다. 매주 월요일은 극단 몸투레 단원들의 연습이 있는 날. 어스럼한 4층 연습실에 불이 켜지면 극단 몸투레 단원들의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

극단 몸투레는 해운대문화회관이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연극아카데미' 수강생들로 구성된 아마추어 극단이다. 배움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무대 서기를 꿈꾸는 아마추어 배우들의 열정으로 2012년 초 극단 몸투레가 결성됐다.

“젓먹이 아이들이 용알이를 하기 전에 입술을 떨며 투투투 소리를 내는 행위를 투레짓이라고 하는데요, 연극을 표현하는 몸과 처음 시작을 뜻하는 투레짓을 합쳐 몸투레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극단 몸투레 창단에는 현재 연극아카데미 수업을 진행하면서 극단의 지도를 맡고 있는 극단 해풍 대표 이상우 씨의 숨은 노력이 있다. 부산 연극계가 더욱 풍성해지려면 아마추어 극단이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그는 그래서 극단 몸투레 활동에 거는 기대가 크다.

무대 위에서 새로운 출발을 꿈꾸는 아마추어 극단 **몸투레**





극단 몸투레는 해운대문화회관이 지난 2011년부터 운영하고 있는 '연극아카데미' 수강생들이 배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무대에 서기를 꿈꾸며 결성한 아마추어 극단이다.

현재 극단 몸투레에서 활동하는 단원은 모두 15여 명. 고등학생에서부터 60대 어르신까지 연령층도, 직업도 다양하다. 해운대 주민들도 많지만 먼길 마다하지 않고 찾는 영도구, 사하구 거주자들도 있다. 연극아카데미 수업이 있는 월요일마다 수업을 겸한 연습을 갖고 있는 몸투레 단원들은 요즘 4월에 열리는 '부산시민연극제' 참가를 앞두고 연습으로 그 어느 때보다 분주하다.

극단 몸투레는 지금까지 총 3편의 작품을 무대에 올렸다. 지난해 1월, 연극아카데미 발표회를 겸해 무대에 올렸던 창작극 '老미오와 줄리엣'이 바로 첫 작품. 이상우 씨가 직접 대본을 쓴 '老미오와 줄리엣'은 오는 4월 극단 해풍의 정기공연으로 무대에 오른다. 두 번째 작품인 '희망편지'는 가정폭력을 다룬 작품으로, 지난해 부산시민연극제에서 단원 박세용 씨, 강계정 씨가 연기상을 수상하면서 주목받기도 했다. 지난 2월 무대에 올렸던 세 번째 작품 '생생투데이'는 연극아카데미 과정에서 단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이상우 씨가 대표 집필한 창작극이다. 자살예방극으로, 4월 13일 부산문화회관 소극장에서 열리는 부산시민연극제에 이 작품으로 참가한다.

극단 몸투레 창단 멤버로 현재 회장을 맡고 있는 박세용 씨. 색소폰 연주자로도 활동했던 박세용 씨는 젊은 시절 울산에서 잠시 극단생활을 하기도 했다. 15년 전부터는 '폼바'를 공연하는 '전박대박 민속예술공연단'을 설립, 활동해오고 있는 그는 보다 체계적인 공부를 위해 연극아카데미 문을 두드렸다. 이왕 시작한 극단 활동이니 만큼 극단 몸투레의 이름을 건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싶다는 박세용 회장은 본격적인 활동에 앞서 올해 극단 몸투레를 정식 극단으로 등록할 계획이다.

지난 2012년 12월, 연극아카데미 제2기생으로 극단 몸투레와 인연을 맺은 이희영 씨는 젊은 시절부터 연극무대에 관심이 많았다. 7년 전, 지금의 NC백화점 전신인 2001아울렛 문화센터에서 운영하던 연극반에 등록하기도 했으나 한달만에 수강생이 없어 연극반이 폐강되는 경험을 겪기도 했다. 호른을 전공한 음악도여서인지 의외로 무대에서 떨지 않아 사람들로부터 무대체질이라는 소리를 듣곤 한다는 이희영 씨. 최근 들어서는 연출에도 관심이 가지만 아직까지는 연기자로서 더 배우겠다는 그는 누구나 어울려 문화예술을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운영하는 것이 꿈이다.

젊은 시절, 부모님의 반대로 연기자로서의 꿈을 이루지 못했던 황양숙 씨에게 극단 몸투레는 제2의 인생을 열어준 고마운 존재이다. 지난해 9월 극단 몸투레와 인연을 맺은 후 연극 '생생투데이'를 통해 첫 연기신고식을 가졌던 그는 지금도 무대에 섰던 그 순간의 기억이 생생하다.

“무대에 섰는데 머리가 하얘지면서 대사가 하나도 기억이 안나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첫 대사를 뱉고 나니 그때부터는 어떻게 연기를 했는지..., 공연이 끝난 후 연출 선생님으로부터 잘했다는 칭찬을 들었을 때 그렇게 기쁠 수가 없었어요.”

예순이 넘으면서부터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는게 행복이라 생각하게 되었다는 그는 무대에 설 수 있는 요즘 하루하루가 행복하다.

연기에 뜻을 둔 다른 단원들과 달리 대학에서 디자인을 전공하는 손륜예 씨는 내성적인 성격을 고치고 싶어 극단과 인연을 맺었다. 아직까지는 무대에 서더라도 사람들과 제대로 눈도 마주치지 못하지만 언제나 곁에서 격려해주는 극단 단원들이 있어 든든하기만 하다.

기차타고 떠난 경주 수학여행 다시가기



여행의 설렘 속에서 문화예술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색다른 문화체험 프로그램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테마여행’이 올해 3월로 벌써 8주년을 맞았다.

첫 여행의 설렘을 기억하기 위해 해마다 3월이면 테마여행 첫 여행지로

회원들에게 가장 인기가 많았던 경주로 테마여행을 떠난다.

특히 올해는 지난 2011년에 이어 기차여행으로 더욱 기대를 모았다.



꽃샘추위도 한풀 꺾인 지난 3월 14일 이른 아침, 부전역에는 평소와 달리 여행을 떠나는 정기회원 가족들로 일찍부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 이번 여행은 부전역에서 출발, 경주역에 도착한 뒤 전통체험마을인 세심마을과 경주시내에 자리한 월성지구를 둘러보고 돌아오는 코스. 오전 9시 12분 출발하는 경주행 무궁화호 열차에 탑승하면서 본격적인 테마여행이 시작되었다. 이번 경주여행에는 부산시립극단 단원 오희경 씨와 홍보담당 배정환 씨가 동행, 회원들을 더욱 설레게 했다. 차창 밖으로 펼쳐지는 봄 풍경을 바라보며 함께한 가족, 친구들과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 어느새 경주역에 도착했다.

미리 대기하고 있던 버스에 탑승한 정기회원 가족들은 한국 성리학의 기초를 다진 조선 전기 성리학자인 회재 이언적 선생의 자취가 서려있는 세심마을로 출발했다. 세심마을에 도착하기 앞서 회원들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마을 앞 옥산서원으로 발길을 옮겼다. 회재 이언적 선생을 기리는 옥산서원은 이언적 선생이 돌아가신지 19년 후인 선조 5년(1572), 당시 경주부윤 이제민에 의해 건립되었으며 이듬해 선생의 위패를 봉안하고 임금으로부터 ‘옥산’이라는 이름을 받아 사액서원이 되었다. 서원 정문인 역락문(亦樂門)을 들어서면 무변루(無邊樓)라는 2층 누각과 공부하는 장소인 구인당(求人堂)이 서로 마주보고 있다. 두 건물 사이에는 학생들의 기숙사인 동재와 서재가 있으며, 강당 뒤편에는 이언적 선생의 위패를 모셔놓은 사당 체인묘가 자리하고 있다. 옥산서원은 조선 후기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서 제외된 47개 서원 중 하나로, 선생의 저서와 역대 명인들

의 글씨와 문집이 보존되어 있다. 옥산서원 옆을 흐르는 자계천이 전날 내린 비로 더욱 시원하게 흘러내린다. 자연이 빚어내는 아름다움에 회원들의 탄성이 절로 쏟아진다.

옥산서원을 둘러본 후 세심마을로 발걸음을 옮기자 기다리고 있던 마을주민들이 반갑게 회원가족들을 맞는다. 지난 2002년 농촌전통테마마을로 지정된 옥산 세심마을은 마을에서 자체 운영하는 다양한 전통놀이체험을 즐기기 위해 전국에서 많은 방문객들이 찾고 있다. 우선 마을에서 준비한 점심식사로 허기진 배를 달랜 정기회원들은 식사 후 세심마을에서 준비한 전통놀이체험에 나섰다. 회원들이 이날 체험한 전통놀이는 활쏘기와 제기 만들어 차기, 그리고 투호놀이. 처음 잡아보는 활시위지만 과녁을 뚫어저라 바라보는 회원가족들의 눈이 사뭇 진지하다. 한편에서는 처음 만들어 차보는 제기에 여기저기서 웃음꽃이 터진다. 이어서 도시에서는 쉽게 경험할 수 없는 떡메치기가 벌어졌다. 회원들이 직접 떡메로 쳐서인지 콩고물을 묻힌 인절미가 더욱 쫄득하고 고소하다.

모든 전통체험을 마치고 난 후, 정기회원 테마여행의 하이라이트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이 펼쳐졌다. 부산시립예술단 단원 오희경, 배정환 씨의 뮤지



4월 당첨자

엽서 신청하신 분

김경희(부산진구 국악로)
 김미랑(금정구 금강로)
 강성덕(사상구 냉정로)
 김은경(남구 석포로)
 김태진(연제구 월드컵대로)
 이정희(사하구 계룡로)
 안정학(해운대구 달맞이로)
 정미희(석구 구덕로)
 최미숙(서구 대신공원로)
 한지호(영도구 절영로)

신규 가입하신 분

권정숙(남구 전포대로)
 고영관(해운대구 센텀중앙로)
 박수진(해운대구 해운대로)
 박중태(북구 금곡대로)
 정수경(동래구 쇠미로)
 차수영(진구 당감로)
 최미화(동구 조방로)
 최현영(창원시 진해구)
 한애경(양산시 오봉로)
 홍영훈(남구 양지골로)

컬 넘버 열창에 회원들의 박수소리가 끊이지 않는다. 이어서 영화 '씨니'에 등장하는 디스코 배워보기에 여기저기 찌르는 회원들의 손짓만큼이나 웃음소리도 커져만 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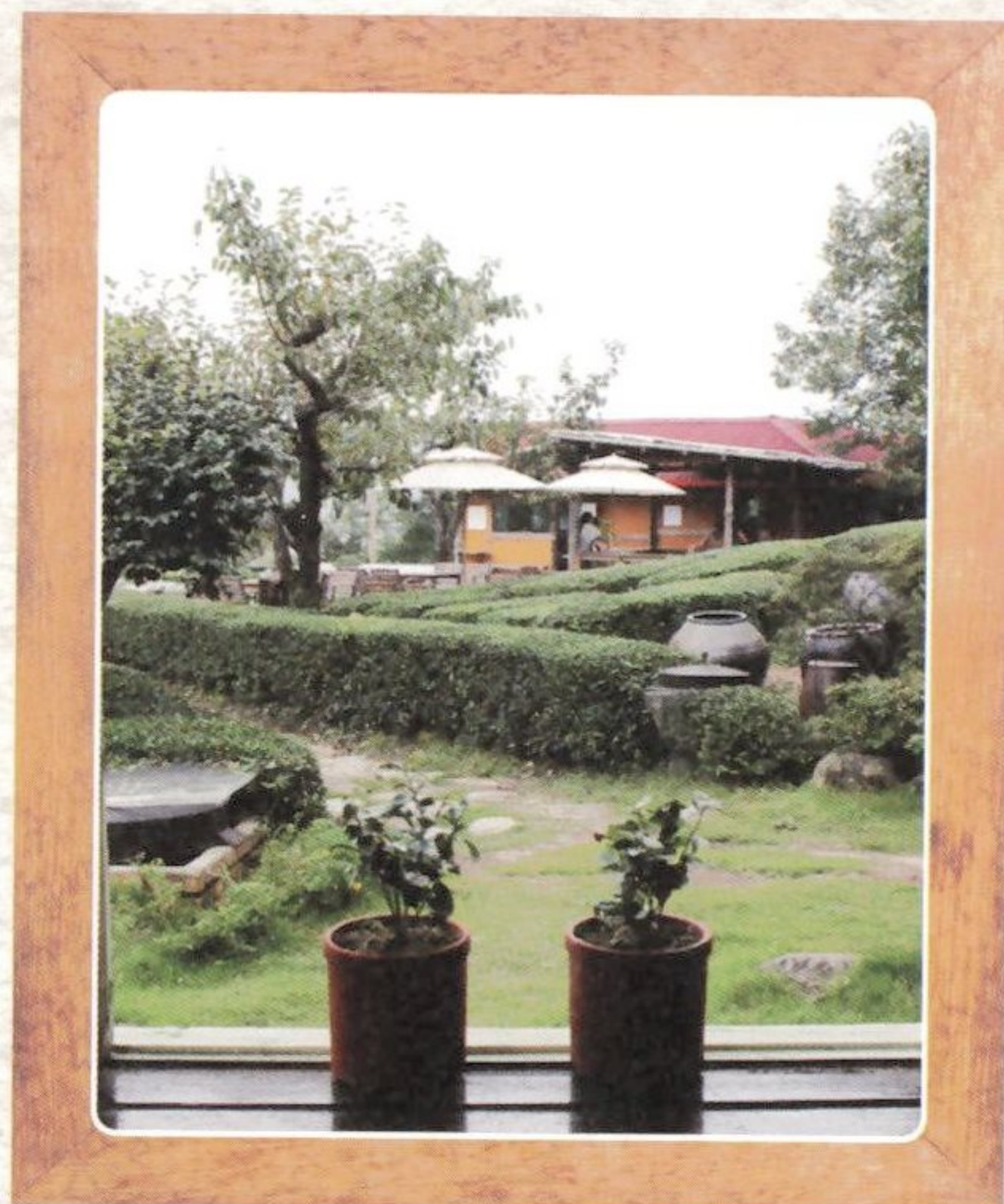
세심마을에서의 모든 일정을 마무리하고 경주역으로 가기 앞서 경주시내 투어를 가졌다. 경주 최씨의 종가로, '경주 최부자택'으로 널리 알려진 경주교동 최씨고택에 도착하자 기다리고 있던 신라사람들 최승욱 씨가 회원가족들을 반긴다. 원효대사와 요석공주의 일화가 전해지는 경주 남천 월정교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탐방에 나섰다. 월정교는 통일신라시대 경덕왕 19년(760)에 건립되어 왕궁인 월성의 남단에 연결되는 통로로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데, 고려 충렬왕 6년(1280)에 중수했다는 기록이 있는 500년이 넘는 최고(最古)의 교량이다. 지난해 말 복원공사를 마친 월정교를 먼발치에서 감상한 뒤 국가교육기관이었던 경주향교를 둘러보고 계림으로 발길을 옮겼다.

계림은 경주 김씨의 시조인 김알지 탄생설화를 간직한 숲이다. 원래 신라가 건국될 때부터 있었던 숲으로, 시림이라고 불리던 것을 알지가 태어난 뒤로 계림이라 하였다. 김알지 탄생설화가 전해지는 계림비석과 인근에 자리해 저 멀리 보이는 첨성대까지, 최승욱 씨의 재미나는 입담에 시간가는 줄 모르던 회원들은 기차 출발시간이 가까워져 아쉽지만 경주역으로 향했다.

오후 5시 9분 부산으로 돌아오는 무궁화호 열차. 하루 추억을 공유한 회원가족들의 이야기꽃은 쉽사리 지지 않는다. 2014년 새 봄을 맘껏 만끽했던 경주 테마여행, 천년왕국의 자취가 고스란히 남아있는 경주처럼 오래도록 추억이 남는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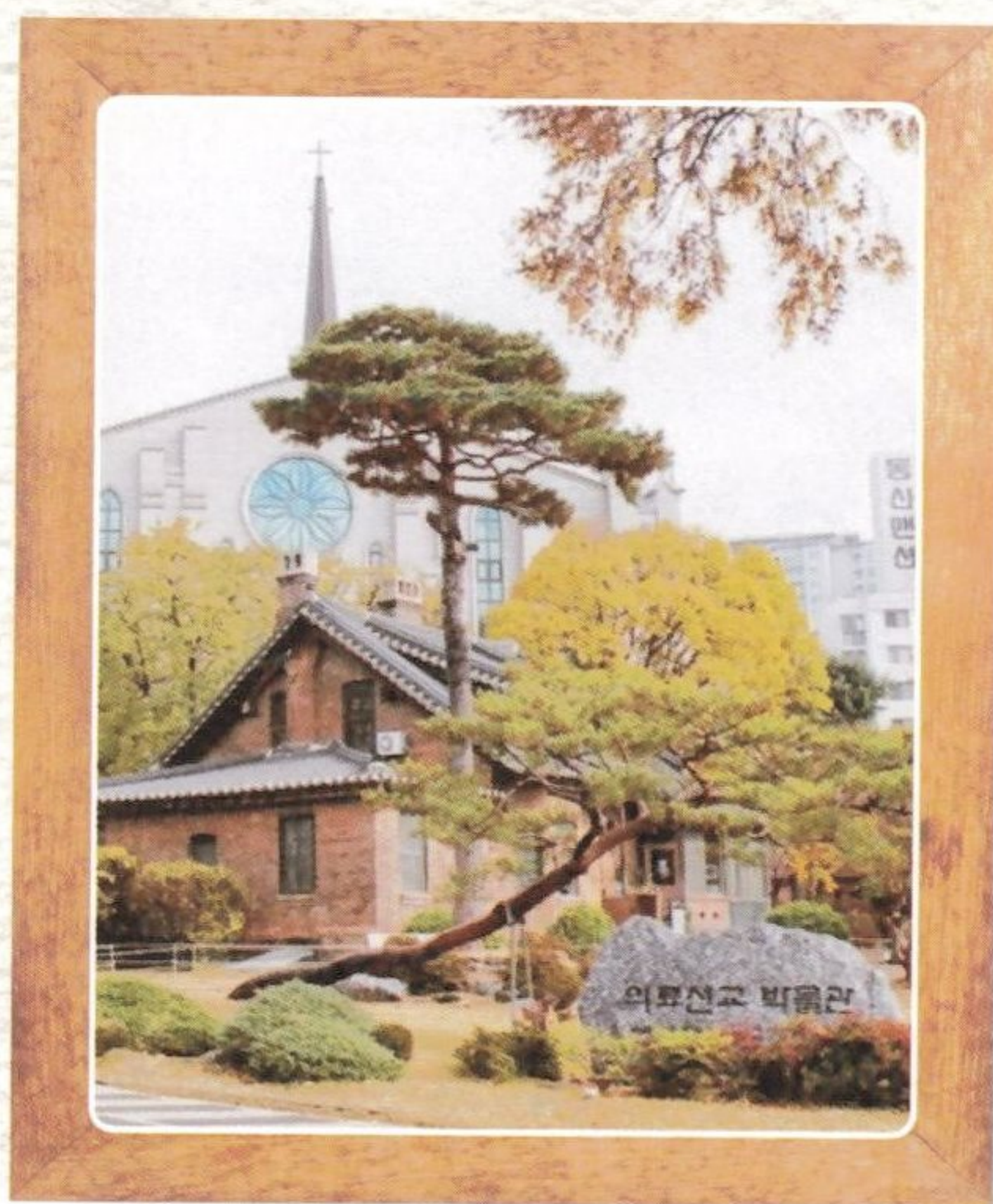
매암차문화박물관

5월 9일(금)

하동 오감여행

지리산 국립공원과 맑고 푸른 섬진강이 굽이굽이 흐르는 청정 하동으로 떠나는 봄여행. 박경리의 대하소설 '토지'의 배경 평사리 최참판댁, 하동차의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고 차의 신비로움을 체험할 수 있는 '매암차문화박물관'에서 오감여행을 즐긴다.

- 07:30 부산문화회관 집결
- 10:00 하동 도착, 평사리 최참판댁, 평사리문학관 방문
- 11:30 악양 청보리밭길 걷기, 중식
- 13:00 매암차박물관 제다만들기 체험
- 15: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6:00 부산으로 출발



의료선교박물관

6월 13일(금)

대구 근대역사 골목투어

조선시대에서 일제시대, 아픈 한국의 근·현대사와 그 속에서 곳곳하게 살아온 대구사람들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대구 근대역사기행.

- 08:00 부산문화회관 집결, 출발
- 10:00 대구도착, 골목투어(동산 선교사주택-3·1 만세운동길-계산성당-이상화서상돈 고택 등)
- 12:30 중식
- 13:30 잔골목, 약령시 한의학문화관 등
- 15:30 부산시립예술단과의 만남
- 16:00 부산으로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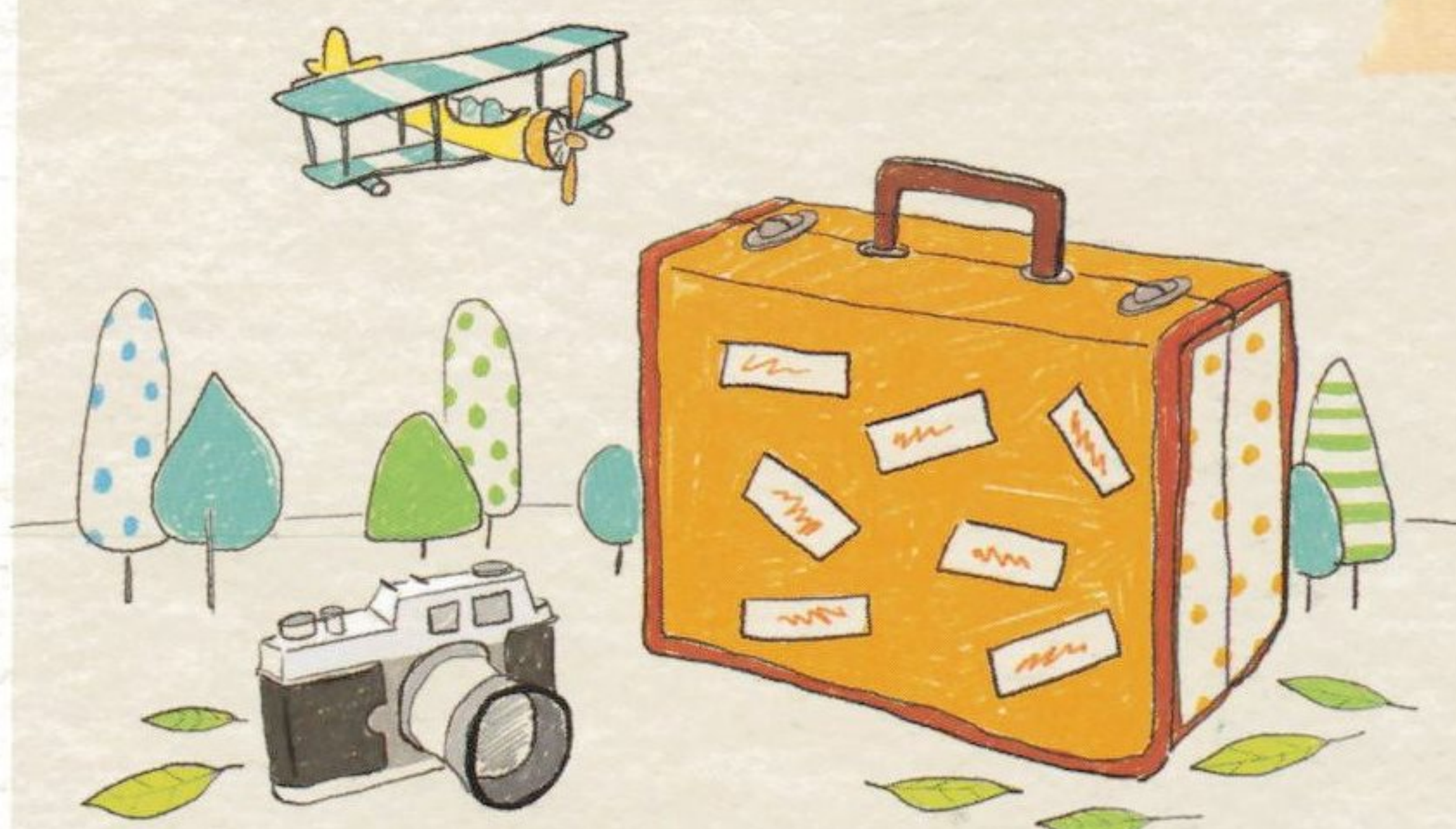
2014년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을 위한 테마여행에 응모하세요!

부산시립예술단원들과 함께 떠나는 품격높은 테마여행의 행운을 드립니다.
테마여행에 참가하고 싶은 정기회원님들은 신청영서를 부산시립예술단 홍보마케팅부로 보내주시요.
당첨되신 회원은 동반 1인과 함께 여행에 참가하실 수 있습니다. (체험비는 회원 부담)

| 신청방법 | 엽 서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홈페이지 culture.busan.go.kr 정기회원 테마여행 게시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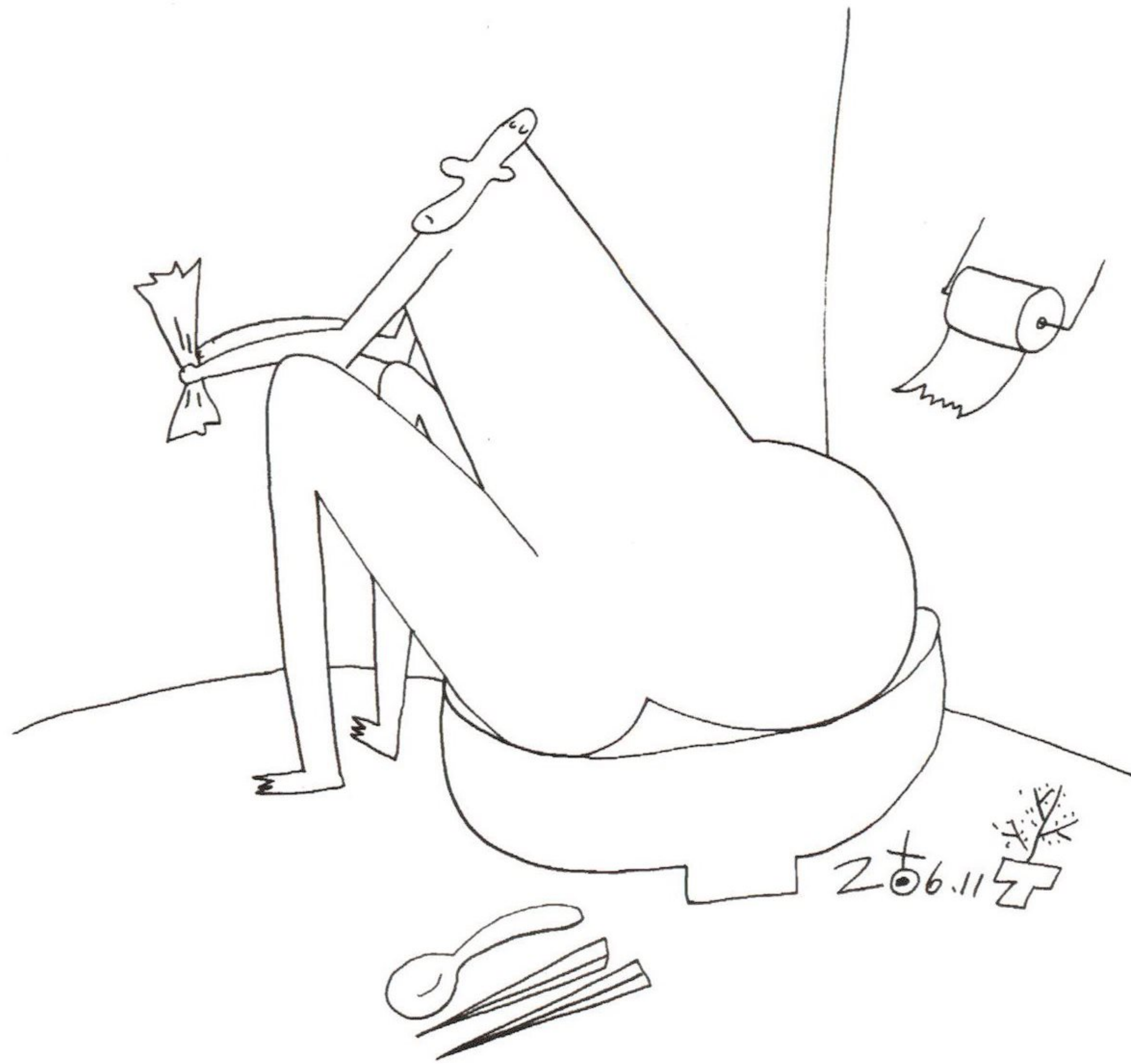
| 마감일자 | 4월 16일

| 문의 |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607-3100)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

오늘 문득, 어느 가수의 '돌고 도는 물레방아 인생'이라는 가사가 떠올랐다.
오면 가고, 가면 오는 자연의 이치를 유달리 이 봄에 느끼게 되는 것은 왜 일까.



Culture Life

부산시주요공연장안내

국립부산국악원 | 811-0040
금정문화회관 | 519-5651
동래문화회관 | 550-6611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 366-8114
부산문화회관 | 1607-6051~5
부산북구문화빙상센터 | 309-4087
부산시민회관 | 630-5200
부산예술회관 | 612-1372
부산햇살가득한날에 | 1899-3253
영도문화예술회관 | 419-5571~3
영화의전당 | 780-6000
을숙도문화회관 | 220-5812~3
해운대문화회관 | 749-7651
가온아트홀 |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 663-5363
공간소극장 | 611-8518
글로벌아트홀 | 505-5995
디코소극장 | 464-1996
레몬트리소극장 | 626-0116
무대공감 | 623-0678
무지크바움 | 070-7692-0747
미리내소극장 | 504-2544
센텀시티 소향씨어터 | 1544-1555
소극장 6번출구 | 625-2117
수아트홀 | 744-1415
숨사탕아트홀 | 922-4545
신명천지소극장 | 515-7314
아트카페 움 | 557-3369
액터스소극장 | 611-6616
에저또소극장 | 852-9161
열린아트홀 | 527-0123
용천지랄소극장 | 612-4312
일터소극장 | 635-5370
자유바다소극장 | 441-2733
차성아트홀 | 723-7203
청춘나비소극장 |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 621-4005
한결아트홀(구.가마골소극장) | 1588-9155
AN아트홀 | 758-9035
BEXCO 오디토리움 | 740-7300
BS부산은행조은극장 | 1588-2757
KBS부산홀 | 620-7181
LIG아트홀 | 1544-3922
MBC롯데아트홀 | 1688-8998
SM아트홀 | 1600-1602

- 32 프리뷰
- 38 리뷰
- 40 프로그램 가이드
- 56 새로 나온 음반
- 57 새로 나온 책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41회 정기연주회 모차르트 'Requiem'



지휘 전상철

지난해 창단 40주년을 맞아 다양한 활동을 펼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2014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모차르트 'Requiem'으로 2014년 첫 정기연주회 무대를 연다.

영화 '아마데우스'를 통해 알려지면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모차르트 '레퀴엠'은 '죽은 자를 위한 미사곡' 혹은 '진혼곡'이라 불리는 모차르트의 유작이다.

모차르트 '레퀴엠'은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곡이다. 당시 아마추어로 작곡을 하던 발제크 백작이 그의 아내가 일찍 사망한 후 기일을 맞아 레퀴엠을 헌정하고자 했지만 자작을 하기에는 너무 버거운 작품이라 모차르트에게 부탁을 했다. 이때가 1791년 늦은 봄, 작곡 의뢰를 받을 당시 모차르트는 이미 자신의 몸 상태가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 이 작품을 자신의 레퀴엠으로 생각해서 진지하게 써내려간다. 11월 하순에 앓아누운 모차르트는 '레퀴엠' 중에서도 가장 애절한 감정이 끓어오르는 '라크리모사(Lacrimosa, 눈물의 날)'의 작곡을 8마디에서 중단한 채 급기야 눈을 감았고 부인 콘스탄체가 제자인 쥐스마이어에게 부탁하여 모차르트가 남긴 스케치를 바탕으로 곡을 완성하게끔 했다.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전상철 수석지휘자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이 함께 참가, 고전시대의 연주처럼 어린이합창단과 남성합창단이 이루는 하모니로 색다른 음악적 색깔을 선사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소프라노 김민지, 알토 장소영, 테너 김경여, 베이스 양재원이 솔리스트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과 호흡을 맞춘다. 이탈리아 산타 체칠리아 국립음악원, 로마 A.I.D.M 아카데미, 로마 Arena 아카데미 등에서 음악수업을 한 소프라노 김민지는 주세페 디 스테파노 시칠리아 국제콩쿠르, 아네모스 로마 국제콩쿠르, 오타비오 지노 로마국제콩쿠르 등에서 1위하

고 현재 유럽을 무대로 활동 중이다. 섬세하고 깊은 목소리의 소유자 장소영은 과천시립합창단원, 레젤여성앙상블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주목받는 메조소프라노이다. 그 외 마리오 델 모나코국제콩쿠르 1위 입상한 테너 김경여, 독일 데트몰트국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오페라 최고연주자과정을 졸업하고 데트몰트 주립극장 전속 솔리스트로 활동한 바 있는 베이스 양재원이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일 시 | 4월 5일 토요일 오후 5:0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천원

문 의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61~2

Preview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4 웰빙콘서트시리즈 '11시에 만나요!
오페라 하이라이트 II '팔리아치'



지휘 이동신

저녁 시간 공연장을 찾기 힘든 청중들을 위한 한낮의 음악선물 부산시립교향악단 2014 웰빙 콘서트시리즈 '11시에 만나요!' 오페라 하이라이트 II '팔리아치'가 4월 25일 무대에 오른다.

서막과 2막으로 구성된 레온카발로의 오페라 '팔리아치'는 레온카발로의 유일한 출세작으로 혈령한 흰 옷을 입은 하인 역의 광대라는 뜻인 팔리아치오의 복수형으로 유랑극단 패를 의미한다. 레온카발로의 어린 시절, 레온카발로의 아버지가 사건의 재판관으로 수사를 담당하고 있었던 실화사건에 기초해 탄생된 작품으로 그때의 기억과 인상을 바탕으로 유랑극단의 질투심 많은 남편이 아내를 죽인다는 비극적인 내용의 이야기가 완성되었다.

아리아 'Vesti la giubba(의상을 입어라!)'는 사랑하는 사람의 부정을 알게 된 주인공이 분노와 울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공연을 위해 웃어야만 하는 비극을 노래한 것으로 특히 유명하다. 1892년 밀라노에서 토스카니니의 지휘로 초연되었으며, 1893년 메트로폴리탄에서 '마스카니의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와 '팔리아치'가 한 무대에 올려진 이후 두 작품을 함께 공연하는 경우가 많다.

오페라 세트를 최소화하고 연극적인 요소를 배제해 음악 중심으로 감상할 수 있는 오페라 하이라이트 II '팔리아치'는 이동신 지휘자의 해설로 쉽고 재미있게 오페라를 만날 수 있는 좋은 기회. 이번 무대를 위해 테너 김지호, 바리톤 제상철, 소프라노 박현정, 바리톤 강경원, 테너 김정하가 부산 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오페라 '가면 무도회', '라 트라비아타', '카르멘', '라 보엠', 창작오페라 '어머니의 무릎', '장산국이야기' 등에서 주역으로 출연한 바 있는 테너 김지호는 카니오(홍행단의 우두머리/팔리아치오 역)로, 영남대학교, 경북예고에서 후진을 양성하며 이 마에스트리, 아르스 노바 남성중창단 등의 회원으로 전문 연주가로서의 길을 걷고 있는 바리톤 제상철은 토니

오(어릿광대/ 타데오 역: 콜롬비나의 하인)로, 마스카니 국제성악콩쿠르 우승, 한국성악콩쿠르 최우수, 부산문화상 연주부문상을 수상한 소프라노 박현정은 네다(카니오의 아내/콜롬비나 역),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팔리아치', 국립창작오페라 '시절인연', 부산창작오페라 '아리랑' 등에서 주역으로 출연한 바 있는 바리톤 강경원은 실비오(네다의 애인), 부산시립합창단, 부산 YMCA 오페라 합창단 단원을 역임하고 양산시립합창단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테너 김정하는 베페(배우/아를레치노 역: 콜롬비나의 애인)로 열연한다.

일 시 | 4월 25일 금요일 오전 11:0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부산시립합창단 제150회 정기연주회 합창으로 만나며, 마음으로 만나다 음악, 사람의 마음에 귀 기울이다



지휘 오세종

2014년 시작과 함께 카르미나 부라나, 합창으로 맛보는 음식백화점 등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는 부산시립합창단이 4월 화합을 위한 치유의 선율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난다.

각각의 모습으로 스스로의 안정과 평화를 갈구하는 현대인들은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던진다. ‘음악, 사람의 마음에 귀 기울이다’로 이름붙여진 부산시립합창단 제150회 정기연주회는 ‘종교’라는 이름으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사람의 가장 나약하지만 가장 강한 신념을 만날 수 있는 무대로, 혼돈과 갈등이 만연한 현실에서 종교를 통해 마음의 평화와 평안을 갈망하는 현대인들을 위해 우리나라 3대 종교인 가톨릭과 불교, 기독교 음악을 합창으로 들려준다. 부산시립합창단은 이번 무대를 통해 현대인들의 갈망과 문제의 원초적인 질문에 ‘화합’이라는 작은 희망의 메시지를 던지고자 한다.

화합을 위한 첫 번째 무대는 가톨릭 주제음악으로 존 레빗(John Leavitt)의 ‘페스티벌 미사(Missa Festiva)’를 무대에 올린다. 부산지역 합창단공연에서 자주 무대에 오르는 존 레빗의 ‘페스티벌 미사’는 가톨릭 전례미사의 순서를 가지고 있지만 연주용 미사로 현대적 감각이 뛰어난 곡이다.

두 번째 무대는 불교 종교음악으로 찬불가 ‘범종’(김효경 작사, 정부기 작곡), ‘마음은 두고’(이정원 작사, 이순희 작곡)를 부산시립합창단 작·편곡 담당 최석태가 연주용 음악으로 편곡, 음악애호가들에게 들려준다. 태고의 우리 소리를 현대로 불러들이는 이영조 곡 ‘經(경)’이 불교음악을 대표해 연주된다. ‘經(경)’은 1975년 작곡되어 1977년 국립합창단에 의해 초연되었다. 가사는 불경의 천수경 중 참회계를 사용하여 승려들의 독경에 울려나오는 여러가지 분위기를 Heterophonic한 효과, 정체된 공간과 묵탁, 징, 북, 남성들의 소리에 얹혀 동양적인 신비를 표출하고 있다. 작곡가 이

영조는 한국 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이사장,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장, 국립한국예술영재교육원 원장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세 번째 무대는 기독교 음악으로 다국적 음악이 무대에 오른다. 부산시립합창단 작·편곡 담당 최석태가 직접 작곡한 ‘목마른 사슴(시편 42편)’을 비롯해 ‘주는 나의 피난처’, ‘왕이신 나의 하나님’, ‘He will make a Way’, ‘Clap your hands’ 등 현대적 색채가 강한 음악이 무대에 오른다.

일 시 | 4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합창단 607-3141~3

Preview

명화를 만나다_한국근현대회화 100선



1920년대부터 197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 근현대 회화 반세기의 역사를 한자리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별한 전시가 펼쳐진다.

서울 덕수궁 전시에 이어 부산시립미술관에서 열리는 ‘명화를 만나다_한국근현대회화 100선’은 한국미술사에 큰 업적을 남긴 화가 57명의 수묵채색화 70점, 유화 30점 등 한국회화의 진수 100점이 선보인다. 서울 전시에서는 지난 4개월간 관객 25만명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우며 한국미술의 봄을 일으키기도 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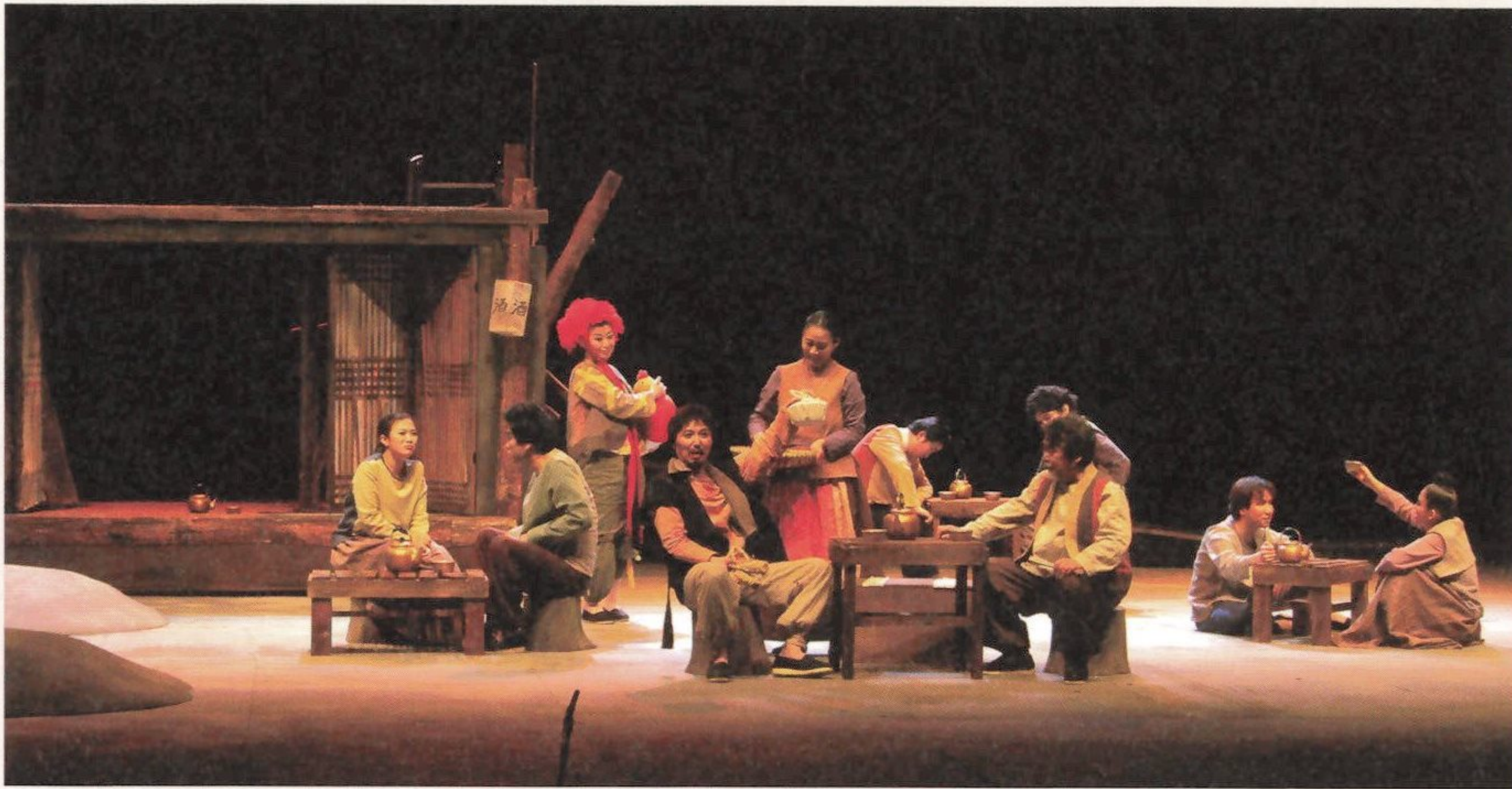
이번에 소개되는 작품은 국내 최고의 미술비평가와 큐레이터, 화랑 대표가 수 차례의 회의를 거쳐 엄선한 작품들로, 이인성, 구본웅, 오지호, 이상범, 이중섭, 이응노, 김기창, 박수근, 천경자 등 그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거장들의 작품이 전시된다. 이 밖에도 배운성의 ‘가족도(1930-1935)’, 오지호의 ‘남향집(1939)’ 등 근대문화재로 등록된 두 작품도 소개된다. 특히 출품작은 국립현대미술관, 삼성미술관 리움, 환기미술관, 국회도서관 등 전국 각지의 미술관 및 기관 외에도 30여 명의 개인 소장자로부터 빌려오는 등 이번 전시회가 아니고는 한자리에서 만나기 어려운 작품들이다.

전시는 크게 네 가지 섹션으로 나뉜다. 서양 미술이 도입되던 1920~1930년대 고전주의적 사실주의와 인상주의 화풍의 영향을 받은 작품들을 선보이는 ‘근대적 표현의 구현시기’, 1940~1950년대 일본의 영향에서 벗어나 미국, 유럽의 영향권으로 들어가는 한편 식민 잔재 청산, 좌우 이념 대립, 한국전쟁 등을 거치면서 점차 사실주의 양식에서 벗어나 구상과 추상의 개념이 형성되던 ‘새로운 표현의 모색’, 과거 사군자와 서예 중심의 전통 수묵화에서 벗어나 서양의 현대미술과 융합하는, 수묵채색화의 시대적 변화를 조망하는 ‘전통의 계승과 변화’, 1960~1980년대 미술대학에서 정규교육을 받은 세대가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던 ‘추상미술의 전개’ 등 격동하는 한

국 개화 초기부터 근대까지의 미술작품들이 섹션별로 선보인다. 특히 이번 전시회에서는 한국 근·현대미술사의 ‘트로이카’로 꼽히는 이중섭(1916~1956)의 ‘황소(1953년 경)’, 박수근(1914~1965)의 ‘절구질하는 여인(1954)’, 김환기(1913~1974)의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랴(1970)’ 등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이중섭의 ‘황소’는 지난 1999년 1월 ‘1월의 문화인물’로 선정된 것을 기념해 갤러리현대에서 열린 이중섭특별전 이후 처음 일반에게 공개되는 작품이라 큰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일 시 | 4월 8일(화)~7월 6일(일)
 관람시간 | 오전 10시~오후 7시
 장 소 | 부산시립미술관
 입 장 료 | 일반 6천원, 학생 3천원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연극의 열림! 몸의 끌림! 감동의 울림!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부산 연극인의 최대의 축제 부산연극제 2014년 무대가 4월 4일부터 20일까지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 에저또소극장에서 펼쳐진다.

올해로 32회를 맞는 부산연극제는 그동안 부산 연극인의 문화 예술 창작의욕과 지역 창작극의 활성화를 고취시키고 부산시민의 정서함양 및 문화의식을 높여 부산 예술문화 발전에 기여해왔다.

‘연극의 열림! 몸의 끌림! 감동의 울림!’이라는 슬로건 아래 펼쳐지는 이번 부산연극제는 전국연극제 부산예선대회를 겸한 경연부문인 ‘IN 부문’, 소극장 연극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극단이 참가하는 ‘OFF 부문’, 그리고 부산시민이 만들어가는 연극 축제 ‘부산시민연극제’로 진행된다. 특히 부산연극제의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IN 부문’은 참가작품 모두가 창작초연작으로, 부산 창작연극의 산실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올해 참가팀은 모두 9개 극단. 4월 5일 극단 세진의 ‘웃으며 안녕’을 시작으로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비어짐을 담은 사발 하나’, 극단 하늘개인날 ‘불꽃의 청년, 박재혁’, 극단 누리에 ‘칼치’, 극단 이야기 ‘천국 이야기’, 극단 배우창고 ‘가카가 오신다’, 극단 이그라 ‘들꽃소리’, 극단 더블스테이지 ‘라랄라 흥신소’, 창작극연구소 몽키프로젝트 ‘뮤지컬 꽃동네’ 등 9개 작품이 선보인다. 경연을 거쳐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극단은 오는 6월 전라북도 군산에서 펼쳐지는 제32회 전국연극제에 부산을 대표해 참가한다.

올해 처음 열리는 ‘OFF 부문’은 부산의 극단 에저또와 극단 도깨비, 서울 극단 아프리카 몽 등 3개 극단이 참가하는데 우수작은 이후 장기 공연으로 이어질 예정이다. 부산시민이 직접 만든 작품으로 경연을 벌이는 ‘부산시민연극제’는 올해 역대 가장 많은 10개 시민극단이 참가하는 등 해를 거듭할수록 시민들의 참가열기가 뜨거워

지고 있다.

부산연극제를 시작을 알리는 개막식은 4월 4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개막식 후 개막축하공연으로는 ‘2013 제31회 전국연극제’에서 최우수작품상(대통령상) 및 연출상, 연기상, 무대예술상을 휩쓸며 부산연극의 저력과 우수성을 알린 부산연극제작소 동녘의 ‘운악’이 상연된다. 폐막식은 오는 4월 20일 오후 7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개최된다.

일 시 | 4월 4일(금)-20일(일)
장 소 |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에저또 소극장
관람료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 5천원 (부산시민연극제 무료, 사전예매시 할인, 사랑티켓 적용)
문 의 | 부산연극협회 645-3759
www.bstheater.or.kr

Preview

주요일정

▶개막식 및 개막축하공연 부산연극제작소 동년 '운악'

4월 4일 금요일 오후 7:00, 5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현진건의 소설 '운수 좋은 날'을 각색, 원작의 10년 후의 이야기를 다룬 '운악'은 소설의 기본적인 틀은 유지하면서 저승사자와 다양한 귀신을 등장시켜 당시 암울했던 시대적 상황 뿐 아니라 삶과 죽음의 의미를 묻는다.

•작, 연출/양효운

▶IN 부문

극단 세진 '웃으며 안녕'

4월 5일-6일 토-일요일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아이를 먼저 보내고 절망감에 빠진 주인공이 상조회사에 취직하면서 장례와 죽음을 직접 경험하며 자신의 지나간 삶을 되돌아 보는 창작극.

•작/이난영 •연출/김세진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비어짐을 담은 사발 하나'

4월 7일-8일 월-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임진왜란을 배경으로, 역사적 혼란 속에서도 지켜내야했던 도자기에 대한 열정을 사기장인 영과 웅의 사랑과 한으로 풀어낸 창작극.

•작, 연출/최은영

극단 하늘개인날 '불꽃의 청년, 박재혁'

4월 8일-9일 화-수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부산경찰서를 폭파하다 체포되어 대구형무소에서 순국한 부산 출신의 독립투사 박재혁의 독립운동 활동을 그린 창작극.

•작/김문홍 •연출/곽종필

극단 누리에 '칼치'

4월 10일-11일 목-금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제6회 전국창작희곡공모전 대상 수상작으로, 선상 난동이 일어나 침몰되어 인양작업을 기다리는 갈치잡이 어선 삼봉호를 배경으로,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그 극한의 상황에서 펼쳐지는 인간 군상들의 삶의 고단함을 보여준다.

•작/유현규 •연출/강성우
•출연/이혁우, 이창환, 최성락

극단 이야기 '천국 이야기'

4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12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지옥에 있는 아들과 함께 하기 위해 천국행을 거부하는 어머니의 절절한 모성애를 그린 작품.

•작/신호권 •연출/김태호

극단 배우창고 '가가가 오신다'

4월 13일 일요일 오후 5:00, 14일 월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1980년 사랑도에 각하님이 방문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면서 각하의 방문을 준비하기 위해 분주해진 사랑도, 이곳에 한 청년이 물에서 시위를 벌이다 도망쳐 오면서 암울했던 시대를 배경으로 아픈 역사가 펼쳐진다.

•작, 연출/박훈영

극단 이그라 '들꽃소리'

4월 16일-17일 수-목요일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인간을 생체실험 대상으로 한 '마루타' 실험이 무자비하게 지행되던 일본 육군 관동군 소속의 731부대를 배경으로, 위안부로 강제 차출된 주인공의 비극적 삶을 통해 잔인했던 일본의 만행을 고발하는 창작극.

•작/채지하 •연출/최성우

극단 더블스테이지 '라랄라 흥신소'

4월 17일-18일 목-금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돈가방에 현혹되어 꼬마 죽이기에 나선 '라랄라 흥신소' 직원들의 한바탕 소동을 그린 작품.

•작/김지숙 •연출/김동민

창작극연구소 몽키프로젝트 뮤지컬 '꽃동네'

4월 19일-20일 토-일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단 5가구만 오순도순 사는 꽃동네에 마을의 유일한 노처녀 김백조가 살해당하는데, 점점 미궁으로 빠져드는 살인사건을 다룬 창작극.

•작, 연출/오리라

▶OFF부문

극단 도깨비 '모자여행'

4월 5일(토)-9일(수) 평일 오후 7:30 토-일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육순의 아들은 더 이상 팔순의 병든 어머니를 모실 여력이 없어 남은 여생이나마 서울 아들들에게 부탁하기 위해 여행길에 오르지만, 결국은 외면당한 채 두 사람만의 정처없는 여행을 떠난다.

•작, 연출/김익현

극단 에저또 '아니나 다를까 붕어빵'

4월 5일(토)-19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에저또 소극장

큰 웃음은 기본, 감동은 덤, 웃음과 감동으로 버무려진 106동 사람들의 사람 사는 이야기.

•작, 연출/최재민

극단 아프리카 몽 'Y(와이)'

4월 15일(화)-19일(토)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클럽에서 만난 지용과 서현, 언제나 여자와의 하룻밤을 보낸 후 지갑을 털던 지용과 그런 지용의 정체를 알게 된 서현의 한바탕 해프닝을 그린 창작극.

•작, 연출/임영석

▶부산시민연극제

4월 11일(금)-13일(일) 오후 2:00, 3:00, 4:00 부산문화회관 소극장

부산시민이 만들어가는 열정 넘치는 부산시민연극제. 출연자 뿐만 아니라 스태프(조명, 음향)도 참가팀에서 직접 구성, 30분 내외의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인다.

|참가단체

청소년 극단 허물라기 '방향하는 별들'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옹고집전'

극단 몸투레 '생생투데이'

부산색동어머니회 '친구야 미안해(아동극)'

화정종합사회복지관 '나는 내 나이가 좋다'

극단 금샘 '가시고기'

청소년극단 야호 '배낭을 멘 노인'

실버벨노인복지관 '쓰레기 세상만사'

한국연극영화아카데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백양로교회 'B사감과 러브레터'

을숙도 명품 콘서트

춘설

음악평론가 박진홍

봄에 내리는 눈처럼 차가운 봄비가 옷깃을 여미게 했던 지난 3월 13일 오후 8시, 을숙도문화회관에서는 '춘설(春雪)'이라는 제목으로 을숙도의 정례음악회인 명품 콘서트가 열렸다. 곳은 날씨와 을숙도문화회관의 접근성에도 불구하고 관객들이 객석을 가득 메운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을숙도문화회관이 지난 2011년부터 꾸준히 지역 주민들을 중심으로 관객을 유치하고 좋은 연주 프로그램을 개발해온 결실일 것이다.

그 동안 명품 콘서트는 지역적 특수성으로 인해 힘들었지만 수준 높은 음악 공연으로 보다 쉽게 지역 주민들에게 다가가기 위해 노력해 왔고,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지역의 음악가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오며 새로운 공연 문화의 트렌드를 만들어 왔다.

그 중 특징적인 것이 지역 작곡가들의 창작곡 초연을 프로그램의 첫 머리에 넣어 온 것이다. 스물여덟 번째 명품 콘서트에서는 현재 창원대학교 음악학과에 재직 중인 김인철 교수의 '십자가상의 철언'이 초연되었다. 이 작품은 오케스트라를 위한 표제음악으로 고난의 길을 걷는 예수의 모습과 그런 예수를 안타깝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슬픔과 무거운 마음과 그 눈빛이 보이는 듯한 작품이었다. 도입부에서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무거운 음색으로 그리고 있으며 작품이 흘러감에 따라 악기 편성의 확대, 다양한 형태의 리듬으로 발전하여 고난의 길 끝에서 밝은 빛으로 나아가는 모습을 떠오르게 했다. 다양한 화성의 변화를 추구하고 있지만 안정감 있는 흐름을 가진 작품이었다.

이어서 '17현 가야금과 관현악을 위한 새봄(황병기 작곡)'과 '성금련류 관현악을 위한 가야금 산조(김희조 작곡)'를 부산대학교 김남순 교수가 T.I.F 심포니오케스트라와 함께 연주하였다. '새봄'은 '고요한 아침' '평화롭

게 '신비롭게' '익살스럽게' '신명나게' 등의 다섯 개의 악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작품이다. 관현악과 가야금이 함께 연주하는 이 작품 중 가야금 부분만 발췌하여 연주하는 작품이 이번 연주의 제목으로 붙은 '춘설'이다. 단아한 자세와 손끝에서 묻어나는 관록의 깊은 맛이 느껴지는 연주였다. 듣는 이로 하여금 따뜻한 봄날을 기다리게 하듯, 때로는 성큼 다가온 봄을 손끝으로 만지려하는 그 설렘을 애써 외면하고 숨바꼭질을 하는 봄을 찾게 하며 듣는 이를 애달프게 하는 가야금의 연주가 대단히 인상적이었다.

'성금련류 관현악을 위한 가야금 산조'는 가야금 독주곡인 가야금 산조를 관현악 반주로 함께 연주하도록 재창작된 작품이다. 가야금 산조는 전통 국악으로 서양식의 조성을 갖고 있지 않지만 이 작품은 조성적인 관현악 반주를 넣어 처음 듣는 사람들도 비교적 가볍고 친근하게 감상을 할 수 있는 곡이다. 특히 산조의 특성상 느린 진양조에서부터 단모리에 이르는 7개의 부분 동안 발전해 가는 빠르기와 분위기는 갈수록 현란해지고 흥미진진해지는데 관현악이 첨가되어 감상의 묘미가 더욱 배가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가야금 산조를 통해 느낄 수 있는 가야금만의 짙은 농현과 질감, 그리고 화려한 음들의 향연을 선명하게 느껴 볼 수 없다는 점이 약간의 아쉬움으로 남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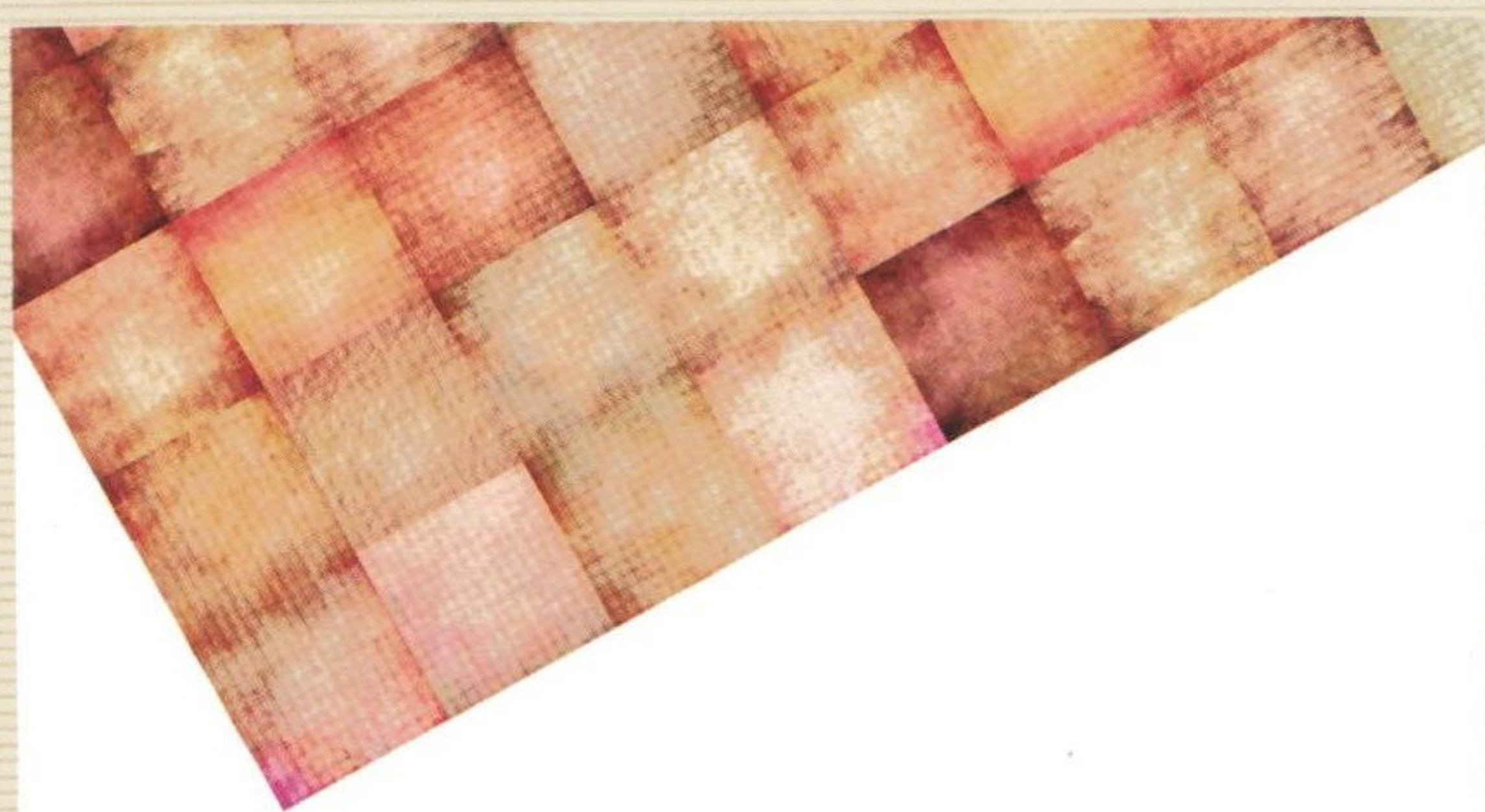
후반부에는 베토벤, 드보르작, 차이코프스키 교향곡에 이어 2014년의 레퍼토리로 선정된 슈만의 1번 교향곡 '봄(Spring)'을 이효상의 지휘로 T.I.F. 심포니오케스트라가 연주하였다. 음악가의 사랑 중 단연 으뜸으로 손꼽히는 슈만과 클라라의 사랑이 결실을 맺은 직후 작곡된 이 작품은 표제가 가지고 있는 계절적인 봄의 의미를 담고 있음과 동시에 슈만 자신의 인생의 봄을 노래한 것이기도 하다.

1악장에서는 트럼펫과 호른의 팡파르로 시작하여 악장 전반에 걸쳐 곡이 담고 있는 봄의 따스함과 경쾌함을 힘차고 선명하게 표현하였다. 2악장에서는 느린 템포와 부드러운 선율을 현악기와 관악기가 적절히 주고받으며 차분한 열정의 의미를 들려주었다. 3악장에서는 주제를 거칠게 연주하는 부분과 클라리넷의 부드러운 선율의 대비가 잘 이루어졌으며 3/4박자와 2/4박자의 변화 역시 역동적으로 표현되었다. 4악장에서는 이 악장을 표현하는 'Allegro animato e grazioso' 그대로 빠른 템포의 우아함과 생기를 전해 관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날 을숙도 문화회관 대공연장을 가득 메운 관객들의 마음에는 그렇게 지난 시간을 돌아보며 다가올 새봄을 기다리는 춘설이 살며시 내려앉았다.



Review



김상구 Kim, Sang-Ku 평면의 깊이

갤러리이름 3.7(금)~3.23(일)

서양화가 박미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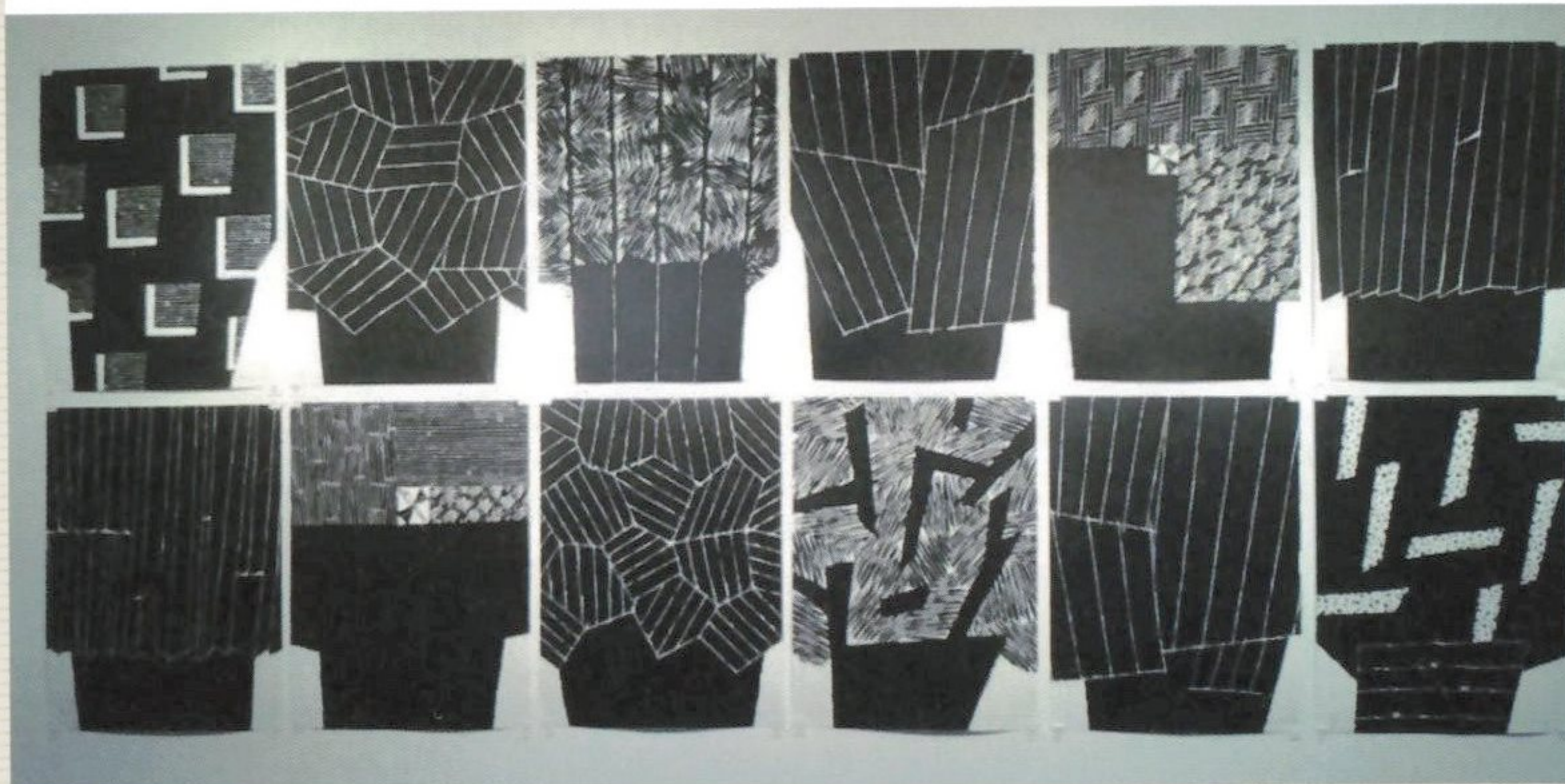
돈을새김 50여 년, 나무판만을 깎아온 목판화가 김상구 작가는 작품의 소재를 자연에서 가져온다. 새, 나무, 바다, 사람, 해, 달, 솟대, 목마, 꽃, 새, 배, 물고기 등 너무나 풍부한 소재들이다. 하지만 그는 그것들을 먹으로써 선과 형태들을 재구성하여 전원적이면서 도회적인 세련미가 흐르는 기호들로 변환시켜 간단명료한 대상의 진실만을 드러내게 한다.

목판화에서만 느낄 수 있는 칼끝의 새김은 둔탁하다가도 가늘고 섬세하게 선의 정수를 느끼게 한다. 우리나라 초기 목판화는 주로 불교경전의 삽화들로 불교가 국교였던 고려시대에 성행하였다. 조선시대에서는 국가의 통치이념에 따라 유교경전의 삽화나 윤리교육을 위한 서책으로 활성화되었다.

목판화가 책의 삽화에서 벗어나 미술양식으로서 예술가의 표현을 위한 예술적인 매체로 등장한 것은 '알브레히트 뒤러'에서 부터이다. 우리나라는 1930년대부터 작가의 주체성을 표현한 순수 예술작품으로 시작되었다. 이후 1960년대 발흥의 시기를 거쳐 1970년 이후 활발해졌다. 목판화는 힘과 도구를 사용해서 흔적을 남기는 직접적인 표현방식이지만 이를 다시 프린팅하는 과정을 거쳐야 이미지가 나오므로 간접적인 표현이기도 하다. 작업의 발상에서부터 고된 노동을 요하는 철저한 수공의 과정과 인내심을 요하는 프린팅 작업 등 완성된 작품이 나오기까지 끈기 있는 장인정신이 요구된다.

김상구의 목판화는 아이들도 쉽게 알 수 있다. 익히 알고 있는 소재들을 최소한의 형상들로서 음각의 곡선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색채 또한 대상을 잘 구별할 수 있도록 먹색을 주로 사용한다. 그의 예전 작품에서는 다색판도 있었으나 먹색이 오히려 작품을 더 강렬하게 나타내어 사람들의 시선을 머무르게 한다. 작가가 즐겨 사용하는 소재들은 그의 '기억' 속의 소재들이다. 그 소재들은 재현을 목적으로 한 사실성이 아닌 현대적이고 도회적인 조형미로 표현된다. 소재의 대상에 메이지 않을 때 표현은 더 자유로워진다.

작가가 가장 즐겨하는 소재는 나무다. 나무의 기둥은 단순함으로, 줄기는 공간의 변화로 삼았다. 고요한 것과 움직임, 머무름과 벗어남이 공존하고 그런 상태가 불규칙하게 반복되기도 한다. 화면의 동세에도 고즈넉한 정적이 흐른다. 마치 변주곡과도 같은 그의 작품은 정속에 동이 있고 동속에 정이 있다. 정중동은 그의 작품에서 조형성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래서 그의 작품은 쉽게 우리의 시선을 끌며 다가온다. 진한 먹색의 화면은 강렬하면서도 따뜻하게 느껴지고 선조들의 서예에서 느껴지는 먹의 향내가 그의 작품에서도 피어오르는 것 같다.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문화회관 기획전시
하나의 역사, 70억의 기억
라이프 사진전

일 시 | 1월 5일(일)-4월 12일(토) **대전시실**
입장료 | 일반·대학생 1만 2천원, 중고생 1만원
초등·유아 8천원
(만 4세 미만 무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매에 한해 2천원 할인)
※해설시간 오전 11:00, 오후 2:00, 5:00
문 의 | 디커뮤니케이션 612-6619

정점의 순간에서 전설이 된 20세기 최고의 사진잡지 '라이프(LIFE)', 그들이 선택한 위대한 기록을 전시로 만날 수 있는 라이프 사진전 '하나의 역사, 70억의 기억'.
1936년 사진으로 소통하는 저널을 표방하며 헨리 루스(Henry Luce)에 의해 탄생된 '라이프'는 최고의 사진작가로 평가 받는 알프레드 아이젠슈테트, 유진 스미스, 로버트 카파, 더글러스 던컨 등이 활동했으며, 주간 판매량이 1,300만부에 이를 만큼 절대적인 대중의 사랑을 받았다. 1972년 12월 29일 최종호를 발간하고 '그 해의 사진들'을 끝으로 폐간과 복간을 거듭하다 2007년 완전히 폐간된 라이프는 현재 인터넷을 통해 9백만건에 이르는 방대한 사진자료를 제공하며 전 세계 4천만명이 넘는 독자들을 거느리고 있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99회 정기연주회
바르톡의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일 시 | 4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 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
4월을 알리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제499회 정기연주회 바르톡의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격조있는 곡 해석과 풍부한 감성을 바탕으로 국내 및 국제관악계를 선구적으로 이끌고 있는 호른니스트 김영률이 오랜만에 부산을 찾는다.
김영률은 '신동아'에서 '2천년대로 달리는 한국의 예술가로 최다수 득표로 선정되었으며, 제31회 국제

호른협회(IHS)의 연례 심포지움에 독주자로, 제32회 국제호른협회 연례 심포지움에서는 그 해 최고의 호른연주자와 교육자에게 수여하는 Punto Award를 수상한 바 있다. 김영률은 현재 제주국제관악제 집행위원 및 제주국제관악콩쿠르 심사위원장, 김포 필하모닉, The Winds 예술감독, 국제호른협회(IHS)이사 및 서울대 음대 학장으로 재직하고 있다.

- 프로그램**
하이든/교향곡 제96번 '기적'
슈트라우스/호른 협주곡
바르톡/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 지휘/리 신차오
• 호른/김영률



사랑반올림 for you

일 시 | 4월 1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김정아 010-9334-6105
...

정상급 성악가들이 들려주는 사랑, 질투, 이별, 결혼에 관한 감동적인 하모니 사랑반올림 for you.
오페라 아리아를 스토리가 있는 에피소드로 구성된 이번 무대는 절친한 친구 승엽, 친구 두 사람이 '누가 먼저 결혼 승낙을 받아 내는가' 내기를 펼치며 스토리로 엮어낸 무대로 결혼을 앞둔 연애 1년차 진규와 은영, 연애 7년차 달살 커플인 승엽이와 정아의 사랑이 이야기가 오페라 아리아와 함께 울려 퍼진다.

- 프로그램**
You raise me up, 지금 이순간
Je veux vivre, Non ti scordar di me
All I ask of you, Because song
Habanera, La donna e mobile
O sole mio, Once upon a dream
Toreador song, La ci darem la mano
여자보다 귀한 것 없네, 축배의 노래
사랑은 영원하네, Nessun dorma
•출연/소프라노 김정아, 장은영, 윤지영
•테너/이철성, 장진규, 허동권, 양승엽
•바리톤/조현수
•피아노/정은정, 전은영 •플루트/이예빈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41회 정기연주회
모차르트 'Requiem'

일 시 | 4월 5일 토요일 오후 5:00 **대극장**
입장료 | 균일 1천원
문 의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607-3161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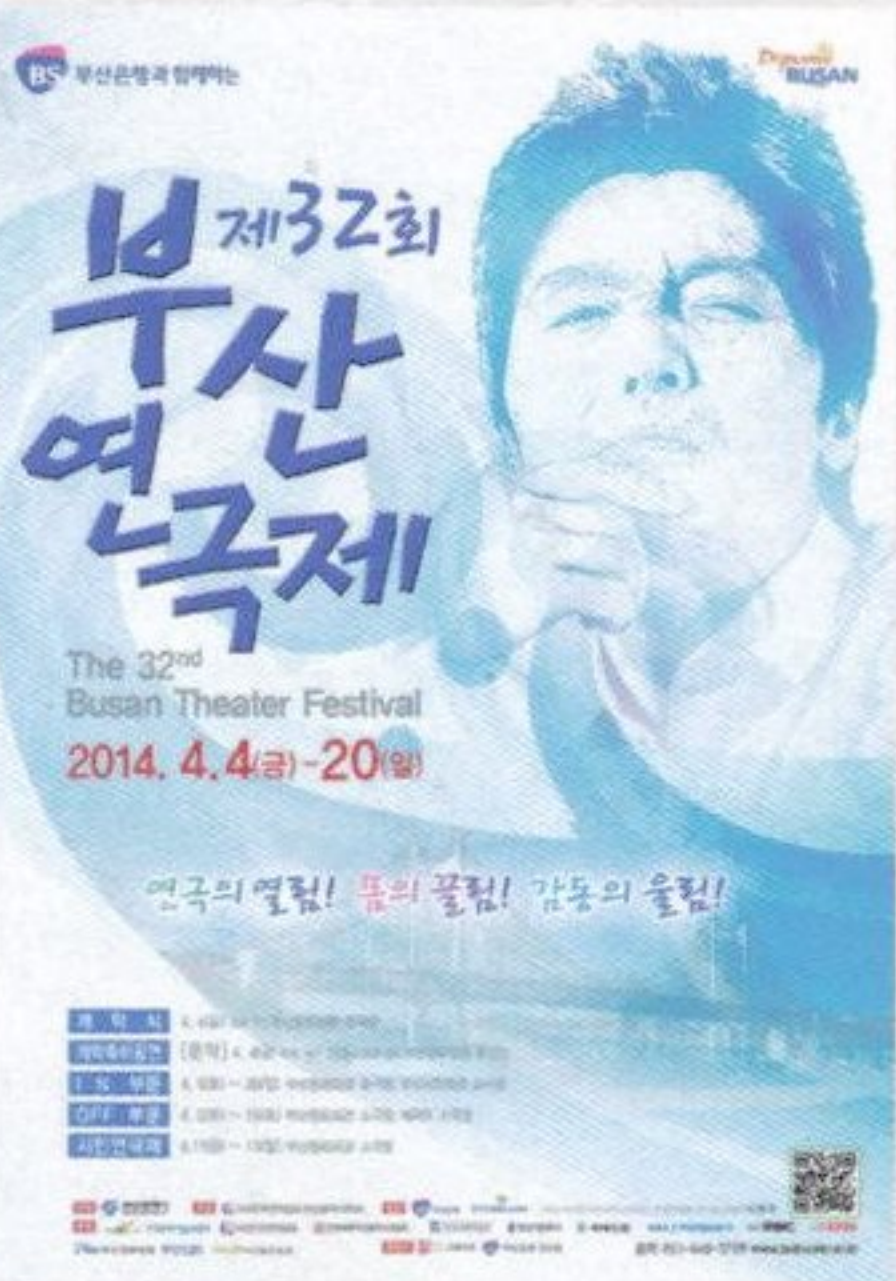


지난해 창단 40주년을 맞아 다양한 활동을 펼친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2014년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며 의욕적으로 준비한 2014년 첫 정기연주회 무대 모차르트 'Requiem'. 영화 '아마데우스'를 통해 알려지면서 대중들의 사랑을 받은 모차르트 '레퀴엠'은 '죽은 자를 위한 미사곡' 혹은 '진혼곡'이라 불리는 모차르트의 유작이다.

- 지휘/전상철(수석지휘자)
- 반주/이영옥
- 지도/노금선(안무), 김양재(합창)
- 특별출연/소프라노 김민지, 알토 장소영
테너 김경여, 베이스 양재원
- 연주/부산시립교향악단
- 합창/부산시립합창단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개막식 및 개막축하공연 부산연극제작소 동녘 **운악**

일 시 | 4월 4일-5일 **금요일** 오후 7:00
토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5천원(사전에매시 할인, 사랑티켓 적용)
문의 | 부산연극협회 645-3759
www.bstheater.or.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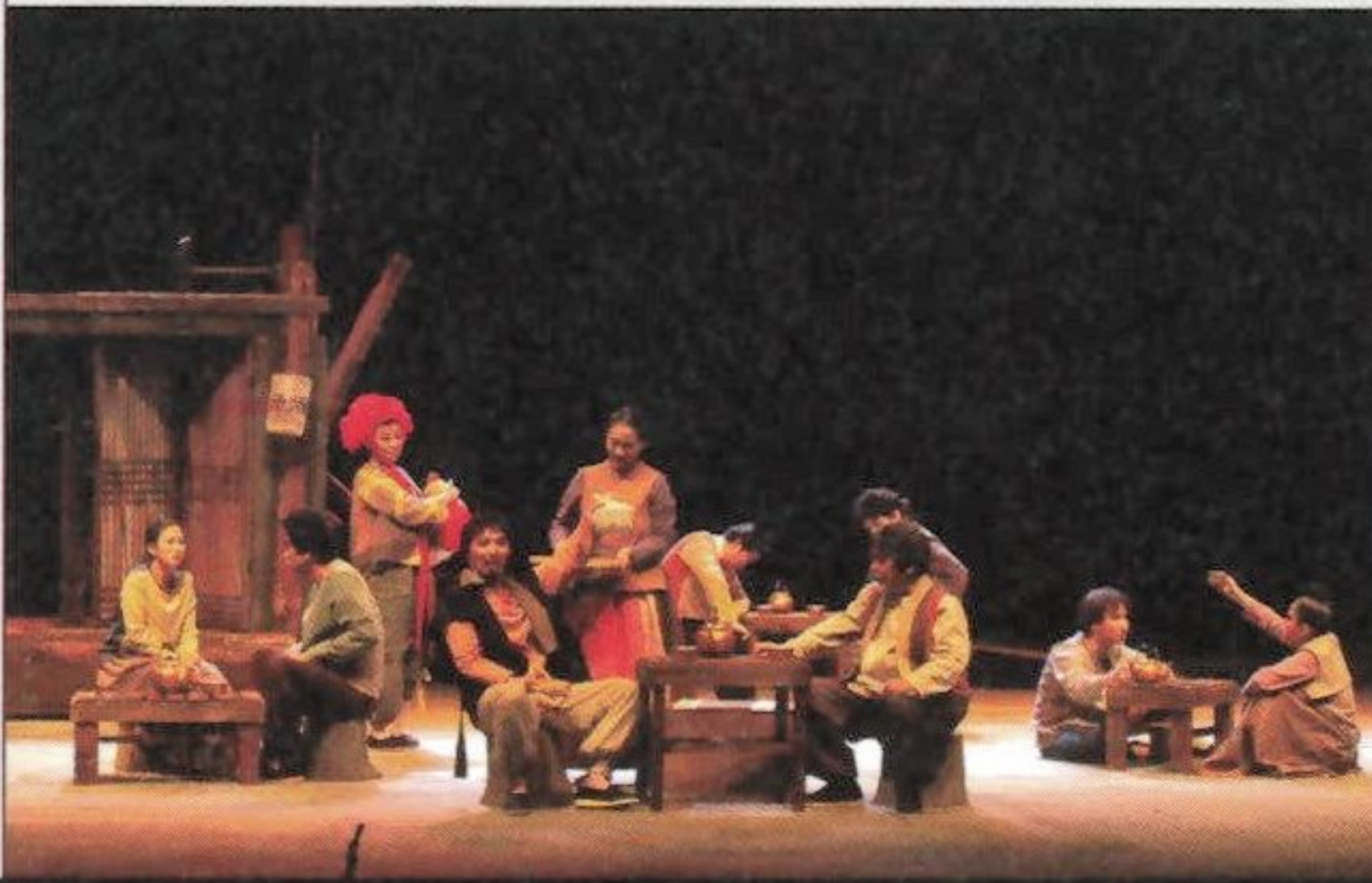


매년 봄 펼쳐지는 부산연극 최대 축제 부산연극제 2014년 무대. 올해로 32회째를 맞이한 부산연극제는 '연극의 열림! 몸의 끌림! 감동의 울림!'이라는 슬로건 아래 창작초연작 경연작들이 펼쳐지는 IN부

문, 소극장 연극의 활성화를 위한 OFF부문, 부산 시민이 만들어가는 '부산시민연극제'로 풍성한 무대가 마련된다. IN부문에서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한 극단은 올해 6월 14일부터 7월 3일까지 전북 군산에서 펼쳐지는 제32회 전국연극제에 부산을 대표해 참가한다.

부산연극제의 화려한 시작을 알리는 부산연극제작소 동녘의 축하공연 '운악'은 지난해 부산연극제 최우수상 수상에 이어 전국연극제에서 최우수작품상(대통령상) 및 연출상, 연기상, 무대예술상을 휩쓸어 부산연극의 저력과 우수성을 널리 알린 작품이다. 원작 '운수 좋은 날'을 각색, 원작의 10년 후의 이야기를 다룬 '운악'은 아버지 김침지에 대한 반감을 가진 '나'(개똥이)가 아버지의 과거(운수 좋은 날)를 좇으며 굴곡 많은 인생의 순간들과 만나게 되면서 동전의 양면과도 같은 삶의 순간, 현실적 인물인 '나(개똥이)'와 초월적 존재인 '팔자' '가면들' 그리고 과거의 인물 '아버지'(김침지)와 '어머니'에게 수많은 질문을 던지고 답을 구한다.

•작, 연출/양효운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OFF 부문 극단 도개비 **'모자여행'**

일 시 | 4월 5일-9일 **토-수요일** 평일 오후 7:30
토, 일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5천원(사전에매시 할인, 사랑티켓 적용)
문의 | 부산연극협회 645-3759

더 이상 어머니를 모실 여력이 없어 남은 여생이나마 서울아들들에게 병든 노모를 부탁하기 위해 여행길에 오른 팔순의 노모와 육순의 아들. 기차와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손자가 살고 있는 서울. 기쁜 맘에 큰소리로 이름을 불러보지만 도심의 인심은 사골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된다.

•작, 연출/김익현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IN 부문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비어짐을 담은 사발 하나

일 시 | 4월 7일-8일 **월-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5천원(사전에매시 할인, 사랑티켓 적용)
문의 | 부산연극협회 645-3759

조상 대대로 사기장의 핏줄을 이어받은 후에 연준은 모친 희수가 건넨 작은 함을 통해 그 속에 녹아있는 영과 웅의 사랑과 한의 이야기를 만나게 된다.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해 웅은 결혼하는 날 일본으로 끌려가는 아픔을 맞는다. 멀리 떨어져 있으면서 서로가 만들고자 했던 도자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며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한 영과 웅의 사랑과 깊은 한이 흥미롭게 전개된다.

•작, 연출/최은영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IN 부문 극단 누리에 **'칼치'**

일 시 | 4월 10일-11일 **목-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5천원(사전에매시 할인, 사랑티켓 적용)
문의 | 부산연극협회 645-3759



바다 한가운데 떠있는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의 온갖 군상을 보여주는 극단 누리에의 경연작 '칼치'.

제6회 전국 창작희곡 공모전에서 대상을 수상한 '칼치'는 선상 난동이 일어나 침몰되어 인양작업을 기다리는 칼치잡이 어선 삼봉호의 기관장 명호의 진술을 토대로 선장의 독단적이고 폭력적인 만행이 밝혀지면서 그동안 선장의 부정이 드러나게 된다.

극단 누리에는 '칼치'를 통해 인물 하나하나가 그려내는 삶의 고단함과 치열한 선택의 고단함을 보여준다.

•작/유현규 •연출/강성우
•출연/이혁우, 이창환, 최성락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IN 부문 배우창고 **'가가가 오신다'**

일 시 | 4월 13일 **일요일** 오후 5:00
14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5천원(사전에매시 할인, 사랑티켓 적용)
문의 | 부산연극협회 645-3759

2014년 바람부는 봄날, 사랑도에 여행잡지 전문기자들이 방문을 한다. 갑자기 사랑도에 먹구름이 몰려오고 천둥과 함께 하늘이 번쩍인다. 이내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하고 기자는 연어 딸이 들고 있는 우산 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연극은 1980년 꽃피는 봄날로 되돌아가 사랑도에 각하님이 방문 한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각하의 방문을 준비하며 분주한 마을 사람들 속으로 물에서 시위를 벌이다 도망온 북어의 등장, 마을에는 비극이 시작된다.

•작, 연출/박훈영



프로그램
가이드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OFF 부문
극단 아프리카 몽 'Y(와이)'

일 시 | 4월 15일-19일 화-토요일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5:00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5천원(사전에매시
할인, 사랑티켓 적용)
문 의 | 부산연극협회 645-3759

...
컴컴한 새벽, 한 오피스텔. 만취된 상태의 남녀가 서로 한 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들어온다. 인사불성의 상태로 잠이 들었다 일어난 서현과 지용. 언제나 여자와의 하룻밤을 보내고 지갑을 털던 지용과 지용의 정체로 알게 된 서현을 둘러싸고 벌어지는 해프닝이 재미있게 전개된다.

• 작, 연출/임영석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IN 부문
극단 이그라 '들꽃소리'

일 시 | 4월 16일-17일 수-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5천원(사전에매시
할인, 사랑티켓 적용)
문 의 | 부산연극협회 645-3759



인간을 생체실험 대상으로 한 '마루타' 실험이 무자비하게 자행되었던 일본 육군 관동군 소속의 731부대를 배경으로 한 극단 이그라의 공연 참가작 '들꽃소리'.

홍주는 친구 경자와 함께 위안부로 강제 차출되고, 뮤지의 아이를 가진 경자는 태아를 꺼내 표본을 만드는 생체실험용 마루타로 보내지게 된다. 특별감옥에서 사금과 복수를 만나게 되지만 그들마저 곧 죽게 되고 또 다시 홍주가 마루타로 끌려 나간다. 731부대에 회의를 느끼고 있던 다케시는 형 뮤지의 죽음과 매번 자신 앞에서 끔찍한 일을 당하는 조선인 홍주에게 동정과 연민을 느끼게 된다.

• 작/채지하 • 연출/최성우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IN 부문
극단 몽키프로젝트 뮤지컬 '꽃동네'

일 시 | 4월 19일-20일 토-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5천원(사전에매시
할인, 사랑티켓 적용)
문 의 | 부산연극협회 645-3759

...
단 5가구만 오순도순 사는 꽃동네에 결혼 3년차 이태석 부부가 이사를 오면서 이야기는 시작된다. 이태석의 집들이 날 갑작스러운 비명소리와 함께 마을의 유일한 노처녀 김백조가 살해당한다. 서울에서 강형사가 찾아오고 용의자로는 산 속 김숙이 혼자 살며 밤마다 나타나 저주를 퍼붓는 일명 귀신 할망구와 귀신 할망구를 늘 감싸고 도는 고만석이 지목되지만 이태석이 내민 강형사 어머니의 일기장으로 인해 사건은 점점 미궁 속으로 빠져든다.

• 작, 연출/오리라



부산시민연극제

일 시 | 4월 11일-13일 금-일요일
오후 2:00, 3:00, 4: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부산연극협회 645-3759

...
부산시민이 만들어가는 열정 넘치는 부산연극축제 부산시민연극제. 출연자 뿐만 아니라 스태프(조명, 음향)도 시민 참가자들로 직접 구성, 30분 내외의 완성도 높은 작품을 선보인다.

참가단체

청소년 극단 허물라기 '방향하는 별들'
동구노인종합복지관 '옹고집전'
극단 몸투레 '생생투데이'
부산색동어머니회 '친구야 미안해(아동극)'
화정종합사회복지관 '나는 내 나이가 좋다'
극단 금샘 '가시고기'
청소년극단 야호 '배낭을 맨 노인'
실버벨노인복지관 '쓰레기 세상만사'
한국연극영화아카데미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백양로교회 'B사감과 러브레터'

오리지널 첫 내한 공연 **뮤지컬 '맘마미아!'**

일 시 | 4월 18일-4월 27일 금-일요일 **대극장**
평일 오후 7:30, 토요일 오후 3:00, 7:30
일요일 오후 2:00, 6:30 (일요일 공연없음)
※ 23일 공연 전석 매진

입장료 | VIP석 15만원, R석 12만원
S석 9만원, A석 6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매에 한해 15% 할인)

문 의 | 예술기획 성우 1599-1980

...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고 있는 뮤지컬 '맘마미아!' 오리지널 팀 한국 최초 내한공연. 1999년 영국 웨스트엔드에서 탄생된 뮤지컬 '맘마미아!'는 세계적인 팝 그룹 아바(ABBA)의 히트곡 22곡을 엮은 주크박스 뮤지컬로, 2001년 미국 브로드웨이

이를 시작으로 독일, 프랑스 등 46개 나라 400개 주요도시로 퍼져나가며 5천 4백만명이 넘는 관객을 동원했고, 지금도 평균 1만 7천 명 이상의 관객이 매일 밤 '맘마미아!'를 관람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2004년 1월 25일 초연 이후 10여년 동안 뮤지컬 한국공연 역사상 최단기간 1,200회 공연, 150만 관객을 돌파하는 흥행기록을 세웠다.

이번 무대는 한국 초연공연 10주년을 맞아 영국 오리지널팀이 펼치는 첫 내한공연으로, 엄마와 딸의 가족애와 우정 그리고 로맨틱한 사랑을 그린 '맘마미아!'의 감동적인 스토리가 에너지 넘치는 웨스트엔드의 배우들과 만나 더욱 리얼하고 스펙터클하게 펼쳐진다. '댄싱퀸', '아이 해브 어 드림', '땡큐 포더 뮤직' 등 아바의 노래들을 본 느낌 그대로 들을 수 있다.



제38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Beethoven Symphony Series I YG(Young Generation) Concert

일 시 | 4월 21일 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학생 50% 할인)
문 의 |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621-4577
www.bso21.com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야심찬 기획으로 진행되는 젊은 세대 연주자와 지휘자 육성프로젝트 제38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Beethoven Symphony Series I'. 부산의 클래식 미래를 짊어지고 갈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의 젊은 세대들이 베토벤 교향곡 1번과 2번 전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 베토벤/에그몬트 서곡 작품 84
- 베토벤/교향곡 제1번 다장조 작품 21
- 베토벤/교향곡 제2번 라장조 작품 36
- 예술감독/오충근 • 지휘/김상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40회 청소년 협연의 밤 2014 꿈과 감성이 있는 젊은 음악회

일 시 | 4월 23일 수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607-3123

우리 음악을 이끌어갈 차세대 유망주들의 등용문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40회 청소년 협연의 밤.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유망주들이 김철호 수석지휘자가 지휘하는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과 협연한다.

프로그램

- 오혁/태평소, 피리 협주곡 '코사무이'
- 박대성류 아쟁산조 협주곡(편곡/강봉천)
- 김계옥/25현 가야금협주곡 '아랑의 꿈'
- 강봉천/거문고 협주곡 '우삭도'
- 이경섭/모듬북 협주곡 '타'
- 지휘/김철호(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수석지휘자)
- 협연/이서준(아쟁, 부산예고 3년), 김현경(거문고, 부산대학교 대학원 한국음악학과 2년, 창작국악단 젊은풍류 동인), 김태형(모듬북, 중앙대학교 전통예술학부 4년, 부산무형문화재 제6호 부산농악 전수자), 권아현(태평소, 피리, 부산대학교 한국음악학과 4년), 김윤미(가야금, 부산대학교 대학원 한국음악과 1년, 부산가야금연주단 단원)

강인경 귀국 피아노독주회

일 시 | 4월 23일 수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음악풍경 987-5005



부산예고, 동아대학교를 졸업하고 독일로 유학, 함부르크 시립음대 전문연주자과정, 실내악 전문연주자과정, 최고 전문연주자 과정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지난해 귀국한 부산출신의 피아니스트 강인경 귀국 독주회.

이탈리아 카타니아(Catania) 국제콩쿠르 및 잔루카(Gianluca) 콩쿠르에서 우수한 강인경은 독일유학 중 '클라비어 아벤트', 성 주교좌 대성당(St. Marien Dom) 연주회, 이탈리아 총영사관 초청연주회 등에서 독주 및 앙상블 연주로 빛나는 무대를 장식했다. 강인경은 서정적이고 낭만적인 피아니스트이자, 매우 섬세한 결을 소유한 연주자라는 평을 듣고 있다.

프로그램

- 바흐/프렐류드와 푸가, 제15번(BWV. 860)
-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26번
- 리스트/피아노 소나타(S. 178)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부산시민과 함께하는 2014 웰빙콘서트시리즈 '11시에 만나요! 오페라 하이라이트 II '팔리아치'

일 시 | 4월 25일 금요일 오전 11:0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부산시립교향악단 607-3111~3

저녁 시간의 공연장을 찾기 힘든 청중들을 위한 한낮의 음악선물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기획연주회 2014 웰빙콘서트시리즈 '11시에 만나요!' 오페라 하이라이트 두 번째 무대 '팔리아치'. 레온카발로의 출세작인 오페라 '팔리아치'는 험령한 흰 옷을 입은 하인역의 광대라는 뜻인 팔리아치오의 복수형으로 유랑극단의 패를 의미한다. 레온카발로의 어린 시절 기억에 남아 있는 실화에 기초한 이 작품은 유랑극단의 질투심 많은 남편이 아내를 죽인다는 비극적인 내용.

아리아 'Vesti la giubba(의상을 입어라)'는 사랑하는 사람의 부정을 알게 된 주인공이 분노와 울분을 주체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도 공연을 위해 웃어야만 하는 비극을 노래한 것으로 특히 유명하다. 1892년 밀라노에서 토스카니니의 지휘로 초연되었다.

- 지휘, 해설/이동신 • 연출/유철우
- 출연/테너 김지호, 바리톤 제상철, 소프라노 박현정, 바리톤 김경원, 테너 김정하



4인 연주회

일 시 | 4월 28일 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이미나 011-9332-5438

인터넷 카페에서 만나 음악적 공감대를 가져온 젊은 연주자 김슬아, 조미현, 이미나, 최가영으로 결성된 나린의 4인 음악회. 나린은 하늘에서 내린 인연을 뜻하는 의미로 붙여진 이름이다.

프로그램

- 바흐/반음계적 판타지와 푸가 리단조 BWV 903
- 모차르트/소나타 K. 280
- 베토벤/변주곡 작품 34
- 클라라 슈만/스케르쑈 제1번 작품 10 등 수곡
- 연주/김슬아, 조미현, 이미나, 최가영



제37회 부산연주가클럽 피아노페스티벌

일 시 | 4월 27일-28일 일-월요일
오후 7:30 소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박정난 010-4391-1106



1995년 부산음악계에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우수한 피아니스트들로 구성된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이 들려주는 제37회 피아노페스티벌.

첫째날은 하승경의 독주회로 고전에서 현대에 이르는 변주곡을 중심으로 뛰어난 기량과 성숙된 음악을 들려주고, 둘째날은 솔로와 듀오의 밤으로 조혜영, 박윤영, 송지은, 박선미의 독주무대, 박윤정/박영신, 신애정/이윤정의 듀오, 정광민/홍유리/성민주/이은정의 화려한 앙상블 무대가 펼쳐진다.

27일(일) 하승경 피아노 독주회

서울대학교와 미국 인디애나대학에서 음악수업을 한 하승경은 2004년 제3회 21세기를 이끌 우수인재로 선정되어 대통령장학금을 받은 바 있다. 2012년 귀국 후 부산피아노연주가클럽, 한국리스트협회, 부산피아노듀오협회 공연 등 다양한 무대활동을 펼치고 있다.

프로그램

하이든/소나타 마단조 Hob. XVI. 34
브람스/6개의 피아노 모음곡 작품118
무소르그스키/Desperate Measures 작품48 등 수곡

28일(월) 솔로와 듀오의 밤

피아노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솔로, 듀오, 앙상블 무대.

프로그램

리스트/메피스토 왈츠
쇼팽/스케르췌
생상/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스케르췌 작품 87 등 수곡
• 연주/조혜영, 박윤영, 송지은, 박선미, 박윤정, 박영신, 신애정, 이윤정, 정광민, 홍유리, 성민주, 이은정

이태리음악연구회 제38회 정기연주회 Festa di Primavera(봄의 향연)

일 시 | 4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정거화 010-8254-6178

이태리에서 공부한 부산의 성악가, 피아니스트들로 결성된 이태리음악연구회의 2014년 정기연주회. 오페라 '리골레토', '안드레 셰니에' 중 '조국의 적', '별은 빛나건만', 토스티의 가곡 '4월' 등 봄에 관한 아름다운 이태리 가곡과 사랑이 가득찬 오페라 아리아로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한다.

프로그램

베르디/오페라 '오델로' 중 'Credo in un Dio'
도니제티/오페라 '샤모니의 린다' 중 'o luce di questanima'
베르디/오페라 '시몬 보카네그라' 중 'Il lacerate spirito'
베르디/오페라 '리골레토' 중 'pari siamo' 등 수곡
• 출연/소프라노 박연경, 왕기현, 이지은, 김현주
메조소프라노 김수현
테너 한남식, 정거화, 김성배
바리톤 김길수, 채범석
베이스 김태형
• 피아노/안선애, 전은영, 정미선

부산시립합창단 제150회 정기연주회 합창으로 만나며, 마음으로 만나다 음악, 사람의 마음에 귀 기울이다

일 시 | 4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R석 1만원, S석 7천원, A석 5천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부산시립합창단 607-3141~2

2014년 시작과 함께 카르미나 부리나, 합창으로 맛보는 음식백화점 등 다양한 무대를 선사하고 있는 부산시립합창단의 새로운 무대 제150회 정기연주회 '음악, 사람의 마음에 귀 기울이다'.

혼돈과 갈등이 만연한 현실에서 많은 이들에게 음악으로 마음의 안식을 주기 위해 마련된 이번 무대는 가톨릭, 불교, 기독교 3대 종교의 합창음악을 한 무대에서 들려준다. '종교'라는 이름으로 각기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 있는 사람의 가장 나약하면서도 가장 강

한 신념을 조심스럽게 한 무대에서 노래하면서 '화합'의 이름으로 평화스러운 모습을 그려낸다. 가톨릭음악의 주제로 존 레빗의 페스티벌 미사를 시작으로 불교 종교음악 찬불가 범종(김효경 작사, 정부기 작곡), 마음은 두고(이정원 작사, 이순희 작곡), 다국적 기독교 음악이 무대에 오른다.

프로그램

가톨릭/Magnificat(Wolfram Buchenberg), 존레빗 '페스티벌 미사'
불교/범종(김효경 작사, 정부기 작곡, 최석태 편곡), 마음은 두고(이정원 작사, 이순희 작곡, 최석태 편곡), 經(경)(이영조 작곡)
기독교/목마른 사슴(최석태 작곡), 예수 아름다우신
• 지휘/오세중



토요상설무대

부산색소폰앙상블 연주회

일 시 | 4월 26일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 (선착순, 미취학 아동은 공연장에 입장할 수 없습니다.)

문의 | 부산문화회관 607-6056

Classic, Jazz, Pop, Latin, 대중가요 등 여러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정기연주회, 시민을 위한 기업사랑 연주회, 천마 재활원 등 관객의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무대를 열어온 부산색소폰앙상블의 연주회.

프로그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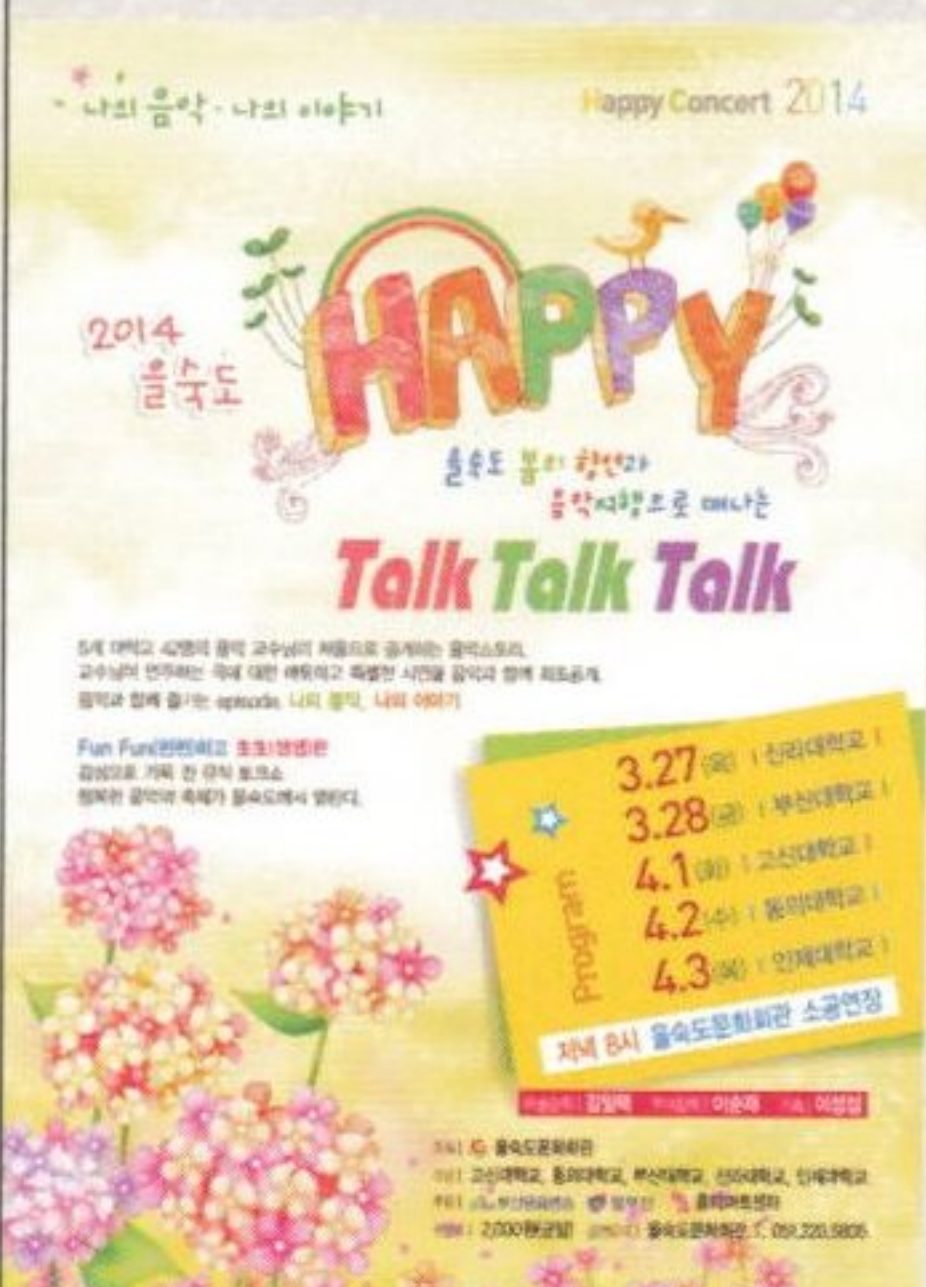
The Tempest(Robert W. Smith)
도레마송(영화 '사운드 오브 뮤직' OST)
I Will Follow Him(영화 '시스터액트' OST)
Spiritual Contrasts-(Harold L. Walters)
할아버지의 11개월, Sunny(영화 '써니 OST') 등
• 대표/박재열 • 리더/정흥기
• 단원/이지윤, 김정태, 김종국, 서진수, 김광윤



음악

2014 을숙도 Happy Concert Talk Talk Talk

일 시 | 3월 27일-28일 목-금요일
4월 1일-3일 화-목요일 오후 8:00
을숙도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5805



부산의 음악을 이끌어 가는 부산지역 5개 대학 음악학과 교수들이 참여하는 특별한 뮤직 토크쇼 2014 을숙도 해피콘서트 'Talk Talk Talk'. 음악학과 교수가 직접 밝히는 나의 음악 나의 이야기, 음악과 함께 즐기는 에피소드 등 연주곡에 담긴 저마다의 특별한 사연을 연주와 함께 재미있게 들려준다.

3월 27일 신라대학교

|프로그램|
이동준/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주제곡
뽕랑/피아노 소나타 제1번
김광민/학교가는 길
리스트/헝가리안 랩소디 제12번 등
•클래식 기타/고충진 •바이올린/조현미
•피아노/정진경, 이경옥, 예브게니 이조토프

3월 28일 부산대학교

|프로그램|
바흐/칸타타 제147번 '예수는 인류의 소망 기쁨되시니'
베토벤/피아노 소나타 제14번 올림다단조 작품 27-2 '월광'
브람스/헝가리안 댄스 중 제1번, 4번, 5번
•피아노/김진희, 김문주

4월 1일 고신대학교

|프로그램|
베르디/오페라 '일 트로바트레' 중 '저는 당신의 아들이 아십니까?'
드뷔시/모음곡 '베르가마스크' 제3번 '달빛'
훔멜/소나타 라장조 작품 50
모차르트/오페라 '마술피리' 중 '파파게노 파파게나'
카푸아/오 솔레미오 등 수곡
•테너/안민, 이홍길, 황성규, 우원석, 조동훈, 이승우, 조윤환

•바리톤/허종영 •베이스/김일석
•베이스, 바리톤/양재원
•소프라노/심진선, 박연경, 우선애
•메조소프라노/강희영 •플루트/정승찬
•피아노/김현경, 유영옥, 안선애

4월 2일 동의대학교

|프로그램|
베토벤/4중주
이흥렬/꽃구름 속에
푸치니/오페라 '잔니 스키키' 중 '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기녕/Song of songs 등
•바이올린/백재진 •비올라/김은진
•첼로/정준수
•피아노/하르트무트 자우어, 김성숙, 김소형, 박선혜, 최진현
•작곡/이기녕 •소프라노/최훈녀

4월 3일 인제대학교

|프로그램|
마스카니/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어머니도 아시다시피'
로저스/뮤지컬 '사운드 오브 뮤직' 모음곡
사라사테/찌고이네르바이젠
하이든/첼로협주곡 제1번 다장조
쇼팽/프렐류드 작품 28 등
•소프라노/허미경 교수 •플루트/오신정
•첼로/양욱진 •피아노/노경원
•피아노/이소영, 박민선 •해설/오세일

국립부산국악원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일 시 | 매주 화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8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국립부산국악원이 전통예술 계승과 국악저변 확대를 위해 매주 화요일 마련해온 화요공감무대 '예인과 함께하는 우리문화'. 올해는 신진 예술인 무대와 더불어 매월 첫 공연에는 명인, 명무를 소개하는 원로 예술인 초청공연이 펼쳐진다.

1일 원로예술인 초청공연 '유금선의 소리길'



'학을 춤추게 하는' 혹은 '춤을 부르는' 소리꾼으로 알려진 유금선 선생의 소리무대. 예향 동래의 마지막 기생으로, 15세부터 영호남의

다양한 악가무를 익힌 유금선 선생은 동래학춤의 반주음악인 구음으로 부산시무형문화재 제3호 동래학춤 보유자로 지정되기도 했다. 공연 중에는 대담형식으로 유금선 선생의 굴곡진 삶속에 더욱 빛나는 소리이야기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온천재건가, 동래한량춤, 단가 '관동별곡', 동래학춤, 육자배기
•특별출연/김진홍(부산시무형문화재 제14호 동래한량춤 보유자)
•반주/동래학춤보존회원
•사회/조태원(국립부산국악원 학예연구사)

8일 부산무용협회 부산무용단

부산무용의 발전과 창달을 도모하고, 무용을 통한 국제교류로 부산무용의 저력을 넓히고자 설립된 부산무용협회 부산무용단의 무대.
|프로그램|
태평무, 도살풀이춤, 산조(황무봉류), 설장구놀이, 한량무, 살풀이춤, 부산시민대동춤
•회장/서지영 •예술감독/정미숙
•사회/윤여숙
•춤/이도근, 양현숙, 이지은, 이승희, 임연금, 조황제, 장선희, 김경옥, 하선주, 황지인, 이현주, 허경미, 박광호, 신윤경, 강경희, 이연정 외

15일 하지희의 가야금 산조

한국예술종합학교 전통예술원(예술사 및 전문사)을 졸업하고 현재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단원으로 활

동중인 가야금연주자 하지희의 무대.

|프로그램|
최옥삼류 가야금산조, 육자배기
•연주/신문범(북), 한영길(대금), 김애리(아쟁)
•사회/정은경

22일 춤과 사람 '그 옛날 그 하늘빛'

부산대학교 무용학과 동문들로 결성된 후 전통춤의 맥을 이어오고 있는 '춤과 사람'의 무대.
|프로그램|
태평무, 살풀이춤, 산조춤, 교방검무, 지전춤, 소고춤
•사회/이경화
•춤/김갑용, 강미선, 이예주, 김경미, 최수연, 허경미, 이현주, 강수나, 이다경, 이현주

29일 박순호의 지구인

중요무형문화재 제11-가호 진주삼천포 12차농악 이수자, 중요무형문화재 제39호 처용무 이수자, 부산광역시지정무형문화재 제6호 부산농악 이수자, 울산시립무용단 상임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춤꾼 박순호의 무대.
|프로그램|
1부 색대폐문(塞兌閉門)/처용무, 캘리그라피 퍼포먼스, Amazing Grace, 도살풀이춤
2부 좌예해분(挫銳解紛)/노래곡 '후여어', 연주곡 '귀소', 남도육 현대무용, 선반설장구
3부 화광동진(和光同塵)/플라멩고, 취선악, 아리랑 판타지 콜라보

프로그램
가이드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일반 1만원, 학생 5천원
문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2~3

2일 The Pianoforte '봄의 향기, 피아노에 스며들다'

피아니스트 성민주와 이은정, 이해경, 홍유리 등 4인의 피아니스트가 들려주는 봄의 선율.

|프로그램|

미요/스카라무슈
피아졸라/그랜드탱고
E. 사브리예/에스파냐 등

9일 김혜미 플루트 독주회

연세대학교와 미국 신시내티 음악 Master과정을 전액장학생으로 졸업하고 Biwako 국제콩쿠르 2위, New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콩쿠르 입상, 음악저널 콩쿠르 대상 등 다수 콩쿠르에서 입상한 플루티스트 김혜미 독주회.

|프로그램|

타파넬/환타지
생상스/타란텔라
프고피에프/소나타 작품 94 등
• 클라리넷/이승권 • 피아노/이은정

16일 하은영 바이올린 독주회 '바이올린으로 들어보는 오페라 이야기'

러시아 차이코프스키 콘서바토리와 마스니토고르스크 글린카 콘서바토리를 졸업하고 현재 시립창원마산교향악단 단원으로 활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하은영 독주회. 오페라 테마 주제에 의한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 피아노/송영민 • 플루트/신주용

23일 칸타빌레 남성양상블 '성악가들의 뮤지컬 이야기'

1997년 12월 이탈리아, 독일, 오스트리아, 러시아 등의 국립대학에서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정상급 성악가들로 구성된 칸타빌레 남성양상블의 무대. 관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뮤지컬 넘버를 들려준다.

• 테너/이홍득, 이은민, 김화정, 양승엽
• 바리톤/김길수, 안상철
• 베이스/박기범, 이상철, 김정대
• 피아노/최영민

30일 문수경 바이올린 독주회 '아주 특별한 음악회'

창원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현재 창원시립교향악단 단원, 메소드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악장으로 활동중인 바이올리니스트 문수경 독주회.

• 특별출연/이민희(소프라노), 허태성(클라리넷)
• 피아노/박미은

風柳人-유재철 풍물이야기

일 시 | 4월 3일 목요일 오후 8: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의 | 류재철 010-2856-4434

전통풍물판의 대표적인 설장고놀음을 비롯해 고깔소고춤, 채상소고놀이 외에도 풍물과 소리, 성악, 팝핀으로 구성, 현대와 과거, 동양과 서양의 문화를 접목한 실험적인 창작품을 선보인다.

|프로그램|

지신소리, 설장고, 창작연희작품 '東西古今', 삼도고깔소고춤, 산조춤, 채상소고놀이
• 출연/장재희(상쇠), 권철호(징, 열두발), 설영성(장고), 우진수(북), 김현일(대금, 태평소), 김동현(설장고), 양일동(소리), 하연화(한국무용), 팝핀준호, 김수현(메조소프라노)
• 사회/김두진



해운대문화회관 천원의 행복 목요상설콘서트 '끌림'

일 시 | 매주 목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3일 안데스 음악과 악기 감상

페루, 에콰도르, 볼리비아, 칠레 등 남미 안데스지역의 다양한 전통음악을 만날 수 있는 무대. 엘콘드로파사(EI Condor Pasa, 페루), 산후아니토(Sanjuanito, 에콰도르), 띠구(Tinku, 볼리비아) 등 다양한 민속음악을 들려준다.

10일 해설이 있는 재미있는 클라리넷 앙상블

영화음악, 팝, 뉴에이지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메소드클라리넷앙상블의 연주로 만날 수 있는 무대.

17일 MBC솔로이스츠와 함께하는 봄의 세레나데

2010년 7월 창단 후 대구를 중심으로 클래식음악회를 통한 문화감성 개발에 앞장서온 MBC솔로이스츠와 함께하는 봄의 세레나데 무대.

24일 실내악 페스티벌

지난 2005년 창단한 부산 유일의 목관앙상블인 부산우드윈드앙상블의 무대. 부산우드윈드앙상블은 매년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 찾아가는 음악회 등을 통해 목관앙상블의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주고 있다.

스페이스 움 '차가 있는 음악회' 재즈보컬 이주미 with Friends in Cafe 'Um'

일 시 | 4월 3일(목) 오후 7:30
스페이스 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음료 포함)
문의 | 스페이스 움 557-3369

2011년 자라섬재즈콩쿠르 대상을 수상한 재즈보컬리스트 이주미와 뉴욕타임즈 빌리지보이스에 'Amazing Jazz Pianist'로 소개되며 재즈퀸텟 UOU의 피아니스트로 활동중인 요코 코모리, 최근 'THE SONG OF STRINGS' 음반을 발매하고 일본 전역에서 활동중인 베이스리스트 하지메 내와, 1980년부터 일본의 유명 재즈밴드와 활동중인 타케시 나카무라로 구성된 재즈 퀸텟 '재즈보컬 이주미 with Friends'의 무대.

스탠다드 재즈와 자작곡, 한국의 가곡 등을 다이나믹하면서도 서정적인 연주로 들려준다.



국립부산국악원 토요일신명무대 행복한 국악나무

일 시 | 매주 토요일 오후 3:00
국립부산국악원 예지당
입장료 | 균일 8천원
문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

전통예술에 대한 감수성 함양 및 국악 대중화를 목적으로 매주 토요일 마련해온 국립부산국악원의 대표 상설공연 '토요일신명무대' 4월공연.

올해 2014년에는 유네스코 지정 무형문화재, 성악, 민속춤, 민속악, 궁중 문화, 국악 관현악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마련된다.

5일 궁궐의 멋과 여유를 만나다-궁중 문화

낙양춘, 춘앵전과 무산향, 수룡음, 도드리, 향발무, 취태평지곡 '삼현도드리~군악'

12일 국립민속국악원 교류공연

19일 창작으로 미래의 전통을 만든다-창작음악과 춤 해금독주 '견명곡(김영재 곡)', 창작정가 '국화 옆에서(황병기 곡)', 판소리 '쑥대머리(오지홍 곡)', 거문고중주 '고구려의 여운(정대성 곡)', 삼고무 등

26일 국악관현악과 놀아보자-국악관현악

관현악 '하나되어(강준일 곡)', 거문고협주곡 '출강(김용실 곡, 김대성 편곡)', 대금협주곡 '대바람소리(이상규 곡)', 타악협주곡 '신모듬(박범훈 곡)' 등

사진이 있는 작은 음악회 필립 물러 첼로 독주회

일 시 | 4월 6일 일요일 오후 7:00
고은컨템포러리사진미술관
입장료 | 후원금 1만원(사전예약)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 010-4781-595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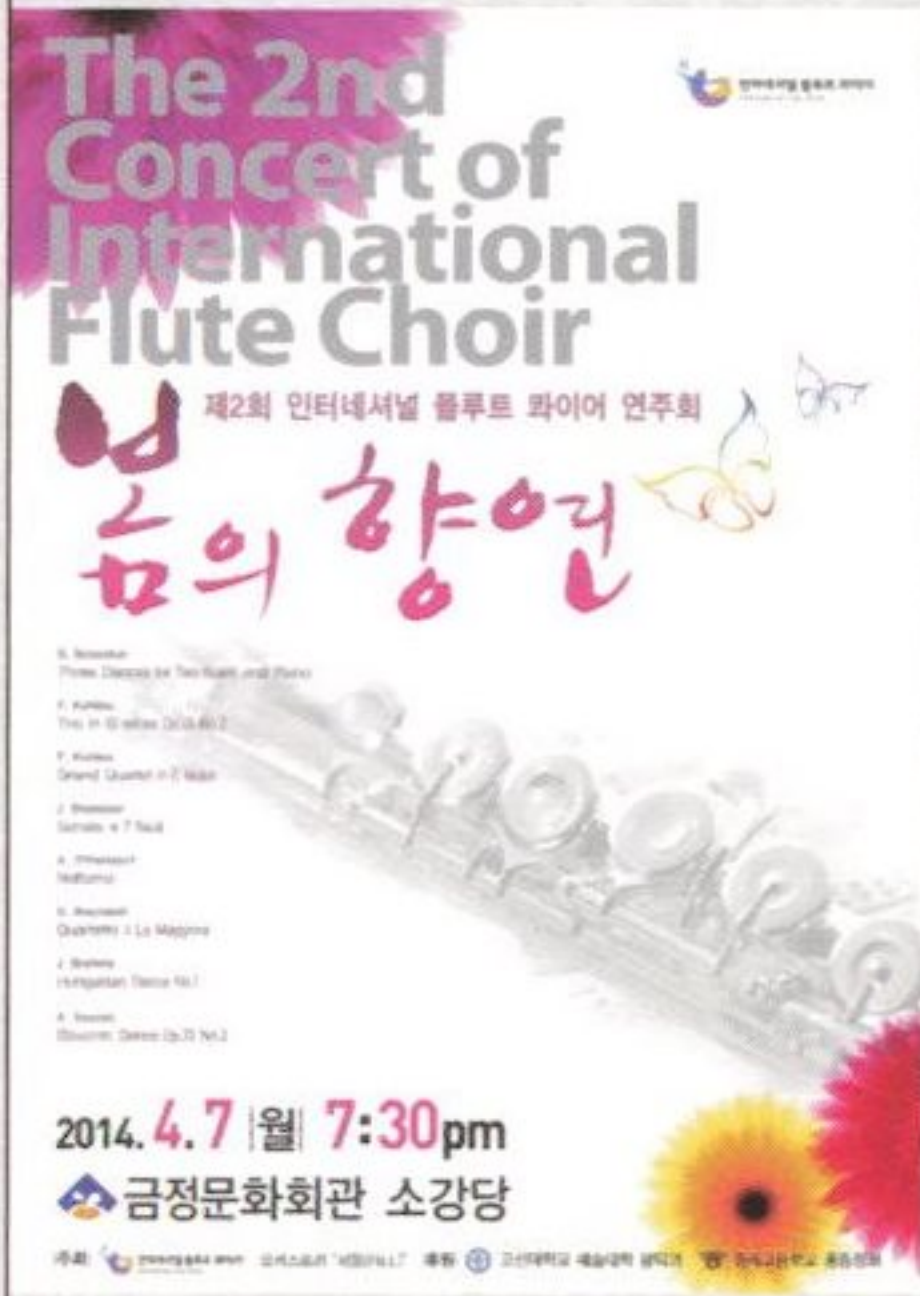
전 세계 젊은 첼리스트들의 멘토로 자리매김한 프랑스의 거장 필립 물러 첼로 독주회. 바로크 음악과 현대음악을 넘나드는 폭넓은 레퍼토리로 유럽과 아메리카, 아시아에 걸쳐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는 필립 물러는 1970년에는 바이올리니스트 장-자크 칸토로프, 피아니스트 자크 루비에와 함께 트리오를 결성해 활동하기도 했다. 1979년 프랑스 파리음악원 교수로 임명된 후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젊은 첼리스트들을 양성해온 필립 물러는 매년 세계적인 수준의 교육기관이 주최하는 마스터클래스에도 초청받고 있다.

프로그램

바흐/첼로조곡 라단조
뒤티외/첼로를 위한 3개의 노래

제2회 인터네셔널 플루트 콰이어 연주회 봄의 향연

일 시 | 4월 7일 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인터네셔널 플루트 콰이어 010-2557-664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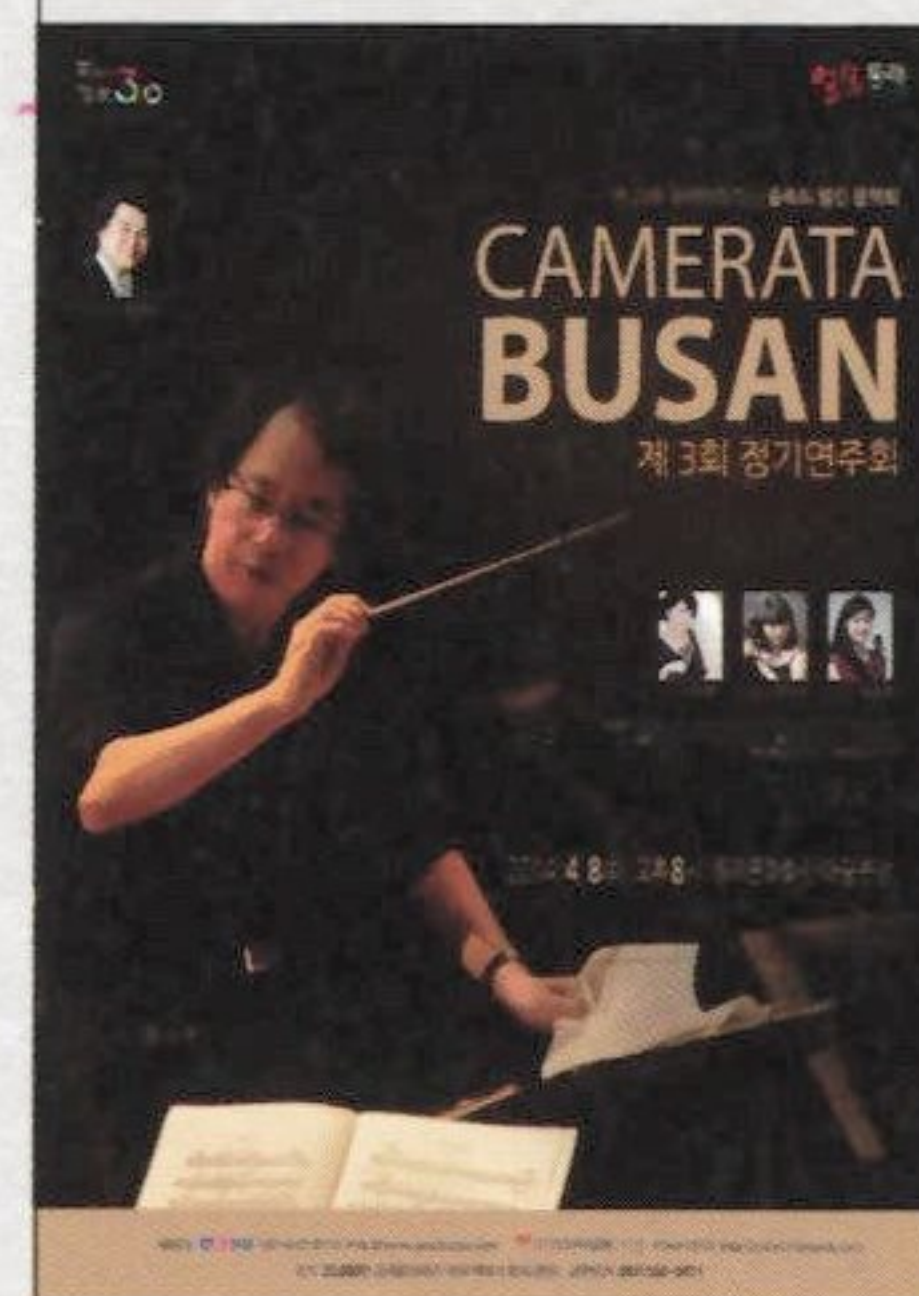
부산의 젊은 플루티스트들로 결성된 인터네셔널 플루트 콰이어의 두 번째 정기연주회. 참신하면서도 실험적인 연주로 관객에게 가깝게 다가가고 있는 인터네셔널 플루트 콰이어는 이번 무대에서 2중주, 3중주, 4중주, 합주 등 다양한 연주를 통해 새봄의 설렘에 어울리는 아름다운 선율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게리 쇼커/두대의 플루트와 피아노를 위한 3개의 무곡
쿨라우/트리오 사단조 작품 13 제2번
브람스/헝가리안 댄스 제1번
드보르작/슬라브무곡 작품 72 제2번 등
•음악감독/정승찬

제25회 숲속의 열린음악회 카메라타 부산 제3회 정기연주회

일 시 | 4월 8일 화요일 오후 8: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동래문화회관 550-6611



동래문화회관이 매월 둘째주 화요일에 마련하는 상설무대 '숲속의 열린음악회' 4월 무대. 현악연주팀 카메라타 부산이 따스한 봄기운에 어울리는 현악의 부드러운 선율의 세계로 안내한다. 지난 2012년 지휘자 윤상운과 악장 김희정을 비롯해 부산 출신의 젊은 연주자 20여 명으로 결성된 카메라타 부산은 바로크에서 현대에 이르는 다양한 작품들을 들려주고 있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디베르티멘토
비발디/두 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협주곡
그리그/두 개의 선율 작품 53번
•지휘/윤상운

영화의전당 마티네 콘서트 장일범의 영화 속의 음악시리즈 5 영화 속의 피아노 with 피아노 조재혁

일 시 | 4월 8일 화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해박한 지식과 재미있는 해설로 사랑받는 음악평론가 장일범과 함께 떠나는 영화 속 음악 여행 다섯 번째 무대로 KBS 클래식FM '장일범의 가정음악'의 인기 코너 '워드 피아노 with piano'의 파트너인 피아니스트 조재혁이 함께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영화 '쇼핑의 블루노트' '불멸의 연인' '피아니스트' '4분간' 등 그 어떤 대사와 장면보다 더 우리의 마음속에 깊고 오래도록 남아 있는 영화음악 이야기가 조재혁의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과 함께 펼쳐진다.

독일가곡연구회 제44회 정기연주회 독일의 봄 그리고 사랑

일 시 | 4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문 의 | 독일가곡연구회 010-2692-68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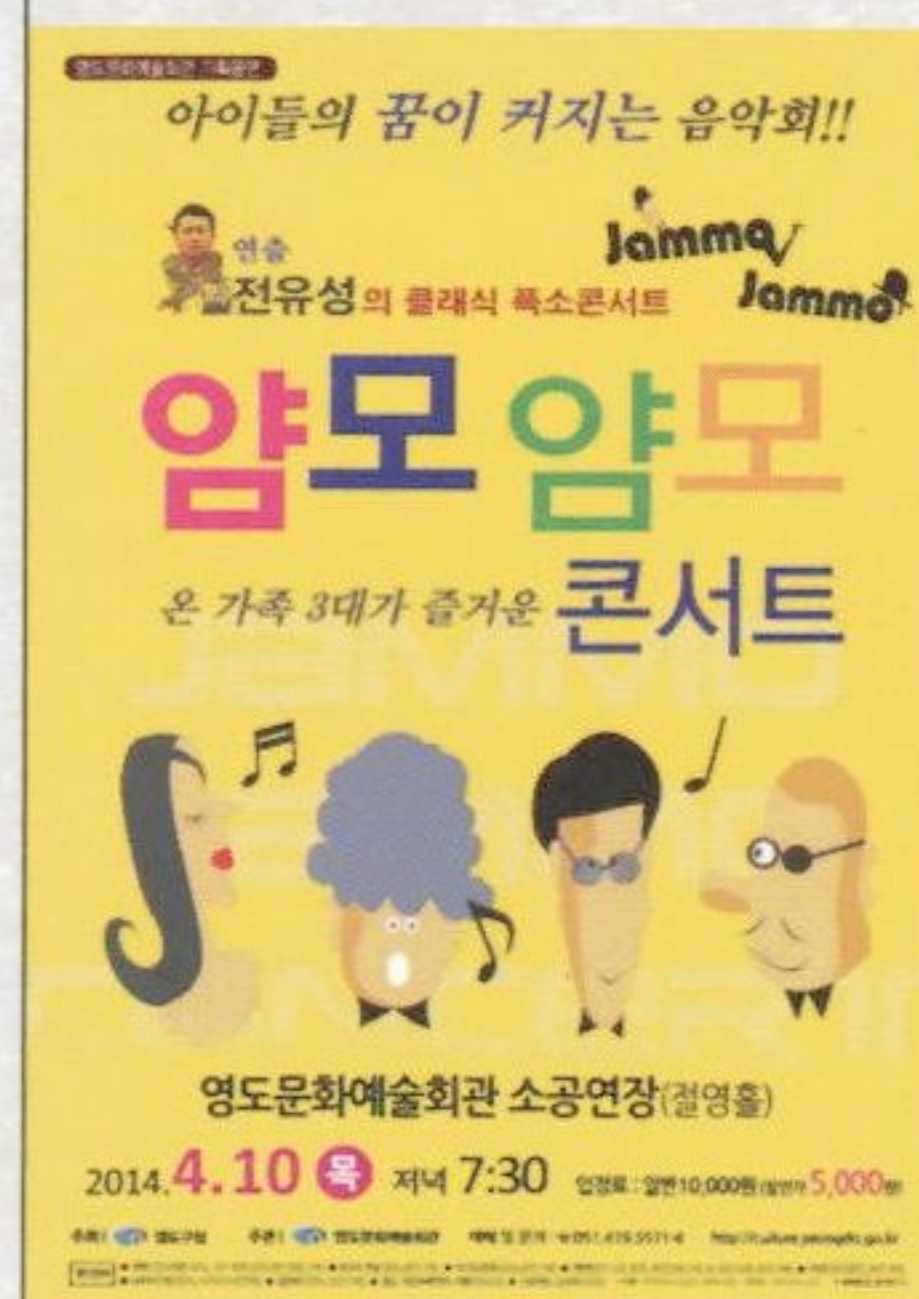


1987년 독일, 오스트리아 등 독일어권 국가에서 유학을 한 음악가들로 결성된 독일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매년 2회 이상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를 통해 독일가곡을 보급하고 마스터클래스를 개최, 후학 양성에도 힘써오고 있는 독일가곡연구회는 이번 무대에서 독일 낭만시대 작곡가들의 가곡을 들려준다.

•출연/소프라노 김현주, 김혜정, 윤선기, 장은영, 테너 김현식, 조윤환, 바리톤 장진웅, 베이스 김일석, 피아노 공소현, 김성희, 박미은, 박필은, 성민주, 이화영선, 정수연, 클라이버 임효진, 곽윤희

전유성의 클래식 폭소콘서트 암모암모 콘서트

일 시 | 4월 10일 목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절영홀
입장료 | 균일 1만원 (학생 30% 할인)
문 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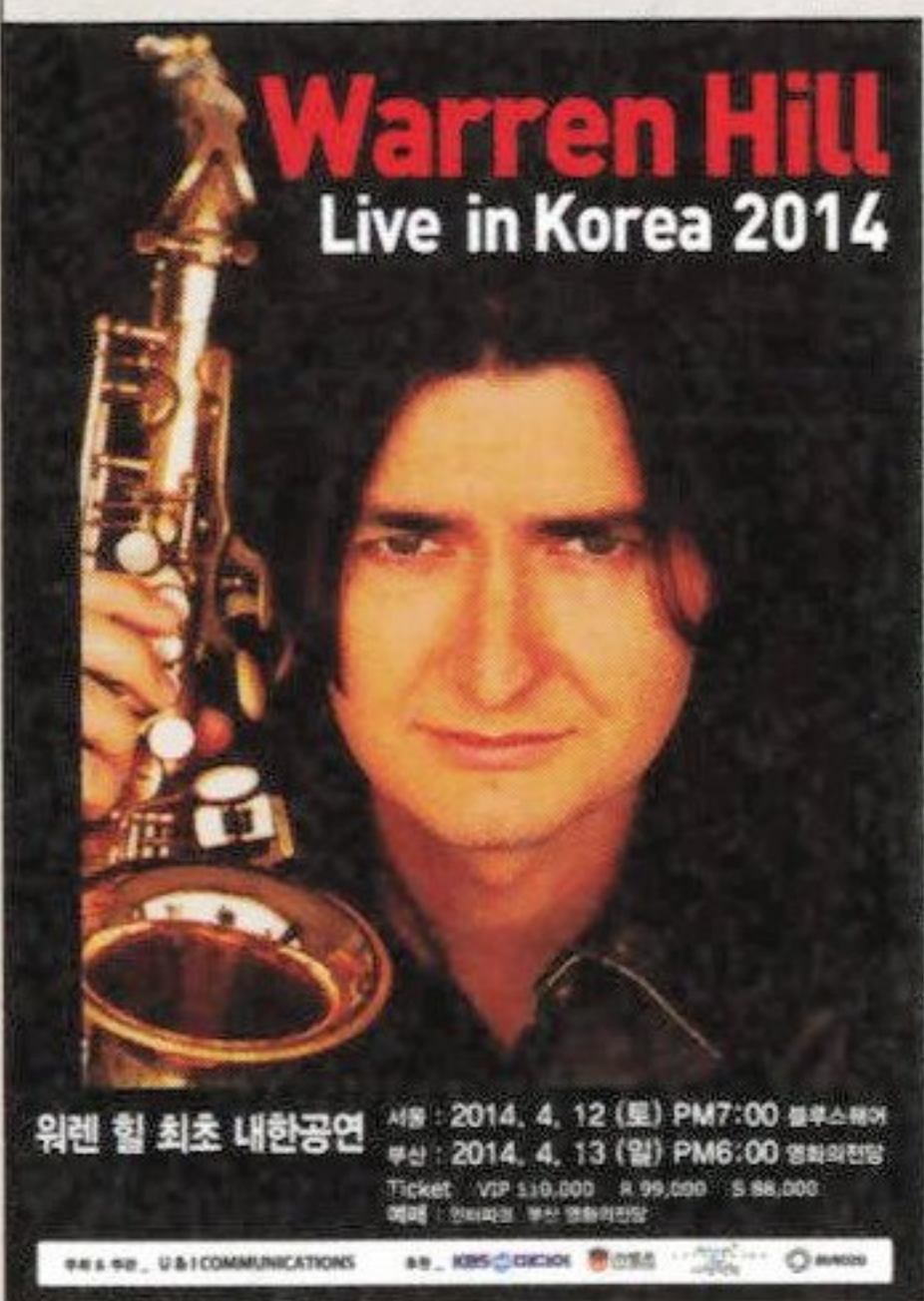
기존의 클래식음악회와는 차별화되는 재치와 재미가 묻어나는 웃음이 있는 클래식 무대 '암모암모 콘서트'. 개그맨 전유성이 연출을 맡아 클래식음악회의 성격을 유지하면서도 누구나 친근하게 다가갈 수 있는 대중적인 클래식음악회로 관객

들의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실력파 성악가들이 출연,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 가요, 영화음악 주제곡 등 다양한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총감독, 연출/전유성
•출연/테너 우원석, 이승우, 이홍길, 조동훈, 바리톤 고정현, 장진웅, 한정현, 소프라노 박양재, 정은미
•피아노/김예진, 하영화

프로그램
가이드

세계적인 Pop&Smooth Jazz
색소포니스트 워렌 힐 최초 내한공연
The First Live in Korea 2014

일 시 | 4월 13일 일요일 오후 6: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VIP석 11만원, R석 9만 9천원,
S석 8만 8천원
문 의 | 유앤아이 커뮤니케이션즈
02-517-2661, 010-2225-3471



대한민국 60만 색소폰 동호인들이 가장 닮고 싶어하는 색소포니스트 워렌 힐의 첫 번째 내한무대.

Adult Contemporary Pop, Smooth Jazz 장르의 대표적인 색소폰 연주자로, 자유분방한 연주와 고음에서 엄청난 파워와 역량을 보여주고 있는 워렌 힐은 이번 무대에서 그동안 발표했던 'Our First Dance' 'La Dolce Vita' 등 본인의 베스트 곡들과 지금의 워렌 힐 인기로 지대한 공헌을 한 'Hey Jude' 'Desperado' 'My Love' 등 우리에게 친숙한 팝음악 등을 들려준다.

**이자람 판소리 브레히트
'억척가' 앵콜공연**

일 시 | 4월 18일 금요일 오후 8:00
4월 19일 토요일 오후 5: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4만원, A석 3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2013년 영화의전당 공연을 통해 관객과 평단 모두를 사로잡았던 이자람의 판소리 '억척가' 앵콜무대.

브레히트의 희곡 '억척가'의 어머니와 그 자식들을 모티브로, 전쟁이라는 풍파에 시달리면서도 억척같이 살다간 한 여인의 기구한 인생을 판소리극으로 재창작한 '억척가'는 2011년 초연무대 후 프랑스 리옹 국립극장, 루마니아 인터피런스 국제연극페스티벌, 브라질 크리티바 연극페스티벌 등에서도 공연되어 호평받았다.

이번 무대에서 이자람은 직접 창작한 50여 곡이 넘는 판소리를 통해 혼자서 15명이 넘는 캐릭터를 자유자재로 연기하며 관객들을 웃고 울게 만든다.

메소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어린이 뮤지컬 동화나라 음악회 시리즈 I
브레멘 동물음악대

일 시 | 4월 15일(화), 17일(목), 22일(화)
오전 10:30, 오후 1:00, 2:30, 4:00
해운대문화회관
입장료 | 개인 1만원, 가족 1만 5천원(한글버전)
개인 1만 5천원, 가족 1만 8천원(영어버전)
※가족(부모 1인+어린이 1인)
문 의 | (사)메소드문화예술사업단 070-7787-3086



어린이들을 위한 시골 벽적 음악회를 시리즈화한 어린이 뮤지컬 동화나라 음악회 첫 번째 '브레멘 동물음악대'. 그림 형제의 원작을 바탕으로 재구성한 '브레멘 동물음악대'는 아름다운 소리를 찾아 떠나는 동물들의 이야기를 다양한 악기와 노래로 표현, 어린 관객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간다.

오전 10:30, 오후 1:00 공연은 한국어로, 오후 2:30, 4:00 공연은 영어로 진행된다.
• 총감독/손영채 • 연주/메소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

일 시 | 4월 19일 토요일 오후 5: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cafe.daum.net/musikbaum.bus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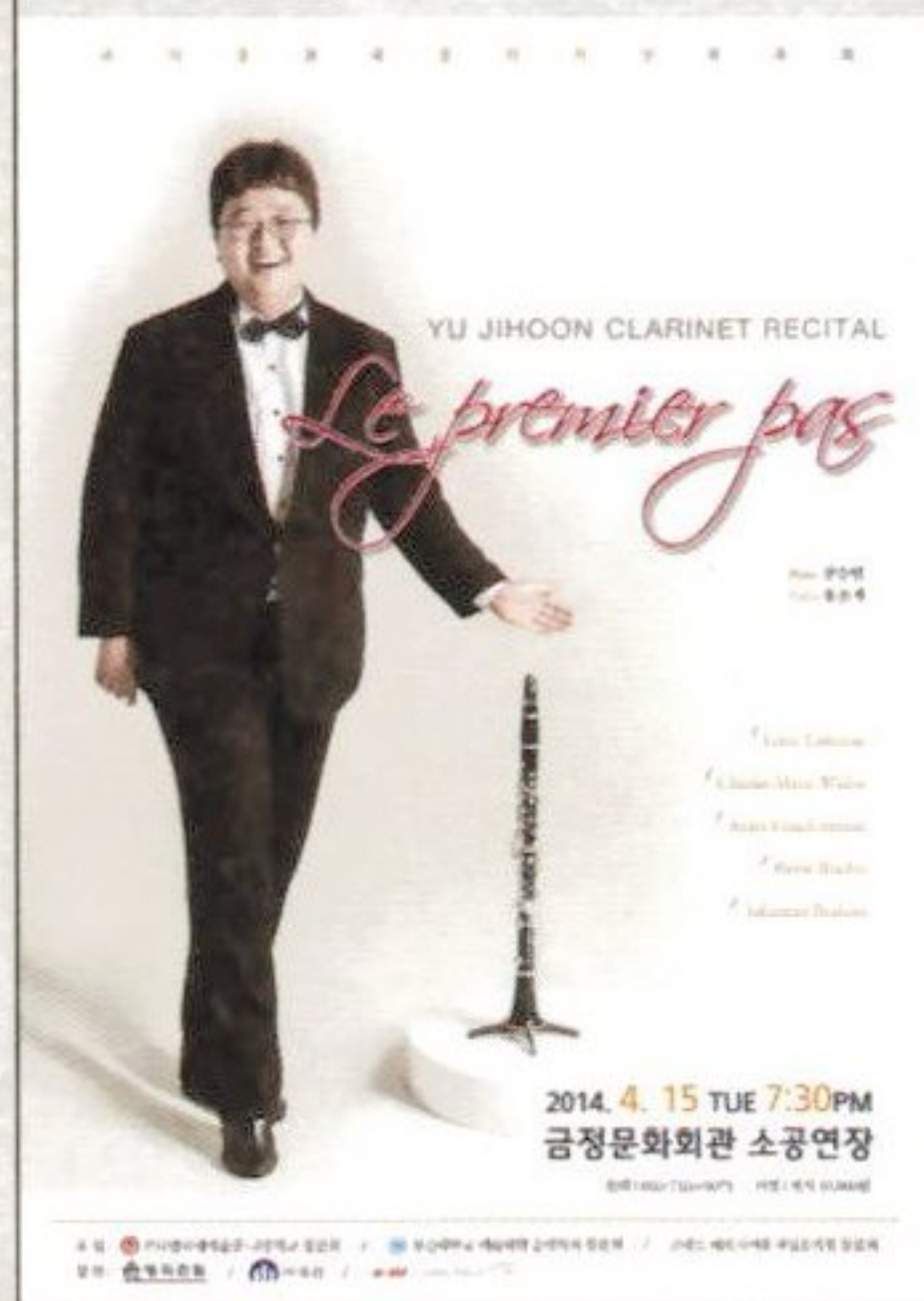
고전음악감상실인 무지크바움이 2013년부터 진행해오고 있는 살롱음악회 4월 무대. 무지크바움 살롱음악회는 그동안 실력있는 연주자들의 실연을 눈앞에서 감상할 수 있어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김채원, 허선옥, 비올리스 이현원, 첼리스트 장여정으로 구성된 브릿지 콰텟이 출연, 아름다운 선율의 현악4중주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베토벤/현악사중주 작품 18 제1번
모차르트/현악사중주 제17번 K.458

유지훈 클라리넷 귀국 독주회

일 시 | 4월 15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유지훈 010-7100-907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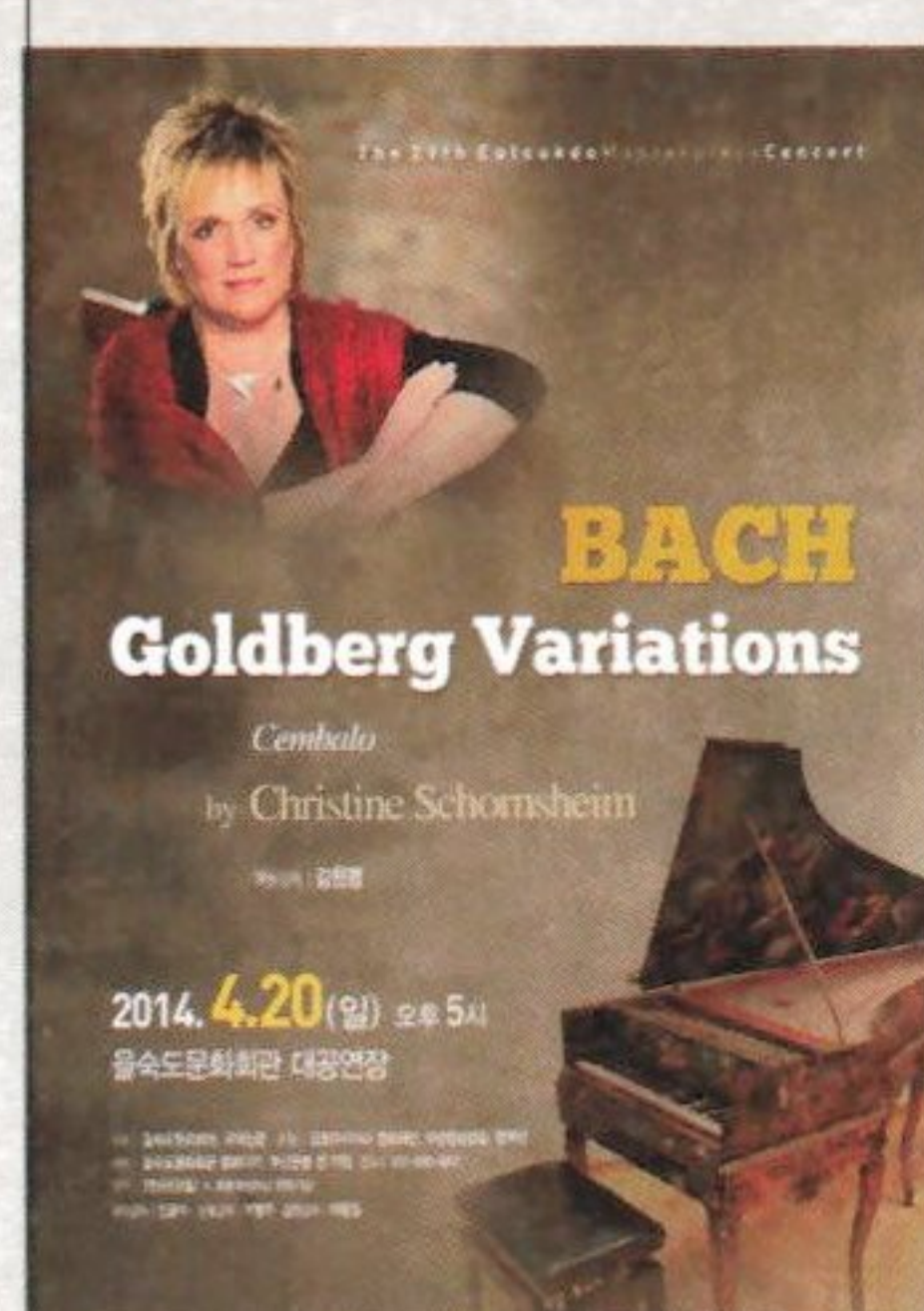


프랑스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섬세한 기교와 감각적인 음악성을 지닌 클라리네티스트 유지훈 귀국 독주회. 클라리넷의 풍부한 선율을 만끽할 수 있는 다양한 연주곡을 들려준다.

프로그램
루이스 카후자크/클라리넷과 피아노를 위한 Cantilene
찰스 마리 비도르/서주와 론도 작품 72
하차투리안/바이올린과 클라리넷, 피아노를 위한 트리오
브람스/소나타 제1번 작품 120 등
• 바이올린/홍은지
• 피아노/진승민

**제29회 을숙도명품콘서트
골드베르크 변주곡**

일 시 | 4월 20일 일요일 오후 5:0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2천원
문 의 | 을숙도문화회관 220-2812



국내의 유명 연주자와 지역의 실력파 연주자를 초청, 서부산권 시민들의 클래식 음악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주는 을숙도문화회관 명품콘서트 2014년 4월 무대.

현재 독일 뮌헨국립음대에서 하프시코드를 가르치고 있는, 바로크 전문가인 쳄발리스트 크리스티네 쇼른스하임이 바흐의 대표 독주곡이자 흔치 않은 변주곡인 '골드베르크 변주곡'을 들려준다.

원 제목이 '쳄발로를 위한 아리아와 여러 변주곡'인 '골드베르크 변주곡'은 당시 불명증에 시달리던 카이저링 백작을 위해 바흐가 작곡한 곡으로, 이번 무대에서는 평소 잘 접할 수 없었던 쳄발로 연주로 감상할 수 있다.

글로벌전국음악콩쿠르 최우수입상자 연주회

일 시 | 4월 20일 일요일 오후 5:00
글로벌아트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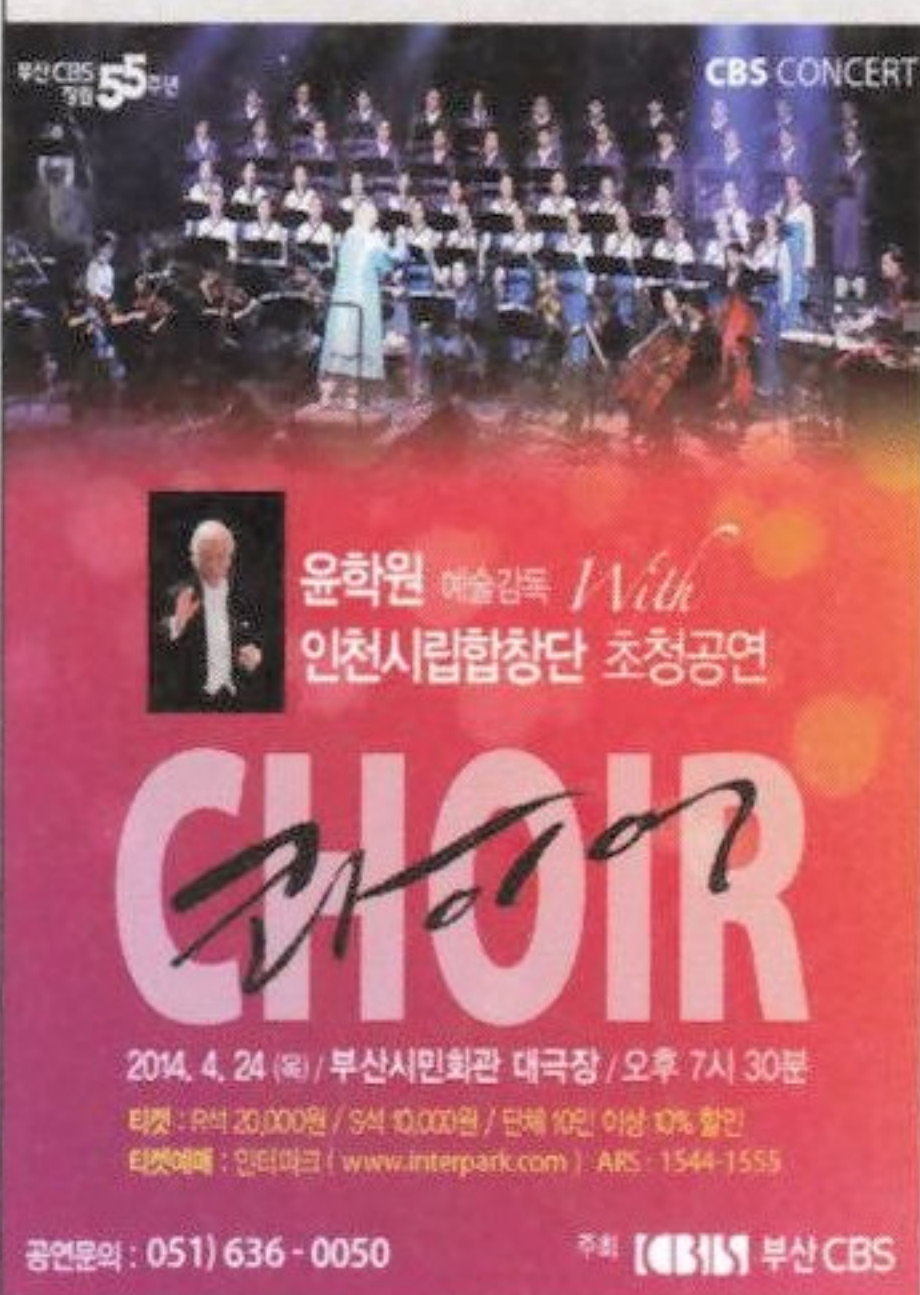
입장료 | 자율(글로벌콩쿠르 장학재단 기금 마련)
문의 | 글로벌아트홀 505-5995

국제 수준의 어쿠스틱 음향 연주홀, 녹음홀인 글로벌아트홀이 '미래의 거장'을 발굴하기 위해 마련하는 글로벌전국음악콩쿠르 최우수입상자 연주회. 차세대 연주자들의 등용문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는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노, 작곡, 국악, 현악, 관악, 성악, 중창, 실내악 등 각 부문에서 최고 득점으로 입상한 최우수입상자들의 축하무대가 마련된다.



부산CBS 창립 55주년 기념 윤학원 예술감독 with 인천시립합창단 초청공연 콰이어(CHOIR)

일 시 | 4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단체 10인 이상 10% 할인)
문의 | 부산CBS(636-0050)



현재 서울레이디스싱어즈 예술감독, 세계합창올림픽 심사위원, 인천시립합창단 예술감독 겸 상임지휘자로 활동하고 있는 세계적 명성의 합창지휘자 윤학원이 이끄는 인천시립합창단 초청무대. 지난 1981년 창단 후 1995년 재창단을 거쳐 지금까지 윤학원 예술감독에 의해 끊임없이 진화해온 인천시립합창단은 그동안 뛰어난 기획력과 수준높은 연주로 대한민국 최고의 합창단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정통 합창곡에서부터 성가곡, 대중가요까지 다채로운 레퍼토리를 들려준다.

이영주 바이올린 리사이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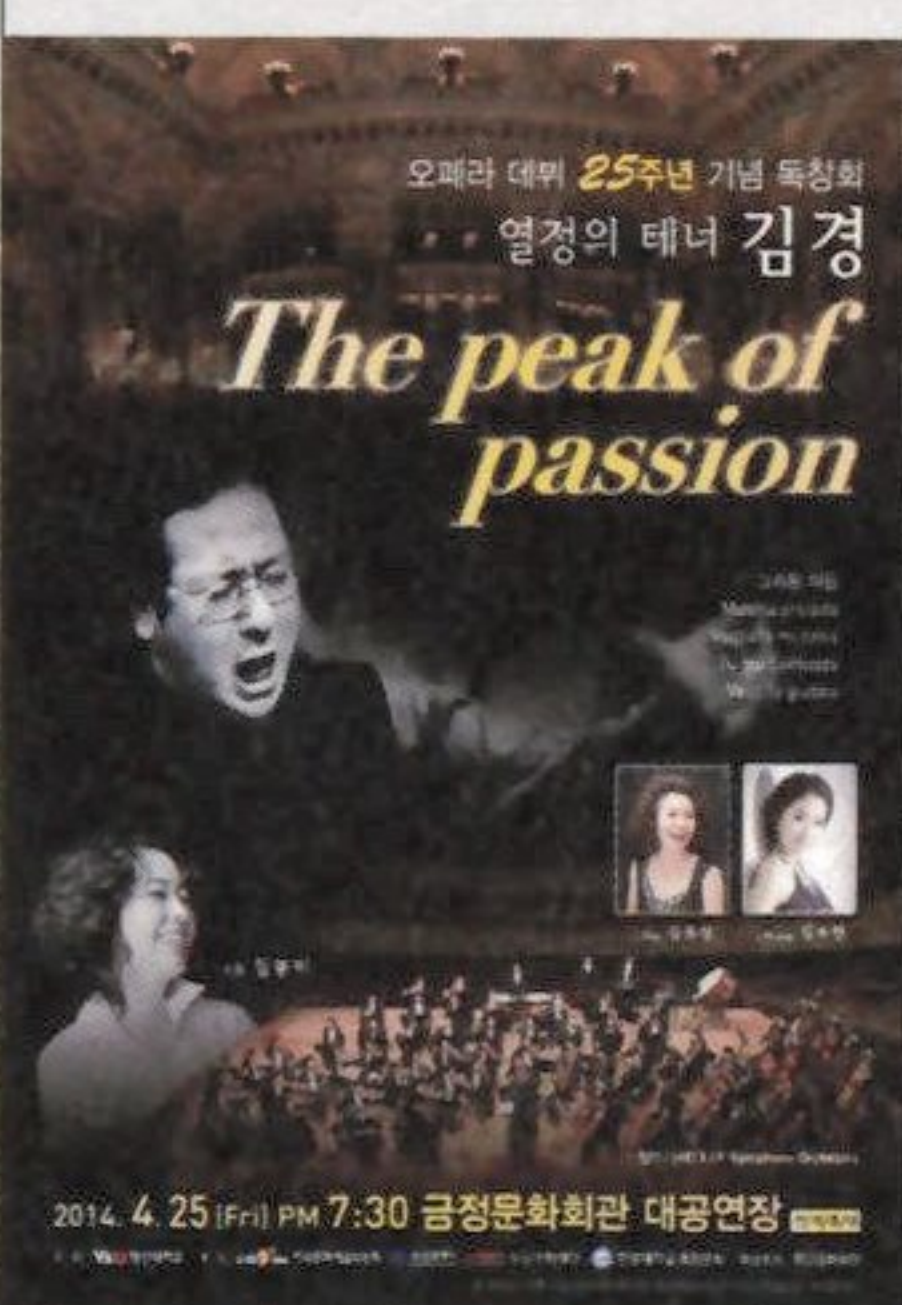
일 시 | 4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소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따뜻하고 지적인 감성의 바이올리니스트 이영주 독주회. 러시아 노보시비리스크 중앙음악학교와 차이코프스키 음악원(석박사)을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하고 현재 벨레타 현악4중주 단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영주는 지난 2011년 10월 귀국독주회 이후 다양한 무대에 서왔다.
|프로그램|
모차르트/바이올린 소나타 가장조 K.305
프로코피에프/Three pieces from the ballet 'Romeo and Juliet'
그리그/바이올린 소나타 다장조 작품 45
• 피아노/최영민



오페라 데뷔 25주년 기념 열정의 테너 김경 The peak of passion

일 시 | 4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초대
문의 | 김경 010-5567-2950



오페라 주역가수로 국내외 왕성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열정의 테너 김경의 오페라 데뷔 25주년 기념 무대. 한국을 대표하는 여성지휘자 김봉미가 지휘하는 (사)TIF심포니오케스트라의 연주, 부산을 대표하는 소프라노 김유섬, 메조소프라노 김수현의 협연으로 유명 가곡 및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프로그램|
김동환/그리운 마음
가스탈톤/금단의 노래
마스카네/오페라 '카발레리아 루스티카나' 중 '산뚜짜, 네가 여기에' 등 수곡

팍페라 휴와 함께하는 Hyum 콘서트

일 시 | 4월 22일 화요일 오후 4:00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소극장
입장료 | 사전 신청자에 한해 무료
문의 |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20, 8119, www.bacs.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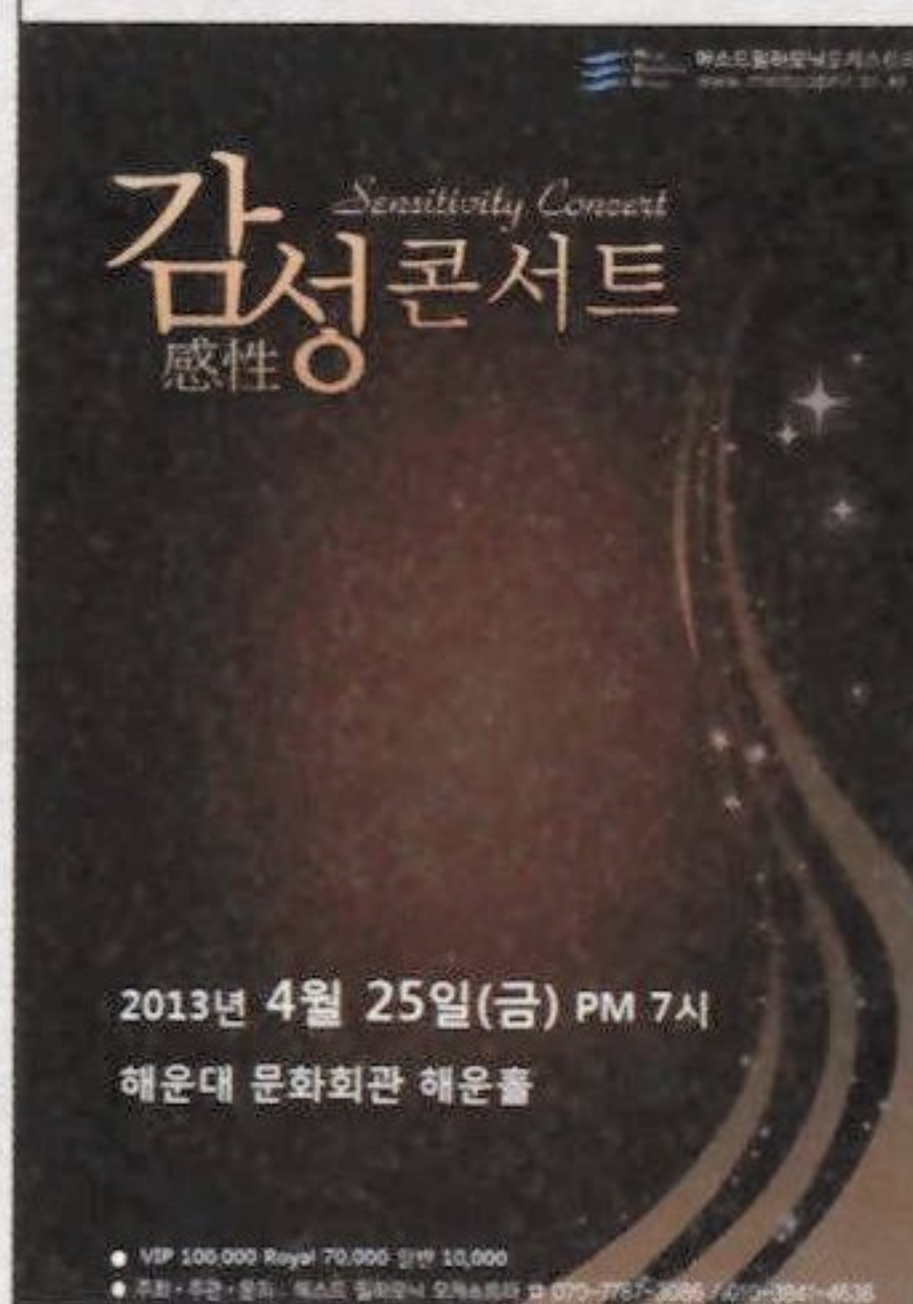


지난 2005년 소프라노 김지현과 테너 류무룡으로 결성된 한국 최초의 혼성 팍페라 듀엣 팍페라 휴 [Hue:] 초청무대. 파워풀하면서도 감미로운 크로스오버 음악으로 진한 감동과 사랑을 노래해온 '휴'는 '쉬, 안식'이라는 뜻을 지닌 '休'와 빛깔이라는 뜻을 가진 'HUE'를 접목시켜 만든 이름으로, '휴'만의 음악적 빛깔로 듣는 모든 이들에게 안식과 휴식을 주겠다는 의지가 담겨있다.

|프로그램|
영화 '태극기 휘날리며' 중 'Memorize', '천국보다 아름다운' 중 '회상', '파리벨리' 중 '울게하소서', 뮤지컬 '캣츠' 중 '메모리', '불의 검' 중 '그대가 살아주오', 팍페라 'Time To Say Goodbye' 등 수곡

메소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감성콘서트

일 시 | 4월 25일 금요일 오후 7: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VIP 10만원, R석 7만원, 일반 1만원
문의 | 메소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070-7787-3086



사랑, 행복, 이별, 그리움, 회상 등 감성적 코드로 대변되는 인생 이야기를 주제로 진행되는 메소드필하모닉오케스트라 감성콘서트. 클래식에서부터 오페라 아리아, 뮤지컬 넘버, 대중가요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그 곡의 작곡배경과 사연을 통해 소개한다.
• 총감독 및 지휘/손영채
• 출연/바리톤 김도형, 테너 양승엽, 소프라노 이민희, 소프라노 신은혜, 카운터테너 김반석, 가수 한가비, 바이올린 문수경

프로그램
가이드

부산카머심포니오케스트라 제22회 정기연주회

일 시 | 4월 26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부산카머심포니오케스트라
010-2552-7802, 010-8511-3768



지난 1992년 알로이시오 오케스트라를 정상급 오케스트라로 성장시킨 지휘자 안유경이 젊은 연주자들과 함께 창단한 부산카머심포니오케스트라는 평소 접하기 어려운 고전파 곡들과 합주곡을 주 레퍼토리로 관객들과 다양한 무대에서 만났다.

프로그램

엘가/현을 위한 세레나데 작품 20
비발디/사계 중 '봄'
바흐/피아노협주곡 제5번 마단조 BWV 1056 등
• 협연/아로스현악4중주단(바이올린 조영미, 바이올린 서은아, 비올라 이성호, 첼로 하경희), 유명욱(피아노), 조혜운(바이올린), 이경실(메조소프라노)

부산국악작곡가회 제13회 연주회 새로운 소리 여행

일 시 | 4월 30일 수요일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초대

문의 | 부산국악작곡가회 010-2448-0823

지난 2001년 3월 결성, 2002년 5월 창단연주회를 가진 후 그동안 창작국악의 활성화에 기여해온 부산국악작곡가회의 13번째 연주회. 2004년부터 시(詩)를 노래와 음악으로 형상화하는 작업을 통해 대중들과 소통해온 부산국악작곡가회는 2011년부터는 '새로운 소리 여행'이라는 타이틀로 창작음악의 지평을 넓히는 시도를 펼쳐오고 있다.

프로그램

조악래/카페에 남은 그림
백규진/美
이은경/연리목
황의중/사랑은 깊은 하늘, 내 구름 되거든 등



제76회 글로벌 행복음악회 주디스양상블 초청 소외된 이웃과 함께하는 음악회

일 시 | 4월 27일 일요일 오후 3:00

글로벌아트홀

입장료 | 자율(청소년 장학기금 마련)

문의 |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글로벌아트홀이 매월 마지막 주 일요일 마련하는 상설무대로, 그동안 지역민과 부산시민들의 문화 저변 확대를 위해 다양한 장르의 수준높은 공연을 무대에 올려왔다. 이번 4월 무대에서는 부산예술고등학교 동문인 바이올리니스트 나혜리, 첼리스트 황주혜, 피아니스트 송준섭, 박준형으로 결성된 주디스양상블을 초청, 멘델스존의 '피아노 트리오'를 비롯해 수준높은 양상블 무대를 선보인다. 주디스양상블은 그동안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관, 장애복지시설 등 소외된 우리 이웃을 위한 자선음악회를 가져왔다.



영화의전당 '문화가 있는 날' 허트리오와 함께하는 실내악여행 with 미샤 그로일

일 시 | 4월 30일 수요일 오후 8: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의 | (재)영화의전당 780-6000
www.dureraum.org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문화가 있는 날'을 맞아 영화의전당이 마련하는 '허트리오와 함께하는 실내악여행'. 국내외 활발한 연주활동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피아니스트 허승연, 바이올리니스트 허희정, 첼리스트 허윤정으로 구성된 '허트리오'와 현재 스위스 취리히 톤할레 오케스트라 호른 수석으로 활동중인 미샤 그로일의 호른 앙상블로 따뜻한 봄에 어울리는 목가적인 아름다움을 선사한다.



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일 시 | 4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R석 2만원, S석 1만원 (청소년 50% 할인)

문의 | 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440-3342

지난 2009년 7월 엄격한 오디션을 통해 선발된 최고의 기량을 갖춘 단원들로 창단한 후 도전의식과 실험정신으로 새로운 공연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온 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2013년에는 금정문화회관 상주단체로 지정되어 보다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들과 만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과 독일 하노버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일본 도쿄 필하모닉 수석으로 있는 바수니스트 최영진이 협연한다.

프로그램

차이코프스키/로미오와 줄리엣' 서곡
베버/바순협주곡 바장조 작품 75
차이코프스키/교향곡 제5번 마단조 작품 64
• 지휘/홍성택 • 협연/최영진(바순)



연극

연극 코미디 넘버원

일 시 | 2월 27일(목)-4월 27일(일)

화-금 오후 8:00, 토요일 오후 4:00, 7:00

일요일 오후 3:00, 5:30, 8: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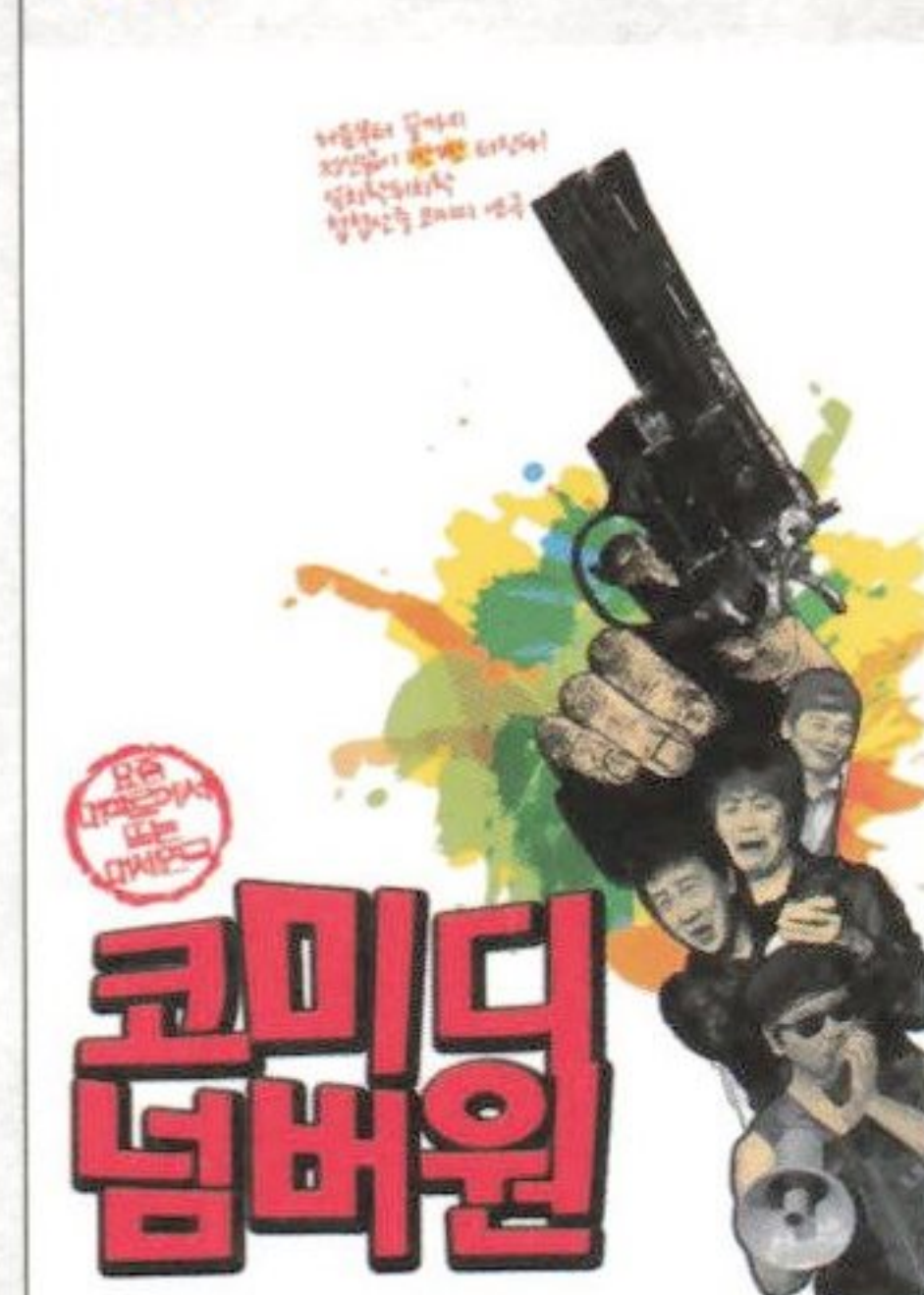
(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속도감 있는 극 전개와 독특한 무대장치, 끊이지 않는 배우들의 애드리브로 관객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하는 창작 코미디극 '코미디 넘버원'. 첫사랑 도희와의 핑크빛 데이트를 꿈꾸는 강력계 형사 기남과 옆집 사는 여인 이지, 두 사람을 의심하는 이지의 애인 춘배, 여기에 도희의 약혼자까지 서로 얽히면서 펼쳐지는 요절복통 사건이 관객들의 웃음을 자아낸다.

극단 사계 제74회 정기공연 뮤지컬 **사랑할까요?**

일 시 | 3월 1일(토)~4월 27일(일)
화-금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5:00
(월요일 공연없음) **공간소극장**
입장료 | 균일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공간소극장 611-8518

우정과 사랑 사이를 저울질하며 갈팡질팡하는 두 남녀의 이야기를 경쾌한 뮤지컬 음악과 함께 풀어낸 창작뮤지컬 '사랑할까요?'. 한 직장에서 평생을 같이 일하는 주인공들의 일상을 통해 화살처럼 지나가는 덧없는 시간과 어느새 추억이 되어버린 꿈과 희망, 그리고 인생의 쓴맛과 좌절을 담담하게 그려낸다.

- 작·연출/김만중
- 출연/강혜경, 박소민, 김정환



하늘바람소극장 개관기념 연극 **웨딩드레스**

일 시 | 3월 12일(수)~4월 12일(토)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4:00
하늘바람소극장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극단 아센 504-2544, www.acen.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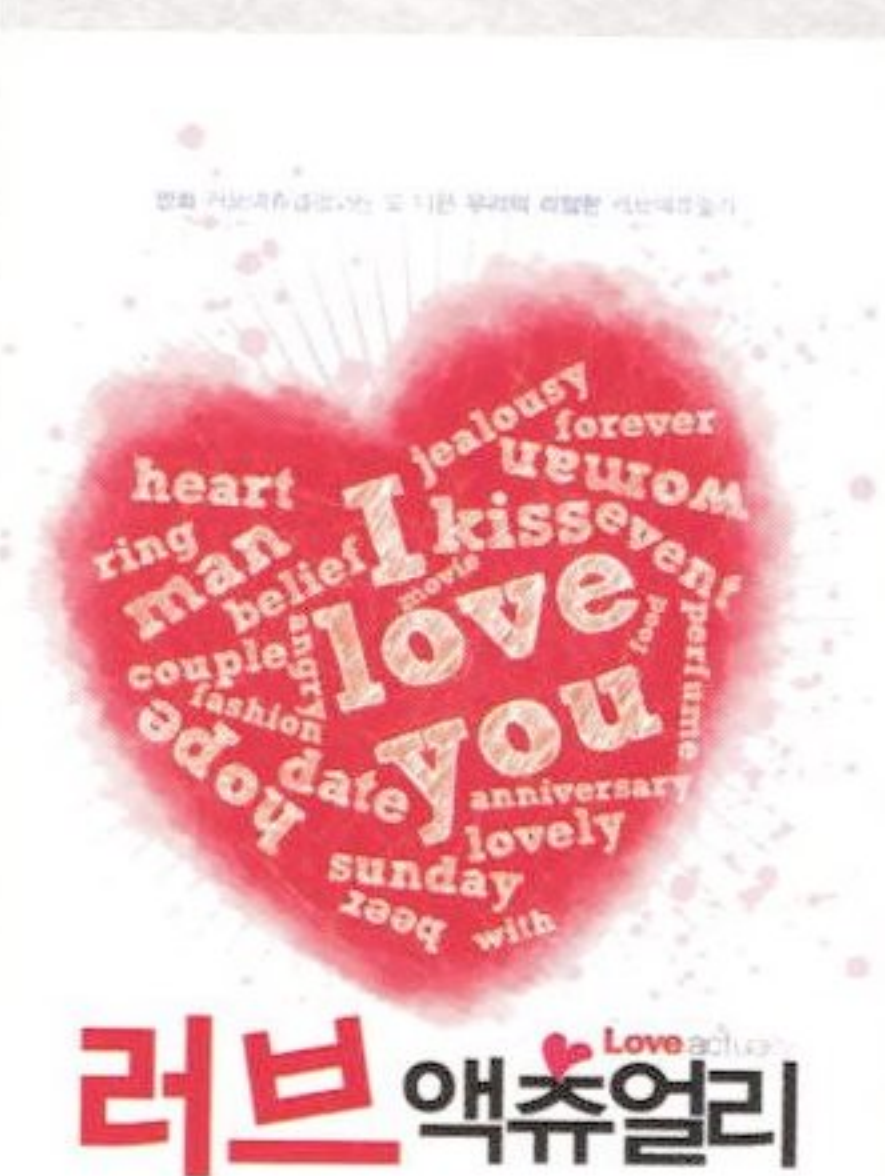
지난 7년간 보금자리였던 사직동 미리내소극장을 내 놓고 대연동 하늘바람소극장으로 터전을 옮긴 극단 아센의 개관기념작 '웨딩드레스'. 오래전 남편을 여의고 아들마저 미국으로 이민을 보낸 엄마와 마흔이 넘도록 대학 교수직을 얻는 데만 혈안이 되어 시집도 안가는 딸, 하루가 멀다하고 티격태격하지만 서로의 아픔을 이해하는 모녀를 통해 진정한 가족애를 그린 작품이다.

- 작/유진월 • 연출/호민
- 출연/구민주, 서주연



연극 **러브액츄얼리**

일 시 | 3월 14일(금)~6월 8일(일)
평일 오후 5:00, 7:30,
토요일 오후 3:00, 5:30, 8:00
일공휴일 오후 3:00, 6:00
(5/7일, 월요일 공연없음)
조은극장 스타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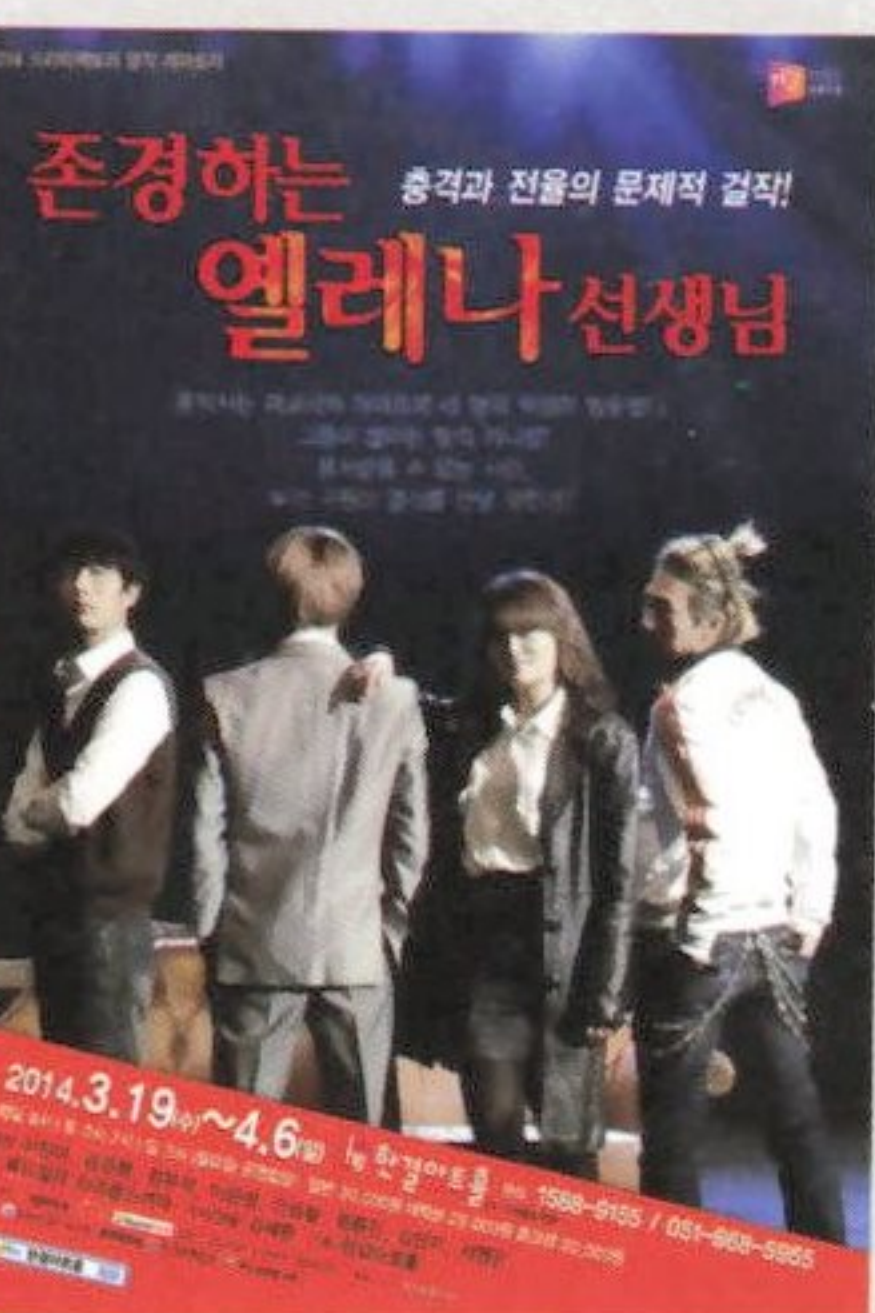


지난 1월 새롭게 문을 연 조은극장 스타홀 개관기념 특별공연 연극 '러브액츄얼리'. 사랑을 꿈꾸는, 사랑을 하고 있는, 사랑을 하고픈 모든 이들을 위한 연애지침서인 '러브액츄얼리'는 따끈따끈한 연애 100일 커플에서 슬슬 권태기에 접어드는 1,000일 커플, 연인이기 보다는 이제는 가족같은 10년 커플을 통해 만남의 기간에 따라 변하는 연 인간의 감정변화를 유쾌하게 보여준다.

- 각색/함승희
- 연출/이성호, 박광복

2014 드라마팩토리 명작 레퍼토리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

일 시 | 3월 19일(수)~4월 6일(일) 평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3:00, 7:00
일요일 오후 3:00 (월요일 공연없음)
한결아트홀
입장료 | 일반 3만원, 대학생 2만 5천원, 중고생 2만원
문 의 | 한결아트홀 1588-915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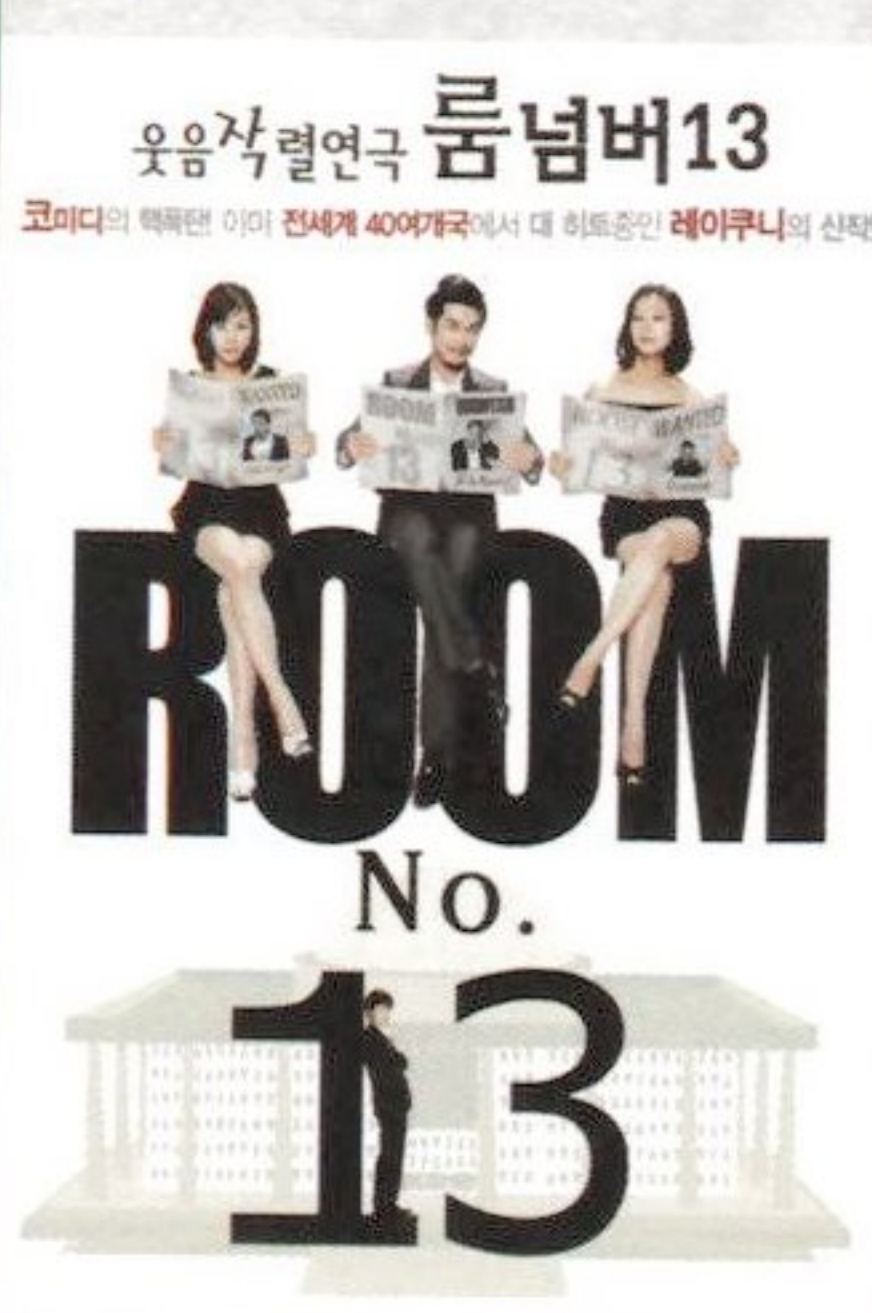


1980년대 창작 초연 후 전 유럽을 흥분시킨 충격과 전율의 문제적 걸작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 엘레나 선생님의 생일날, 졸업을 앞둔 학생들이 선생님의 집을 방문하면서 시작되는 '존경하는 엘레나 선생님'은 천박해진 자본주의 일상을 고발하는 촌철살인의 인문학적 상상력과 신구세대의 갈등을 통합하고 이상적인 비전을 마련할 수 있는 하나의 철학적 페러다임을 제시한다.

- 작/류드밀라 라즈몹스까야
- 각색, 연출/김세한
- 출연/이민아, 송준형, 정유석, 이은창, 안윤철, 정종진, 김민지, 서영은

연극 **룸번호 13**

일 시 | 3월 20일(목)~5월 18일(일)
평일 오후 8:00, 주말공휴일 오후 4:00,
7:00 (월요일 공연없음)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균일 3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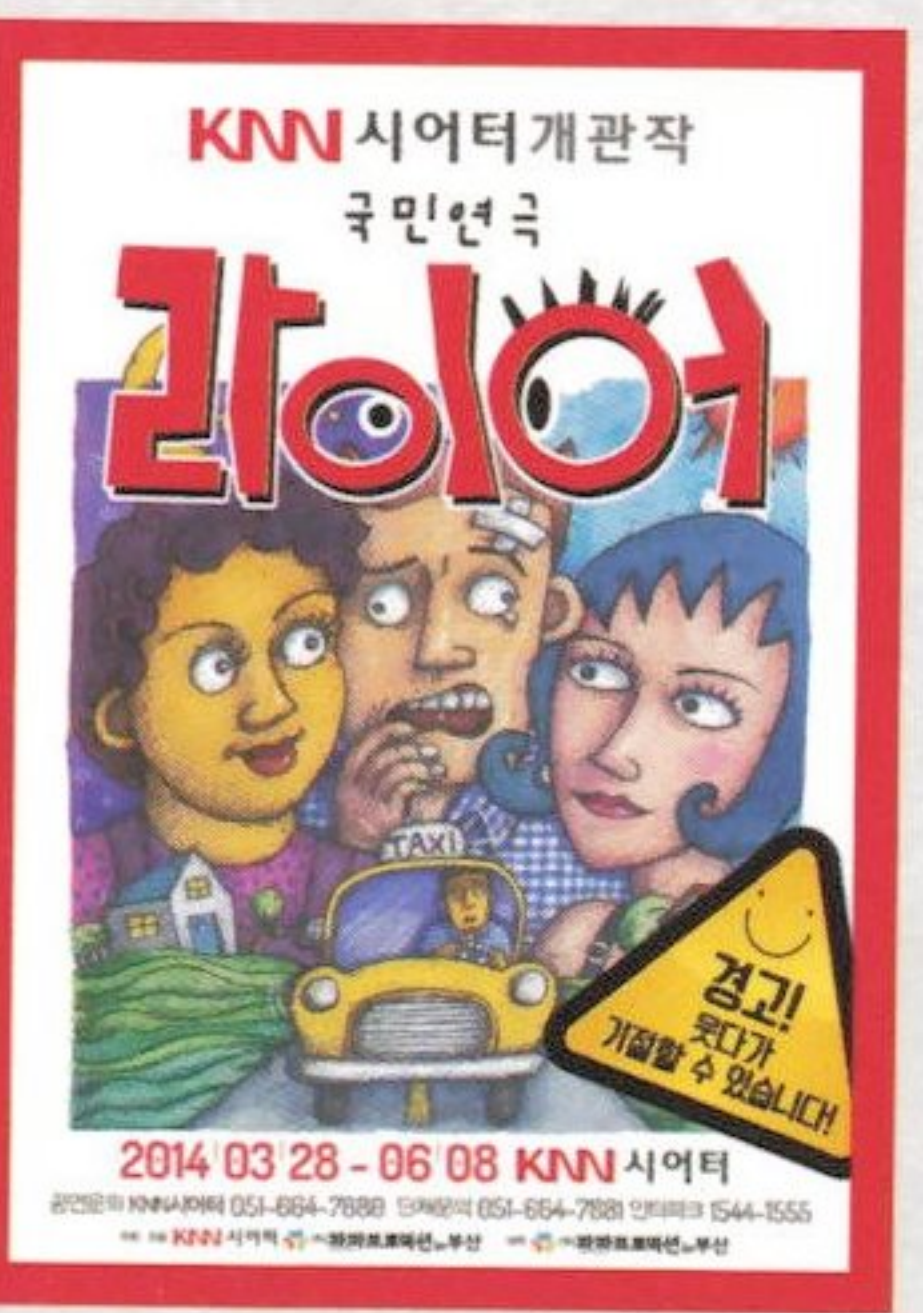


영국 최고 권위의 '로렌스 올리비에 베스트 코미디상'을 수상한 웃음의 절대지존 레이 쿠니의 신작 '룸번호 13'. 레이 쿠니 특유의 기막힌 반전과 반전에 정치 풍자성을 가미한 '룸번호 13'은 여당 국회의원과 야당총재 비서의 스캔들을 소재로 한 작품으로 그 과정 속에서 펼쳐지는 황당한 상황과 이를 모면하기 위한 인간들의 모습이 큰 웃음을 선사한다.

- 원작/레이 쿠니
- 연출/양진혁

KNN 시어터 개관 기념 연극 **라이어**

일 시 | 3월 28(금)~6월 8일(일) 오후 8:00
KNN 시어터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주)파파프로덕션 부산 664-7880



KNN이 연극 '라이어' 제작사로 유명한 (주)파파프로덕션과 손잡고 설립한 파파프로덕션 부산지사의 전용 공연장으로 문을 연 KNN 시어터 개관 기념 연극 '라이어'. 영국의 인기 극작가 겸 연출가인 레이 쿠니의 대표작인 '라이어'는 작은 거짓말에서 시작되어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상황으로 치달게 되는 기상천외한 스토리와 빠른 극 전개로 관객들의 폭소를 자아낸다. 지금도 유럽을 비롯 전 세계 60여개 나라에서 공연되고 있는 '라이어'는 국내에서만 16년째 공연되고 있는 스테디셀러 무대로, 공연횟수 25,000회, 누적관객 350만명을 돌파하며 한국 연극사의 기록을 매일같이 갱신하고 있다.

프로그램
가이드

어쿠스틱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

일 시 | 4월 5일 토요일 오후 3:00, 7:00
4월 6일 일요일 오후 1:00, 5: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5만 5천원, S석 4만 4천원
문의 | (주)문화락 1600-1602



故 김광석의 노래를 소재로 한 최초의 뮤지컬 '바람이 불어오는 곳' 부산공연.

지난해 김광석의 고향인 대구에서 초연된 후 서울 대학로 무대에 올려져 관객들로부터 호평받은 작품으로, 대학가요제에서 대상을 받았지만 무명 가수에 머물고 있는 주인공이 갈등을 딛고 꿈을 이어가는 과정을 그린 작품이다.

'서른 즈음에', '이등병의 편지', '거리에서', '흐린 가을 하늘에 편지를 써' 등 김광석이 불렀던 주옥같은 명곡이 배우들의 라이브 연주로 펼쳐진다.

- 작, 연출/김재한 • 음악감독/황태승
- 출연/박창근, 최승열, 황지영, 박수량, 이성현, 권혁준, 민수홍, 임철명, 언희, 최윤희, 박정권, 김의성, 강초롱, 문보람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OFF 부문
극단 에저또 **아니나 다를까 붕어빵**

일 시 | 4월 5일-19일 토-토요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월요일 공연없음)
에저또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 5천원
문의 | 부산연극협회 645-3759
www.bstheater.or.kr



부산 연극인들의 최대 축제 2014 부산연극제. '연극의 열림! 몸의 끌림! 감동의 울림!' 이

라는 슬로건으로 열리는 이번 연극제는 전국연극제 부산예선대회를 겸한 경연부문인 'IN 부문', 소극장 연극의 활성화를 위해 전국의 극단이 참가하는 'OFF 부문', 그리고 부산시민이 만들어가는 연극축제 '시민연극제'로 진행된다.

부산연극제 OFF 참가작인 '아니나 다를까 붕어빵'은 가족, 연인, 이웃 그리고 그들과 함께 어우러져 살아가는 붕어빵 같은 우리네 이야기를 웃음과 감동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 작, 연출/최재민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IN 부문
극단 세진 **웃으며 안녕**

일 시 | 4월 5일-6일 토-일요일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 5천원
문의 | 부산연극협회 645-3759

아이를 하늘나라로 먼저 보낸 후 절망감에 사로잡혀 삶을 포기한 주인공 준혁이 등장하는 연극 '웃으며 안녕'은 어느날 상조회사에 들어가게 된 주인공이 장례와 죽음을 둘러싼 인간 군상들의 다양한 이야기를 접하면서 서서히 자신을 되돌아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 작/이난영 • 연출/김세진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IN 부문
극단 하늘개인날 **불꽃의 청년, 박재혁**

일 시 | 4월 8일(화)-9일(수)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 5천원
문의 | 부산연극협회 645-3759

독립투사 박재혁의 삶을 그린 '불꽃의 청년, 박재혁'은 부산상업학교를 졸업한 1915년부터 부산경찰서를 폭파하다 체포되어 대구형무소에서 순국한 1915년까지 6년간의 독립운동 생활을 그린 작품이다.

- 작/김문홍 • 연출/곽종필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IN 부문
극단 이야기 **천국 이야기**

일 시 | 4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4월 12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 5천원
문의 | 부산연극협회 645-3759

죽어서 천국으로 가게 된 어머니 옥순은 20년전에 죽은 아들 기철이 지옥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데... 연극 '천국 이야기'는 아들을 만나기 위해 지옥순례에 나선 어머니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 작/신호권 • 연출/김태호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IN 부문
극단 더블스테이지 **라랄라 흥신소**

일 시 | 4월 17일-18일 목-금요일 오후 7:3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입장료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 5천원
문의 | 부산연극협회 645-3759

눈부시게 하얀 옷에 빨간 캐치가 튀자 그 절망감에 빠진 하얀 노인은 범인인 7살짜리 꼬마를 죽이기로 결심하는데... 돈가방에 현혹되어 꼬마 죽이기에 나선 흥신소 직원들의 한바탕 소동을 그린 작품이다.

- 작/김지숙 • 연출/김동민

극단 해풍 부모님과 함께 보는 연극
老미오와 줄리엣

일 시 | 4월 11일-27일 금-일요일
5월 8일-11일 목-일요일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월요일 공연없음)
소극장 624

입장료 | 일반 2만원, 청소년 1만원(예매시 30% 할인)
문의 | 소극장 624 343-7134

늙어서 배우자를 잃고 혼자가 된 두 주인공이 어렵게 연애를 시작하지만 정작 골목 하나를 사이에 두고 만두집을 운영하는 두 주인공들의 자식들은 '원조'시비로 점점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데... 둘의 사랑을 이루기 위해 유서를 쓰고 여행길에 나선 주인공들과 길에서 만난 세 쌍의 좌충우돌 연애기를 유쾌하게 그려낸 작품이다.

- 작, 연출/이상우
- 출연/이권아, 최현주, 박영준, 신현우, 박명정, 류현희, 백민철, 이상우



어린이 율동놀이 뮤지컬
호비쇼 4

일 시 | 4월 12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13일 일요일 오후 1:00,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 5천원, S석 3만원
문의 | 에이치비쇼 1644-556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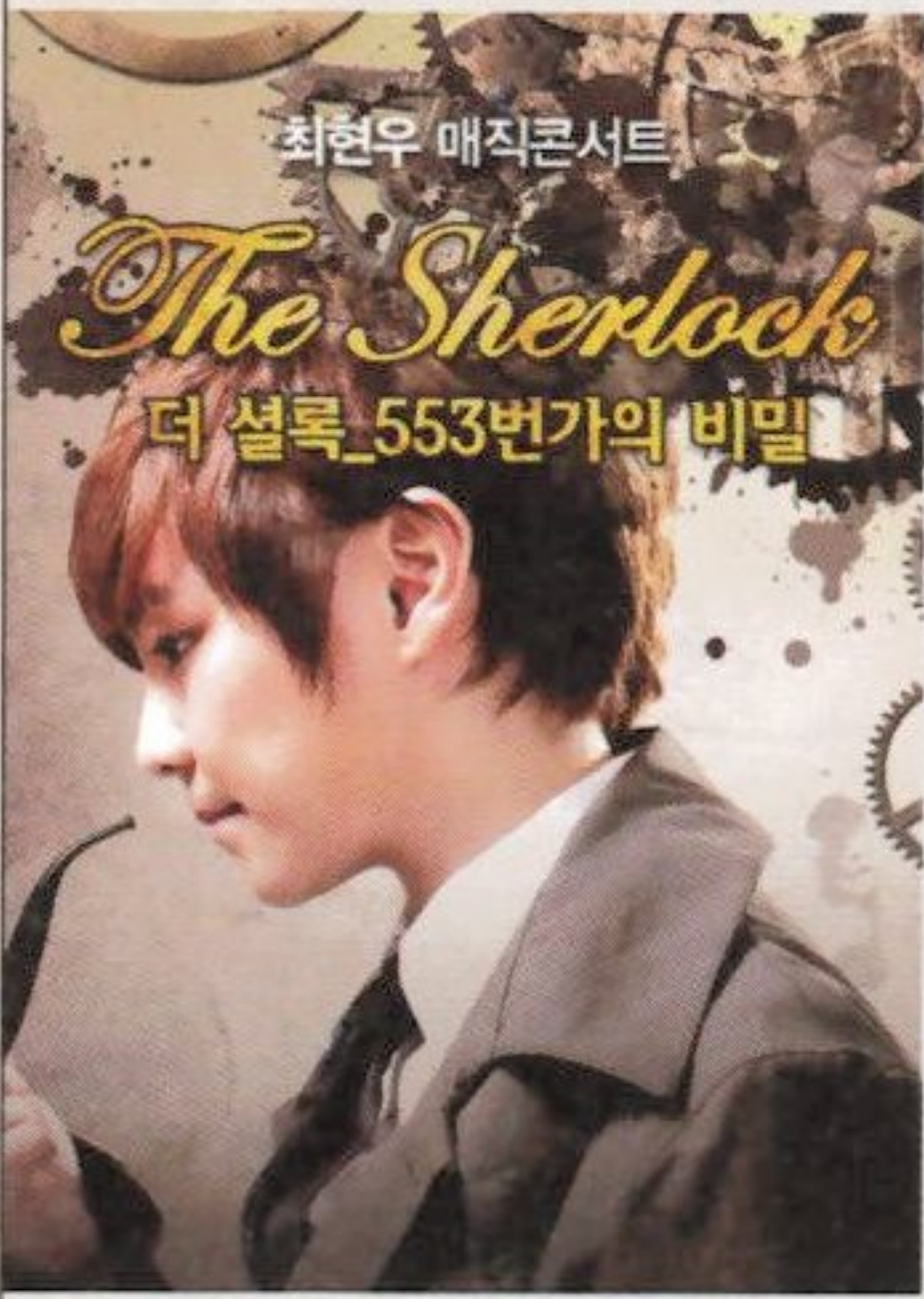


유아교육전문브랜드인 '아이챌린지'의 인기 캐릭터 호비와 친구들이 펼치는 신나는 춤과 노래 어린이 율동뮤지컬 '호비쇼 4'.

'안전대장 호비와 함께 눈과 얼음의 나라를 지켜요'라는 부제로 펼쳐지는 이번 무대는 눈과 얼음으로 덮여있는 챌린지마을의 겨울을 배경으로 지구온난화로 위험해진 마을과 게임중독에 빠진 친구 페로와 튼튼아저씨를 구하기 위한 호비와 친구들의 신나는 모험 이야기를 그린 작품이다.

최현우 매직콘서트 더 셜록_553번가의 비밀

일 시 | 4월 12일 토요일 오후 2:00, 6:00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S석 3만원, A석 2만원, B석 1만원
(초·중·고등학생 30% 할인)
문의 | 부산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20



2011년 '셜록홈즈1-사리진 마술사'를 시작으로 2012~2013년 '셜록홈즈2- 셜록홈즈의 귀환'에 이어 국내 최고의 뮤지컬 제작진과의 협력을 통해 더욱 더 완성도 높은 무대로 탄생된 최현우 매직콘서트 '더 셜록_553번가의 비밀'.

셜록 시리즈의 완결판인 이번 무대에서 셜록 홈즈로 분한 최현우는 플라잉 퍼포먼스와는 차원이 다른 '플라잉 매직'에서부터 대형물체를 순식간에 등장시키는 일루전 매직, 관객들과의 심리싸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해나가는 멘탈 매직까지 최고의 매직무대를 관객들에게 선사한다.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

일 시 | 4월 19일 토요일 오후 3:00, 7:00
4월 20일 일요일 오후 2:00, 6: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 VIP 11만원, R석 9만 9천원
S석 7만 7천원, A석 6만 6천원
문의 | (주)WSM 1566-5490



1940년대 프랑스 몽마르뜨를 배경으로 현실과 환상을 넘나드는, 발랄하면서도 기발한 상상이

유쾌하게 펼쳐지는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 1997년 프랑스 모리외르상 최우수 뮤지컬상, 최우수 연출상을 수상하기도 한 뮤지컬 '벽을 뚫는 남자'는 금세기 최고의 영화음악가인 미셸 르그랑의 감미로운 음악과 몽마르뜨를 그대로 옮긴 듯한 아름다운 무대와 조명, 12인 23역을 소화하는 배우들의 열연으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이번 무대에선 최근 TV프로그램 '아빠 어디가'로 화제를 모았던 배우 이종혁과 카리스마와 코믹함이 공존하는 배우 고창석이 출연, 개성넘치는 연기를 보여준다.

비보이 코믹 넘버벌 퍼포먼스 더 프랜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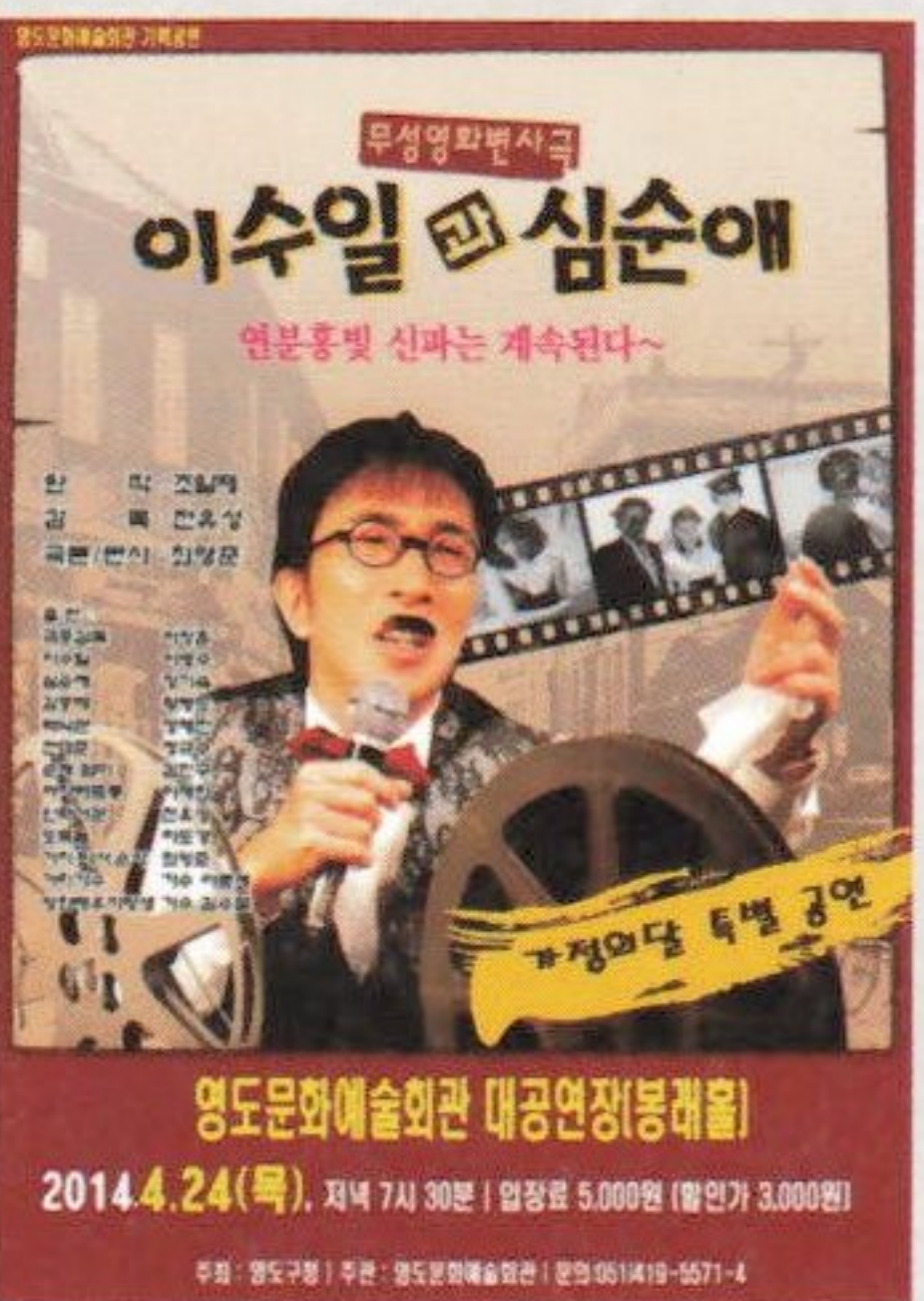
일 시 | 4월 19일 토요일 오후 4:00, 7:00
4월 20일 일요일 오후 2:00, 5:00
금정문화회관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5만원
문의 | 화랑엔터테인먼트 1644-5564

전 세계 비보이들의 교과서로 불리며 새로운 한류상품으로 떠오르는 등 세계의 TOP으로 우뚝 선 한국 비보잉의 저력을 확인할 수 있는 비보이 코믹 넘버벌 퍼포먼스. 친구를 괴롭히는 폭력 가해자인 주인공이 교도 수련원 생활을 통해 반대로 폭력 피해자가 되면서 피해자의 아픔을 알고 마침내 자신의 잘못을 깨닫게 된다는 '더 프랜드'는 요즘 심각한 사회문제로 떠오른 학교폭력을 청소년들이 좋아하는 비보이 넘버벌 퍼포먼스로 풀어낸 작품이다.



무성영화 번사극 이수일과 심순애

일 시 | 4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 균일 5천원
문의 |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71~4



무성영화 시절 관객들을 울리고 웃기던 번사의 가치와 기능을 재조명해 현대적 감각으로 재구성한 무성영화 번사극 '이수일과 심순애'.

1930년 한 시대를 풍미했던 신파극의 정수 '이수일과 심순애'를 연극배우, 개그맨, MC, 가수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며 활동해온 이 시대 마지막 번사 최영준의 감칠맛 나는 해설로 들려준다.

- 원작/조일제 • 감독/전유성
- 극본, 번사/최영준
- 출연/이창훈, 이명수, 장기숙, 황병도, 정재진, 정규수, 김진구, 이재희, 전유성, 이도경, 최여운, 이문세, 김수철

개그맨 안상태의 1인 코미디극 상태좋아?

일 시 | 4월 26일-27일 토-일요일
오후 4:00, 7: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균일 4만원 (예매시 1만원 할인)
문의 | (주)빅스토리 070-7500-7502

'안어빙'으로 유명한 개그맨 안상태의 개그인생을 집대성한 1인 코미디극 '상태좋아?' 부산공연.

OHP 대형 채색 그림자극 고구려 프로젝트 그 첫 번째 이야기 동명성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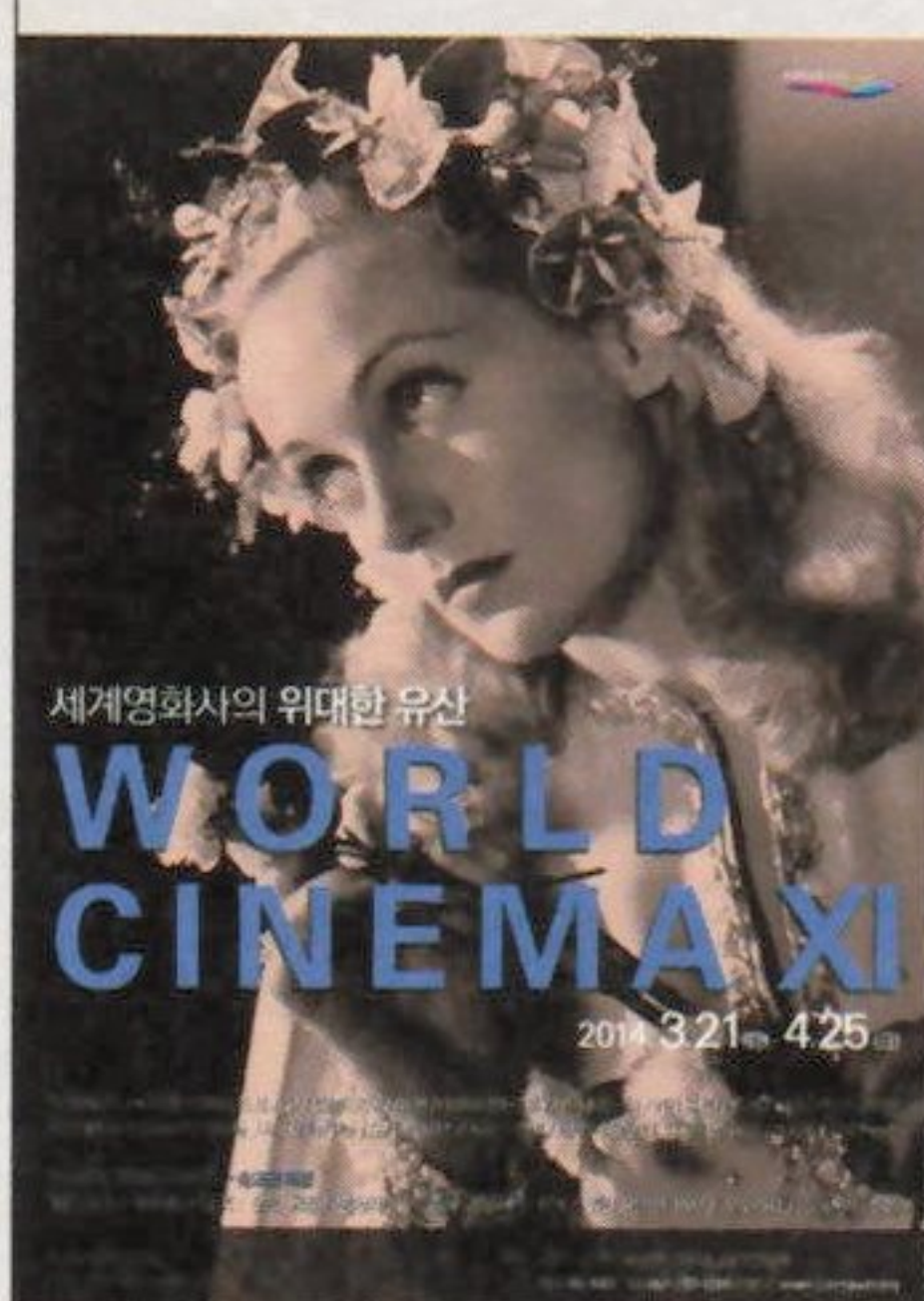
일 시 | 4월 26일 토요일 오후 1:30, 오후 3:00
해운대구문화복합센터 대공연장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의 | 달라에듀테인먼트 740-5074

우리 민족의 거대한 뿌리이자 동북아시아 문명의 풍부한 밑거름이었던 고구려, 광활한 대지와 드높은 하늘 아래 살아 숨쉬던 우리 영웅들의 서사시가 채색 그림자극으로 제작된 고구려 프로젝트 그 첫 번째 이야기 '동명성왕'. 고구려인의 웅장한 기백과 사랑, 고뇌, 용기가 무덤에서, 벽화에서 대형 영상으로 되살아난다.

영화

월드시네마 11

일 시 | 3월 21일(금)-4월 25일(금)
영화의전당 시네마테크
입장료 | 일반 6천원, 청소년 및 경로 4천원
문의 | 영화의전당 780-6080
www.dureraum.org



그 이름만으로도 빛나는 세계영화사의 걸작 총 27편을 만날 수 있는 월드시네마 11번째 상영회. 프랑스의 화가 오귀스트 르누아르로부터 아티스트의 피를 그대로 물려받은 아들 장 르누아르 감독의 '시골에서의 하루(1936)', 통일 러시아를 건설한 이반 4세의 삶을 그린 세르게이 M. 에이젠시테인의 '이반 대제 II(1944)', '이반 대제 II(1958)', 뉴저먼 시네마의 기수 빔 벤더스의 알려지지 않은 걸작 '도시의 엘리스(1974)', 알프레드 히치콕의 대표 스릴러 '새(1963)' 등 192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다양한 색깔을 띤 작품들을 상영한다.

무용

LIG 아츠 플랫폼 2014

일 시 | 3월 29일(토)-4월 12일(토)
평일 오후 8:00, 주말 오후 5:00
LIG아트홀_부산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LIG아트홀 1544-3922



부산과 국내·해외를 연결하는 공연예술 교류 프로젝트 'LIG 아츠 플랫폼'. 부산 지역에 작품을 소개하고자 하는 국내외 유수의 페스티벌 및 극장을 선정, 현재 공연예술의 흐름을 보여주는 주요 작품을 부산 관객들에게 선보이고, 동시에 부산 지역의 우수작품과 예술가들을 타 지역에 소개하고자 마련된 'LIG 아츠 플랫폼' 2014년 무대에서는 새롭고 실험적인 작품들로 가장 핫한 축제로 인정받고 있는 국제다원예술축제 '페스티벌 봄'의 대표작들이 부산을 찾는다.

3월 29일 사람들이 갑자기 새까맣게 몰려든다 브라질 공연팀 '데몰리션 컴퍼니'의 무대로, 온 몸을 검게 칠한 댄서들이 관객들과 어우러지면서 객석과 무대, 배우와 관객의 경계가 사라지고 뒤섞이는 독특한 무대를 선보인다.

• 안무/마르셀로 이블린

4월 4일(금) 바보들을 위한 경제학

유럽에서 솔로 렉처 퍼포먼스 시리즈로 주목받고 있는 노르웨이 사운드 아티스트 아문드 솔레 스펠의 2013년 신작.

강연하듯 말로 들려주는 이색 공연으로, 현대사회의 경제시스템을 독창적인 렉처 퍼포먼스로 유쾌하게 풀어낸다.

4월 11일(금)-12일(토) 1분안의 10년-트랜지션

독일, 한국, 일본이 공동 제작하는 '1분 안의 10년' 3부작 시리즈의 두 번째 작품인 '1분 안의 10년 - 트랜지션'.

독일을 기반으로 활동중인 안무가 임지애가 한국, 독일, 일본에서의 '춤'에 대한 경험을 3개의 다른 시선으로 담아 3부작 시리즈로 선보인다.

독일에 이어 두 번째로 선보이는 '1분안의 10년-트랜지션'은 부산에서 3주간의 레지던스를 통해 초연된다.

최은희의 춤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P.T&T/사진·영상과의 만남

일 시 | 4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최은희무용단 1544-3922



춤패 배김새 총감독으로 있는 경성대학교 최은희 교수의 창작춤 무대. 부산시립무용단 안무자, 울산시립무용단 초대 안무자, 부산무용협회 회장을 역임한 최은희는 그동안 대한민국 무용제 대상, 국제멜필세 계문화올림픽 최우수 여성무용수상, 봉생문화상, 부산광역시문화상 등을 수상한 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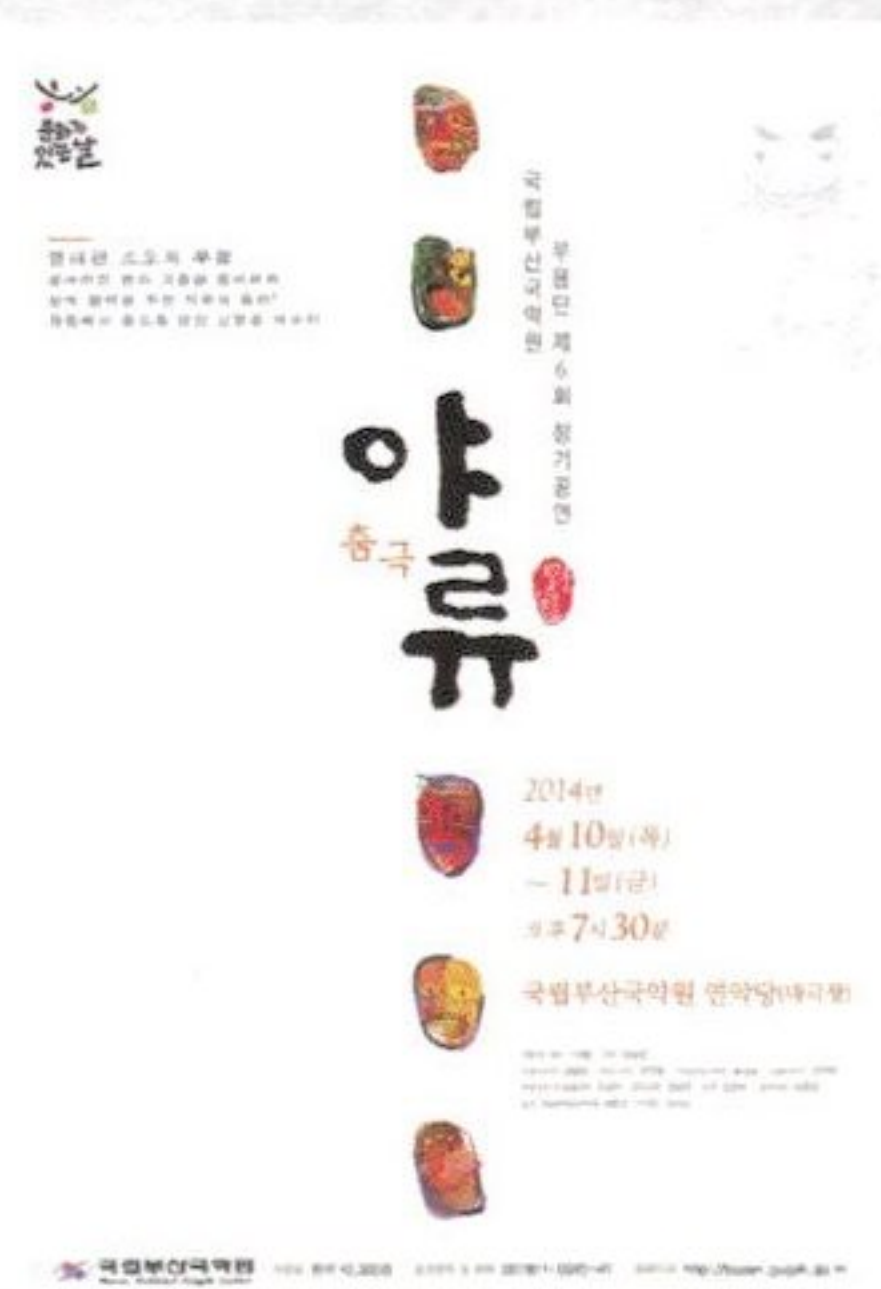
이번 무대에서는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는 존재에 대한 의문을 과거, 현재, 미래로 구성한 창작무대를 선보인다.

프로그램

- 1부 당신은 어디에서 왔습니까?(안무, 출연/양종예)
- 2부 당신은 어디에 있습니까?(안무, 출연/김남진)
- 3부 당신은 어디로 갑니까?(안무, 출연/최은희)
- 사진, 영상/오승환(경성대학교 교수)
- 무대미술/백철호 • 음악작곡 및 재구성/김보빈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제6회 정기공연
춤극 '야류'

일 시 | 4월 10일(목)-11일(금) 오후 7:30
국립부산국악원 연악당
입장료 | 균일 1만원
문 의 | 국립부산국악원 811-0040~1



지난 2008년 영남지역의 전통음악과 무용을 보존·발전·진흥하기 위해 설립된 영남지역의 유일한 국립전통예술 기관인 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의 여섯 번째 정기공연.

이번 무대에서는 응어리진 한과 고통을 풀어헤쳐 삶에 활력을 주는

치유의 춤판이 펼쳐진다.

- 대본, 연출/이재환 · 작곡/양승환
- 무용감독 및 총괄감독/오상아
- 음악감독/권성택
- 안무/정인우
- 출연/국립부산국악원 무용단, 기악단, 성악단

콘서트

8주년 특집 4월 한낮의 유U; 콘서트
JK김동욱, 소울 발라드

일 시 | 4월 15일 화요일 오전 11:00
롯데호텔부산 아트홀
입장료 | 균일 3만원
문 의 | 국제신문 문화사업국 500-5222



부산의 대표적인 브런치 콘서트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한낮의 유U; 콘서트 8주년 특집 무대 'JK김동욱, 소울 발라드'.

2001년 영화 '조폭 마누라' 수록곡 '편지'와 드라마 '위기의 남자' 주제곡 '미련한 사랑'으로 유명세를 타기 시작한 JK

김동욱은 2002년 1집 음반 'LifeSentence'로 데뷔한 후 지금까지 5장의 정규앨범을 발표했다. 호소력 짙은 중저음의 보이스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JK김동욱은 이번 무대에서 그의 대표곡을 비롯해 TV 프로그램 '불후의 명곡', '나는 가수다'에서 불렀던 다양한 곡들을 들려준다.

스페이스 움 3주년 특별 콘서트
일기예보 나들 소극장투어 콘서트 in 부산
좋아 좋아! 인형의 꿈! 응답하라 '일기예보'

일 시 | 4월 17일 목요일 오후 7:30
스페이스 움
입장료 | 균일 1만원(음료 포함)
문 의 | 스페이스 움 557-3369

'좋아 좋아' '인형의 꿈' 등으로 사랑받았던 실력파 듀오 '일기예보'의 메인 보컬로 활동하다 건강악화로 가수활동을 중단했던 가수 나들이 10년간의 투병 끝에 건강을 회복하고 새 앨범 '퍼니러브' 출반과 함께 갖는 소극장 투어 콘서트 부산무대.

Jazz...와인에 빠지다 57번째 콘서트
대한민국 최고 색소포니스트 이정식&이발차, Feat 이주미

일 시 | 4월 18일 금요일 오후 8:00
스페이스 움
입장료 | R석 4만원, S석 3만원
문 의 | 무대공감 623-0678, www.mudae.kr

대한민국 최고의 색소포니스트 이정식과 그의 음악적 재능을 물려받은 재즈 피아니스트 이발차, 부산의 역량있는 재즈 보컬 이주미가 풍성한 무대를 선사하는 '재즈, 와인에 빠지다' 57번째 콘서트.

행사

유홍준 시인 초청 제130회 시울림 시낭송회

일 시 | 4월 2일 수요일 오후 7:0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김예강(010-5516-1867)

제86회 알바트로스 시낭송회

일 시 | 4월 19일 토요일 오후 5:3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회장 김옥균 010-6367-0149

시를짓고듣는사람들의모임 제5차 부산사투리 시낭송대회

일 시 | 4월 22일 화요일 오후 6:30
영광도서 문화사랑방

입장료 | 무료
문 의 | 총무 박모경 010-8915-517

잊혀져가고 사라져가는 부산사투리를 보존하기 위해 마련하는 제5차 부산사투리 시낭송대회.

전시

중간보고서-신은경展

일 시 | 2월 15일(토)-4월 30일(수)
고은컨템포러리사진미술관
문 의 | 고은컨템포러리사진미술관 744-3924

한국사진의 전통성에서 벗어나 처음으로 다양성을 추구하고 시도한 한국의 40대 사진가들이 자신의 작업을 스스로 중간점검하고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기획전 '중간보고서'展.
인간의 욕망을 반영하는 공간을 중심으로 작업해온 신은경의 작품을 선보인다.



부산참견錄-최광호展

일 시 | 2월 15일(토)-4월 30일(수)
고은사진미술관
문 의 | 고은사진미술관 746-0055



인현식 '쉬어가기'

일 시 | 3월 4일(화)-4월 4일(금)
갤러리 아인
문 의 | 갤러리 아인 747-2612

정준호갤러리 초대 이경미展

일 시 | 3월 14일(금)-4월 11일(금)
정준호갤러리
문 의 | 정준호갤러리 943-1004

부산시립미술관 기획전 바람을 흔들다_(역)사적 그림을 위하여

일 시 | 3월 21일(금)-5월 11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전시실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744-2602

천경자와 젊은 친구들

김성철, 김해진, 이진원, 천경자
일 시 | 3월 21일(금)-4월 3일(목)
미광화랑
문 의 | 미광화랑 758-2247

김태진 개인전 순남이의 일기- 순정한 동심의 감성 오래된 미래의 소망

일 시 | 3월 24일(월)-4월 19일(토) 스페이스 움
문 의 | 스페이스 움 557-3369

craft, craft, craft전

김성철, 김해진, 이진원, 천경자
일 시 | 3월 25일(화)-4월 6일(일) 수가화랑
문 의 | 수가화랑 552-4402

OCEANUS ARTHALL 오픈 초대전 문봉선 '청송세신(靑松洗身)'展 성석진 '달항아리'展 이무규 '木가구'展

일 시 | 3월 27일(목)-4월 26일(토)
오션어스 아트홀
문 의 | 오션어스 아트홀 790-1810

남령 최병익 작품전 먹향 솔바람을 품다 展

일 시 | 3월 29일(토)-4월 5일(토)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 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시서화 3절에 능통한 국내 대표적인 서예작가 최병익의 개인전으로 문자도, 미소달마도, 문인화 외에도 작가의 고향 솔밭을 주제로 그린 소나무 작품 50여 점이 전시된다.



청조회 부산지회 회원전

일 시 | 3월 29일(토)-4월 11일(금)
타워갤러리
문 의 | 타워갤러리 464-3939

근서화-양옥빙(楊玉氷) 초대전

일 시 | 4월 8일(화)-4월 20일(일)
롯데갤러리 광복점
문 의 | 롯데갤러리 광복점 678-2610

대자연 중국 서예의 역사와 전통이 융합된 근서화를 중국의 대표적인 근서작가 양옥빙(楊玉氷, 사천성, 1953~)의 작품을 통해 감상할 수 있는 특별전.

타워갤러리 기획 2014 꽃그림전 '축제'

일 시 | 4월 15일(화)-4월 30일(수)
타워갤러리
문 의 | 타워갤러리 464-3939

최철민 사진전 邑, 江景

일 시 | 4월 21일(월)-5월 10일(토)
스페이스 움
문 의 | 스페이스 움 557-3369



New Albu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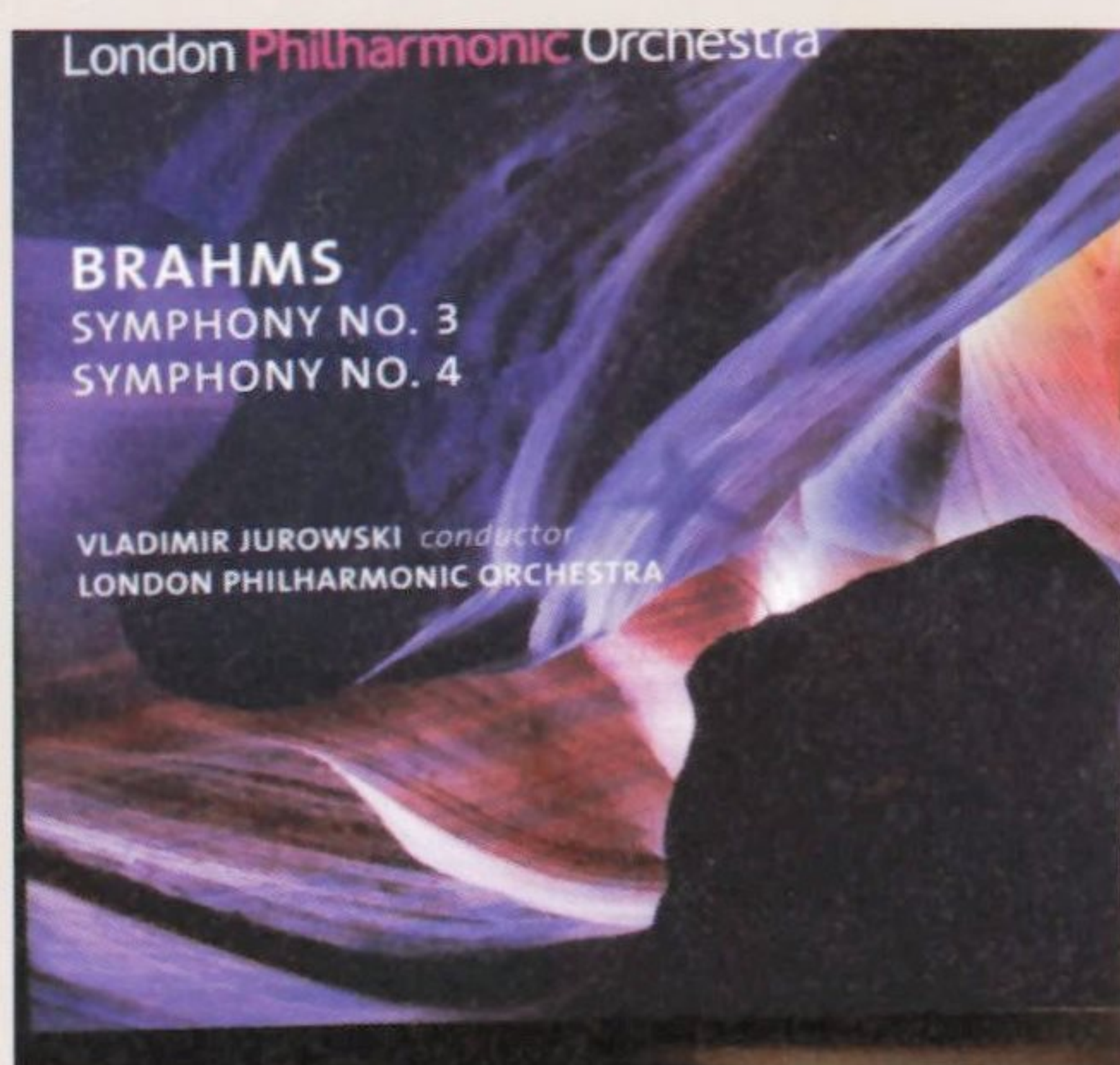


바딤 레핀, 초기 레코딩

- 베토벤 로망스 1번, 2번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 이자이 독주 소나타
바딤 레핀(바이올린)/Arnol Katz(지휘)/The Academic Symphopny
Orchestra of the Novosibirsk State Phil harmonic Society

❖ 신동 바이올리스트 바딤 레핀이 10대 시절 레코딩한 음반

1971년생인 신동 바이올리니스트, 바딤 레핀은 5세에 바이올린 연주를 시작하여, 11세에 비에니아프스키 콩쿠르에서 금메달을 수상하였고, 17세에 퀴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최연소의 나이로 우승하였다. 메뉴힌은 레핀의 연주를 듣고 '이제껏 들은 연주 중 최고이며 가장 완벽한 바이올리니스트'라고 극찬하였다. 러시아와 프랑스 작품 연주에 정평이 높으며, 특히 러시아 바이올린 협주곡 연주에 뛰어난 기량을 발휘한다. 그가 맹활약을 펼쳤던 10대 시절의 레코딩으로 베토벤 <로망스 1, 2번(1984년)>과 차이코프스키 <바이올린 협주곡(1986년)>을 담고 있는 앨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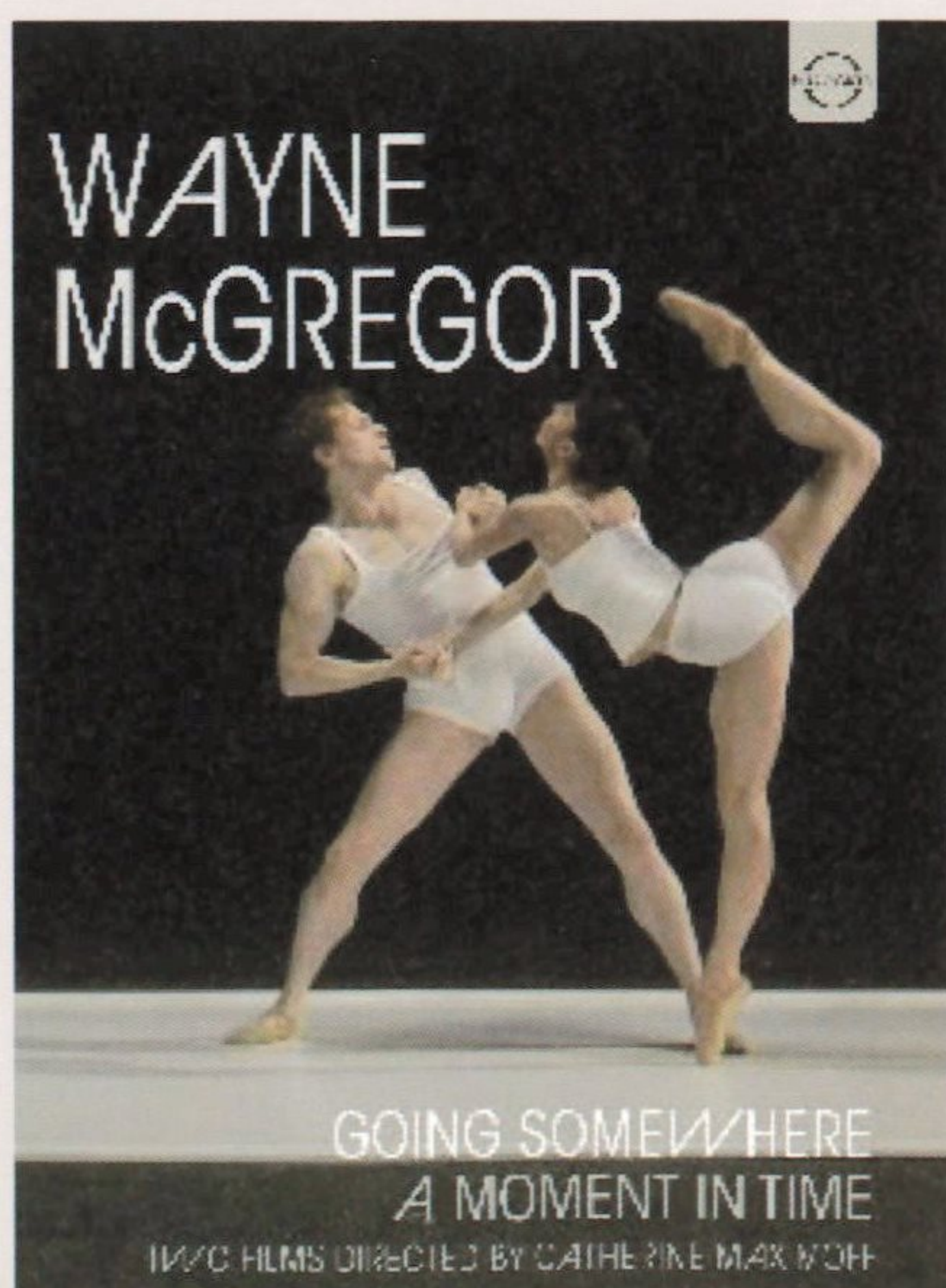


브람스 교향곡 3, 4번

블라디미르 유롭스키(지휘) / 런던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 엘 시스테마가 배출한 또 한 사람의 젊은 거장 디에고 마테우스

교향곡 1, 2번(LPO-0043)에 이어서 교향곡 3, 4번을 담은 이번 음반으로 블라디미르 유롭스키의 브람스 교향곡 전집이 완결되었다. 두 교향곡 모두 로얄 페스티벌 홀에서의 콘서트 실황(3번: 2010년 10월 27일, 4번: 2011년 5월 28일)을 담은 것으로, 유롭스키의 군더더기 없는 명쾌한 해석과 런던 필의 우수한 합주력이 훌륭한 시너지를 만들어내었다. 영국의 유력지 가디언은 특히 교향곡 4번의 연주에 대해 'a performance of colossal proportions'라고 호평하였다.



웨인 맥그리거의 예술세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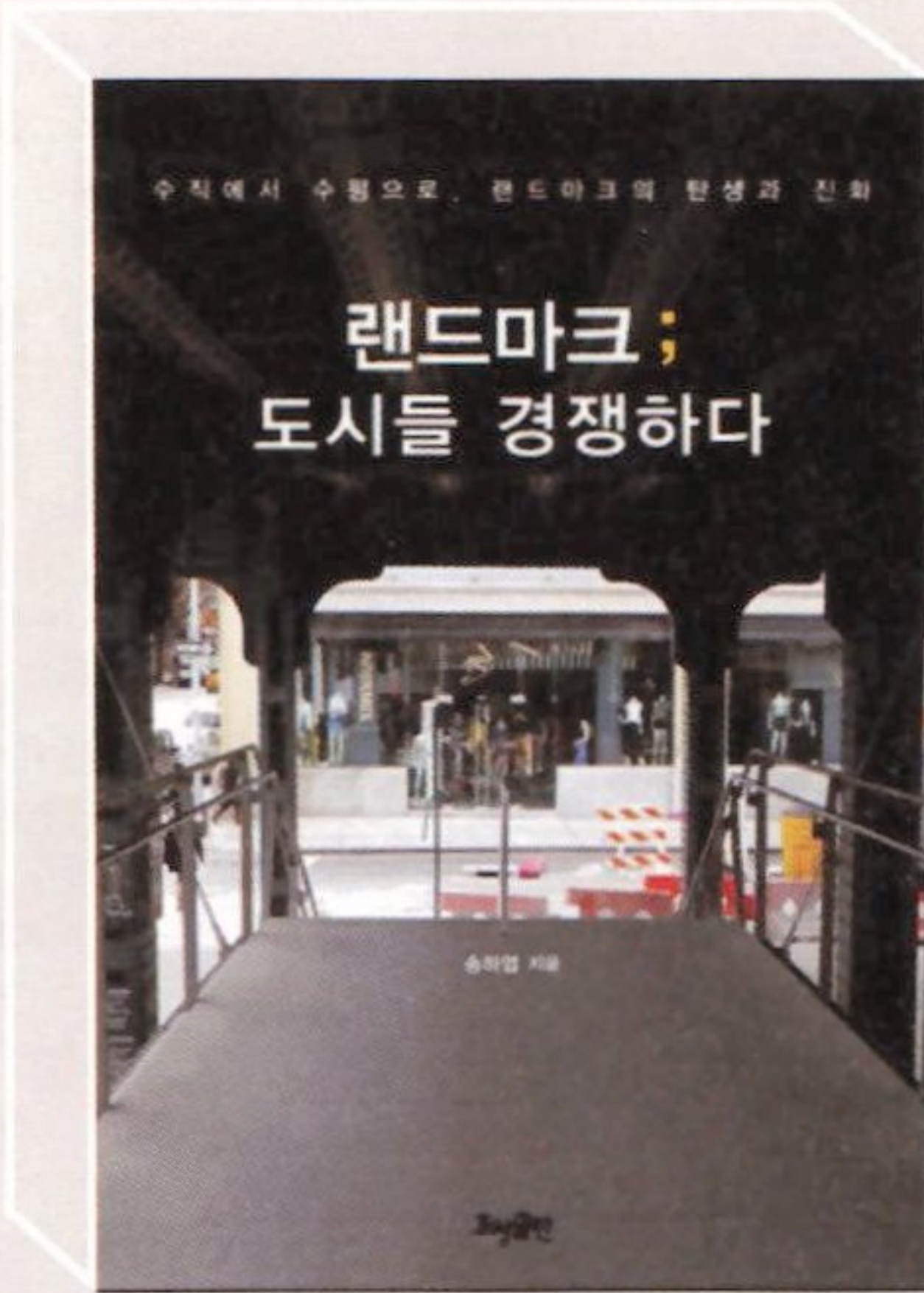
❖ 현대 무용계의 거장 웨인 맥그리거의 예술세계를 담은 2개의 필름

웨인 맥그리거는 현재 영국을 대표하는 현대 무용가이자 안무가이다. 그는 현대 무용에 필름 영상이나 비주얼 아트를 적극적으로 접목시킴으로써, 자신만의 독특한 예술관을 가꿔왔다. 그는 자신의 사설 무용단인 '웨인 맥그리거 랜덤 댄스'의 예술 감독을 맡고 있으며, 2006년부터는 런던 로얄 발레단의 상주안무가로 활약해왔다. 이번 영상물은 그의 예술세계를 조망할 수 있는 두 편의 필름을 담고 있다. 다큐멘터리 <Going Somewhere>에는 맥그리거 본인을 비롯한 관계자들의 인터뷰와 여러 리허설 장면들을 통해서 그의 독특한 예술세계가 구체적으로 만들어져가는 과정이 흥미롭게 포착되었다. 그리고 그가 안무한 네 편의 모던 발레 - 랜덤 댄스를 위해 안무한 'Entity'(2008년)와 'Dyad 1909'(2009년), 로얄 발레단을 위해서 안무한 'Qualia'(2003년)와 'Limen'(2009년) - 에서 발췌한 시퀀스들을 조합해놓은 30분 분량의 댄스퍼포먼스 <A Moment in Time>이 함께 수록되었다. 'Entity'와 'Limen'은 각각 Movimentos Awar와 South Bank Show Award를 그에게 안겨준 대표작들이다.

❖ 랜드마크, 도시들 경쟁하다

송하엽 지음 / 효형출판 / 336p / 2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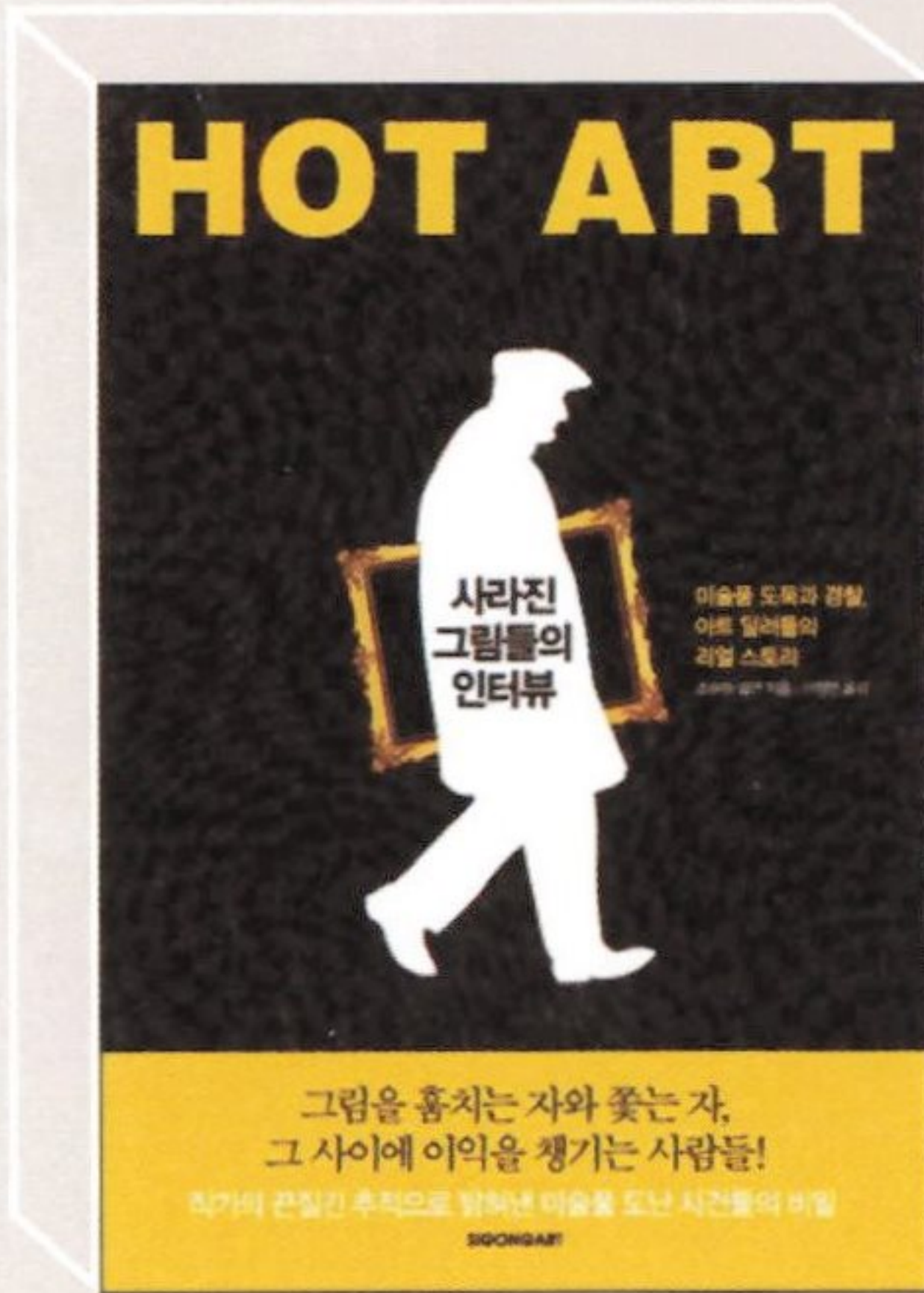
2008년 송례문이 화재로 완전 소실됐을 때, 언론에서는 대한민국의 랜드마크가 불길에 사라졌다고 보도했다. 랜드마크는 어떤 지역을 대표하거나 구별하게 하는 표지이다. 외국의 경우는 어떠한가. 에펠탑 사진 한 장만 있으면 프랑스를 떠올리고, 빅벤을 보면 영국인 줄 누구나 알고, 만리장성을 보면 중국을 생각하고, 미국을 이야기할 때는 자유의 여신상 하나면 충분하다. 영화 '혹성탈출'(1968년 개봉)의 마지막 장면은 주인공 테일러가 해변에서 자유의 여신상을 발견하는 장면이다. 테일러는 원숭이가 지배하는 별에서 탈출하려 했지만, 자유의 여신상을 보면서 비로소 자신이 지구에 불시착했음을 깨닫는다. 이 영화에서는 자유의 여신상이 지구의 랜드마크였다. 단순히 높거나 크다고 해서 랜드마크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 책은 근대 이후부터 오늘날까지 랜드마크 역할을 하는 다양한 건축물이 지어진 배경과 도시에 미친 영향 등을 폭넓게 다루고 있다. 세계 여러 국가와 도시의 랜드마크가 어떤 사회적, 문화적 배경 속에서 성장했고 도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알려준다. 저자는 랜드마크는 수직 마천루가 아니라 수평적으로 모든 사람이 즐길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사라진 그림들의 인터뷰

조슈아 벨먼 지음, 이정연 옮김 / 시공아트 / 472p / 2만원

그림 도둑을 잡으려는 여자수사관과 도둑이 사랑에 빠진다는 내용의 영화 '토마스 크라운 어페어'의 피어스 브로스넌,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을 훔치는 '허드슨 호크'의 브루스 윌리스. 이들은 실제 미술품 도둑들과는 거리가 멀다. 미술품 도둑들은 작가와 작품에 대한 지식도 관심도 없다. 그저 돈만 된다면 무조건 훔쳐 미술품 암거래시장에 내다 판다. 그러나 명화에는 손을 대지 않는다. 그런 작품은 이미 너무 유명한 작품이라 도난당하는 순간 언론에 공개되어 팔 수가 없다. 도둑들은 '덜 유명한' 작품을 훔치고, 미술관과 소장자들은 도난 사실을 숨긴다. 훔친 미술품은 암거래시장에서 몇 번의 세탁과정을 거쳐 버젓이 다시 미술관에 걸리거나 세계적인 경매시장에서 합법적으로 거래된다. 이런 일은 공공연한 비밀이며 미술계에서는 다 아는 사실이다. 미술품 암시장은 마약, 돈세탁, 무기거래에 이어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블랙마켓이다. 뉴욕에서는 은행 강도가 훔치는 돈의 규모보다 도난된 미술품의 돈 규모가 훨씬 크다. 도난 미술품은 제3국에서 세탁과정을 거치는데, 대한민국도 주요 제3국에 포함된다. 아름다운 미술품 이면에 놓여있는 인간의 탐욕과 어두운 현실을 비판한 책이다.



❖ 마음, 사진을 찍다

크리스틴 발터스 페인트너 지음, 신혜정 옮김 / 256p / 1만 4천원

살아가며 단 한 번뿐일 특별한 순간을 마주했을 때, 두 손이 바쁘게 카메라부터 찾고 있는 당신이라면 이 책이 필요하다. 사람들은 아름다운 순간을 사진으로 남기기 위해 카메라 셔터를 열심히 누르지만 '사진 찍기' 자체에 정신이 팔려 자신이 무엇에 관심을 가졌는지, 그것에 얼마만큼의 애정을 가졌는지를 잊곤 한다. 그 사이 당신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완전히 사라지고" 없다. 사진이 너무 흔해져버린 세상이다. '표준화된' '잘 찍은' '잘 만든' 사진이 넘쳐나는 시대가 됐지만, 감동은 오래 묵은 앨범 속의 흑백사진보다 덜하다. 크리스틴 발터스 페인트너는 '본다는 것'의 의미를 되짚는다. 카메라 렌즈를 통해 부드러운 시선으로 세상을 '관찰하는 과정', 처음 카메라를 들어 사진을 찍던 '순간', 카메라를 통해 '보려고 하는 무엇'에 주목한다. 저자는 사색으로서의 사진, 자신과 만나는 통로로서의 사진을 말한다. 그는 진짜 사진을 찍기 위해서는 사진 찍는 '방법'과 '기술'을 '배우기' 이전에 사진을 대하는 태도부터 다시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 책은 세상을 제대로 보고, 당신이 무엇에 이끌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해하는지에 주목한다. 사진은 기술을 구현하는 과정이 아니라 마음가짐을 되찾는 과정이다.



NEWS

부산시립교향악단 2014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 참가 4월 3일 리 신차오 지휘, 김영률 호른 협연



리 신차오 지휘하는 '바르톡의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으로 부산음악애호가들과 만나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4월 1일 정기연주회에 이어 동일한 프로그램으로 4월 3일, 예술의전당에서 열리는 '2014 교향악축제'에 참가한다.

1989년 시작된 예술의전당 '교향악축제'는 국내 음악가들의 연주 무대 활성화와 국내 순수 창작 레퍼토리 확산 등에 기여해온 국내 최대의 클래식 축제이다. 26회를 맞는 올해 축제는 4월 1일(화) 요엘 레비가 이끄는 KBS교향악단 개막연주를 시작으로 18일(금) 지휘자 임헌정과 부천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폐막연주까지 총 18개의 오케스트라가 아름다운 봄의 향연을 펼친다. 올해는 특히 한국 음악계 최정상급의 중견연주자들부터 차세대 아티스트들까지 실력 있는 연주자가 대거 참여하며 음악애호가들을 설레게 한다.

부산시립교향악단은 4월 3일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호른 연주자 김영률이 협연하는 F. 슈트라우스 '호른 협주곡'을 비롯해 하이든 '교향곡 96번 기적', 바르톡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으로 교향악축제 무대를 장식한다.



찾아가는 예술단 4월 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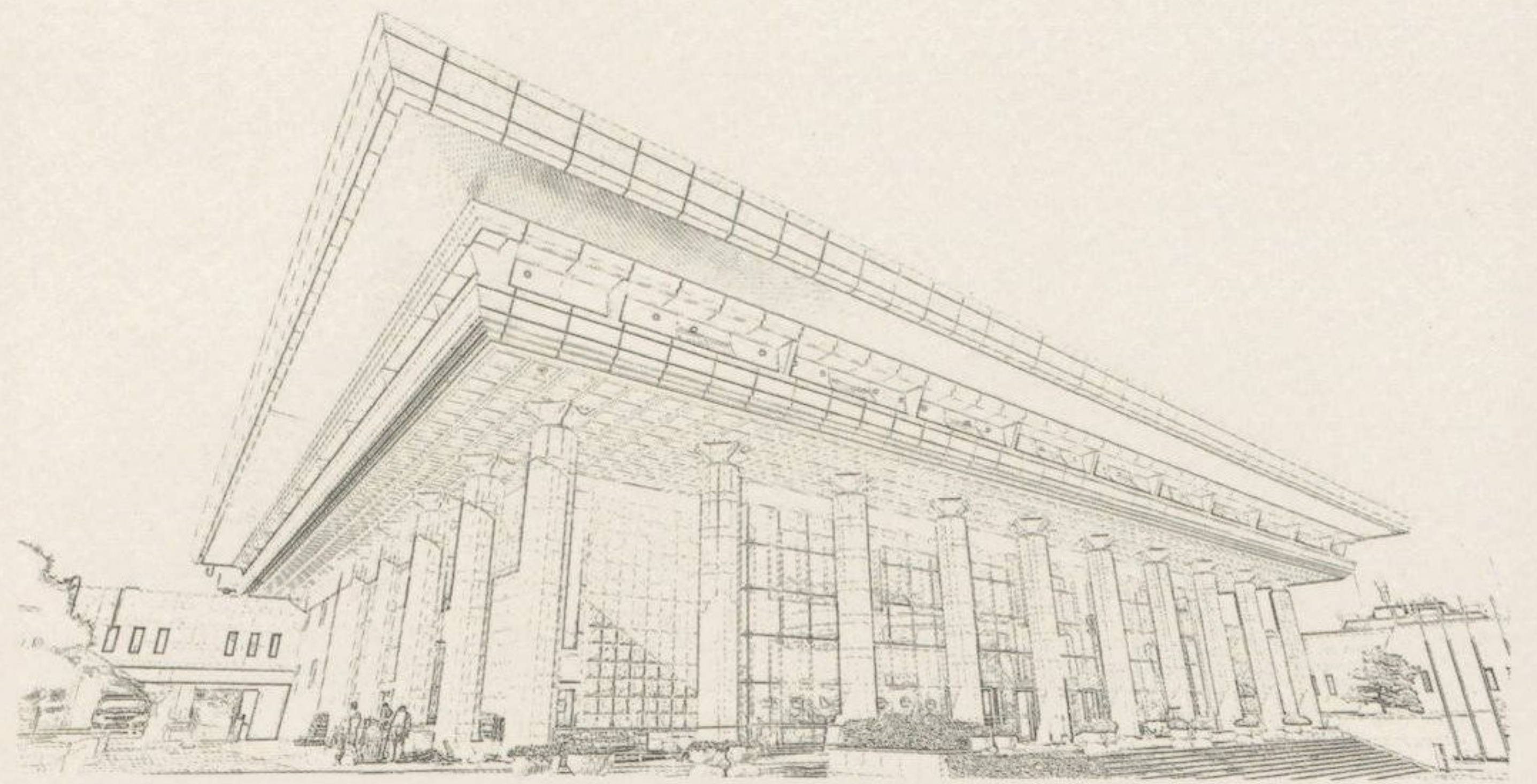


공연장을 자주 찾을 수 없는 문화 소외 지역을 찾아가는 부산문화회관 찾아가는 예술단 4월 공연이 확정되었다.

4월에는 4일 '향토예비군 축하공연'을 시작으로 부산시민들을 위한 '시청로비콘서트', '문화소외계층 장병을 위한 위문공연', '시민공원 임시개장 작은 음악회' 등 11회의 공연이 펼쳐진다.

|일정|

- 4월 4일(금) 10:45 부산시청 대극장
내사랑 부산공연 '향토예비군 축하공연'(출연/합창단)
- 4월 9일(수) 12:30 부산시청 로비
내 사랑 부산 공연 '시청로비 콘서트'(출연/국악관현악단)
- 4월 11일(금) 15:00 육군53사단 총렬관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문화소외계층 장병을 위한 위문공연'(출연/합창단)
- 4월 15일(화) 14:30 시민공원
내 사랑 부산 공연 '시민공원 임시개장 작은 음악회'(출연/국악관현악단)
- 4월 16일(수)
15:00 시민공원 내 사랑 부산 공연 '시민공원 임시개장 작은 음악회'
(출연/교향악단 현악4중주)
18:00 좋은강안병원
내 사랑 부산 공연 '환자를 위한 소년소녀합창단 공연'(출연/소년소녀합창단)
- 4월 17일(목) 14:30 시민공원
내 사랑 부산 공연 '시민공원 임시개장 작은 음악회'
(출연/국악관현악단, 교향악단 현악4중주)
- 4월 19일(토) 10:00 중앙공원 충훈탑
내 사랑 부산 공연 '4.19 혁명 기념 공연'(출연/합창단)
- 4월 23일(수) 12:30 부산시청 로비
내 사랑 부산 공연 '시청로비 콘서트'(출연/무용단)
- 4월 25일(금) 19:00 그랜드 자연 요양병원
소외계층을 위한 나눔 공연 '그랜드 자연 요양병원 나눔 공연'(출연/국악관현악단)



70억 인류의 역사 '라이프 사진전' 이모저모



1월 5일 부산에서 처음으로 막이 오른 부산문화회관 기획전시 '라이프 사진전'이 4월 12일 전시 종료를 앞두고 마지막 관람열기가 뜨겁다. 정점의 순간에서 산화한 20세기 최고의 사진 기록 '라이프'의 주요 사진을 만날 수 있는 라이프 사진전에서는 라이프지에서 활동한 최고의 사진가 알프레드 아이젠슈테트, 유진 스미스, 로버트 카파, 더글러스 던컨 등 수많은 사진가들의 집념과 역사의 한 페이지가 담긴 900만장의 사진 중 최고의 사진 130여 장이 전시되고 있다. 이 중에는 백범 김구에서 윈스턴 처칠, 마이클 잭슨, 한국전쟁에서 아폴로 11호까지 우리와도 친숙한 역사인물, 역사적 사건들을 생생한 사진으로 만날 수 있다.



겨울방학기간이었던 1월, 전시 오픈과 함께 부산에서 처음 만나는 라이프 사진전을 관람하기 위해 평일에는 관람객이 300~400명, 주말에는 1,000명 이상이 사진전을 찾아 20세기의 위대한 역사와 만났다. 특히 매일 오전 11시와 오후 2시, 5시에는 도슨트들의 상세한 해설을 들을 수 있어 젊은 층은 물론 학생을 동반한 가족 관람객들이 줄을 이었다. 라이프 사진전은 현재 3월을 넘어서면서 관람객 3만 명을 넘어서 전시회에 대한 인기를 실감하고 있다.

라이프 사진전은 그동안 문화의 날 50% 할인 이벤트를 비롯해 겨울방학이벤트, 경찰가족 할인, 택시가족 할인, 설날이벤트, 교원 할인과 다양한 경품 이벤트를 진행하는 등 관람객들을 위한 서비스를 확대해왔다.

관람후기

“역사는 인간이 살아온 흔적이며, 앞으로 미래를 만들어 갈 소중한 재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기억하기 위해 기록을 하는 것이며, 라이프지는 그런 역사의 기록을 아주 잘 해낸 잡지인 것 같습니다.”

“사진은 물론 좋았지만 라이프사진전 사진 아래 글귀중 너무너무 와 닿았던 문구들이 많았다. 보는 것을 즐겨하자/보고 또 놀라자/보고 또 배우자”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클래식 문화공간

필하모니

부산문화회관 맞은편 가람아트센터 2층에 자리한 '필하모니'는 클래식 음악애호가들에게는 너무나 친숙한 문화공간이다. 1981년 광복동에서 고전음악감상실로 출발한 필하모니는 광안리시대를 거쳐 지난 2002년 8월, 지금 이 곳에 문을 열었다.

2층 문을 열고 들어서면 우선 벽면 한켠에 빼곡이 꽂혀있는 CD와 레코드판에 놀란다. LP와 CD 등 클래식 음반만 20만 장. 군데 군데 부쳐져 있는 공연 포스터와 카페 중앙에 자리한 그랜드피아노는 작은 음악회장을 연상시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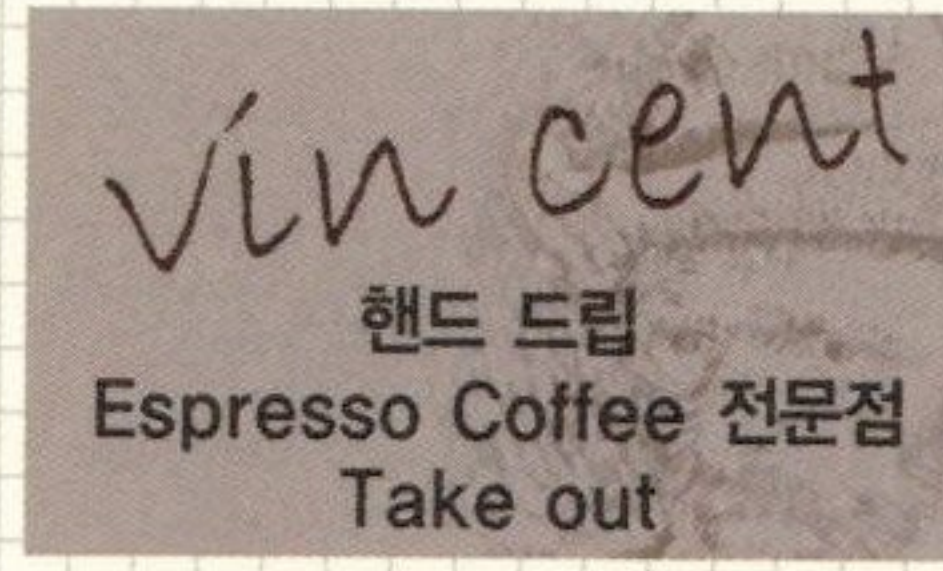
필하모니는 부산 음악계의 산 증인이라 할 수 있는 조영석 대표와 부인 이희선 씨가 운영하고 있다. 클래식 음악에 대한 열정이라면 어느 누구에게라도 뒤지지 않는 조영석 대표는 전통에 걸맞는 다양한 문화활동으로 시민들과 만나왔다. 최근 들어 부산 음악계의 새로운 트렌드로 자리잡은 살롱음악회도 필하모니를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가 없다. 필하모니 살롱음악회는 부산에서 활동하고 있는 음악인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무대에 섰을 정도로 명성이 자자하다. 지금도 한달에 한번 열리는 살롱음악회는 연주자와 관객이 가까운 곳에서 함께 호흡할 수 있어 요즘도 즐겨찾는 애호가들이 많다. 최근 들어서 매주 네차례 열리고 있는 '음악과 인문학의 만남' 역시 인기가 많다. 또 오랜 전통을 자랑하는 필하모니 고전음악동호회 역시 필하모니의 자랑. 부산문화의 텃밭을 가꿔왔다는 자부심만큼 요즘도 그 활동을 면면히 이어오고 있다,

부산문화회관과 가까이 있어 공연장을 찾는 관객들이 즐겨 찾기도 하는 필하모니는 연주회의 여운을 즐길 수 있는 최적의 공간이다. 또한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만큼이나 향기로운 드립커피와 보이차 등은 필하모니에서 맛볼 수 는 또 하나의 즐거움이다.

광복동에 처음 문을 열었던 4월 29일을 기념해 매년 4월 기념음악회를 열어온 필하모니. 올해 역시 필하모니를 기억하고 아껴주는 시민들과 조출하나마 제33주년 기념음악회를 계획하고 있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및 공연관람객들을 위한 특별한 혜택

부산문화회관 주변에는 갤러리, 영화관 등 문화공간에서부터 식사나 한잔의 차를 즐길 수 있는 휴식공간이 많습니다. 공연관람을 위해 부산문화회관을 찾으실때 부산문화회관 제휴업체가 제공하는 특별한 혜택을 누리보시기 바랍니다.



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커피 10%할인 (커피에 한함)
Tel. 051-623-0772

MOZART
모차르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1층 Tel. 051)622-1456

송림정

부산문화회관 주최 공연티켓 소지자
식사 5%할인
Tel. 051-624-2270

Since 1981
philharmony
필하모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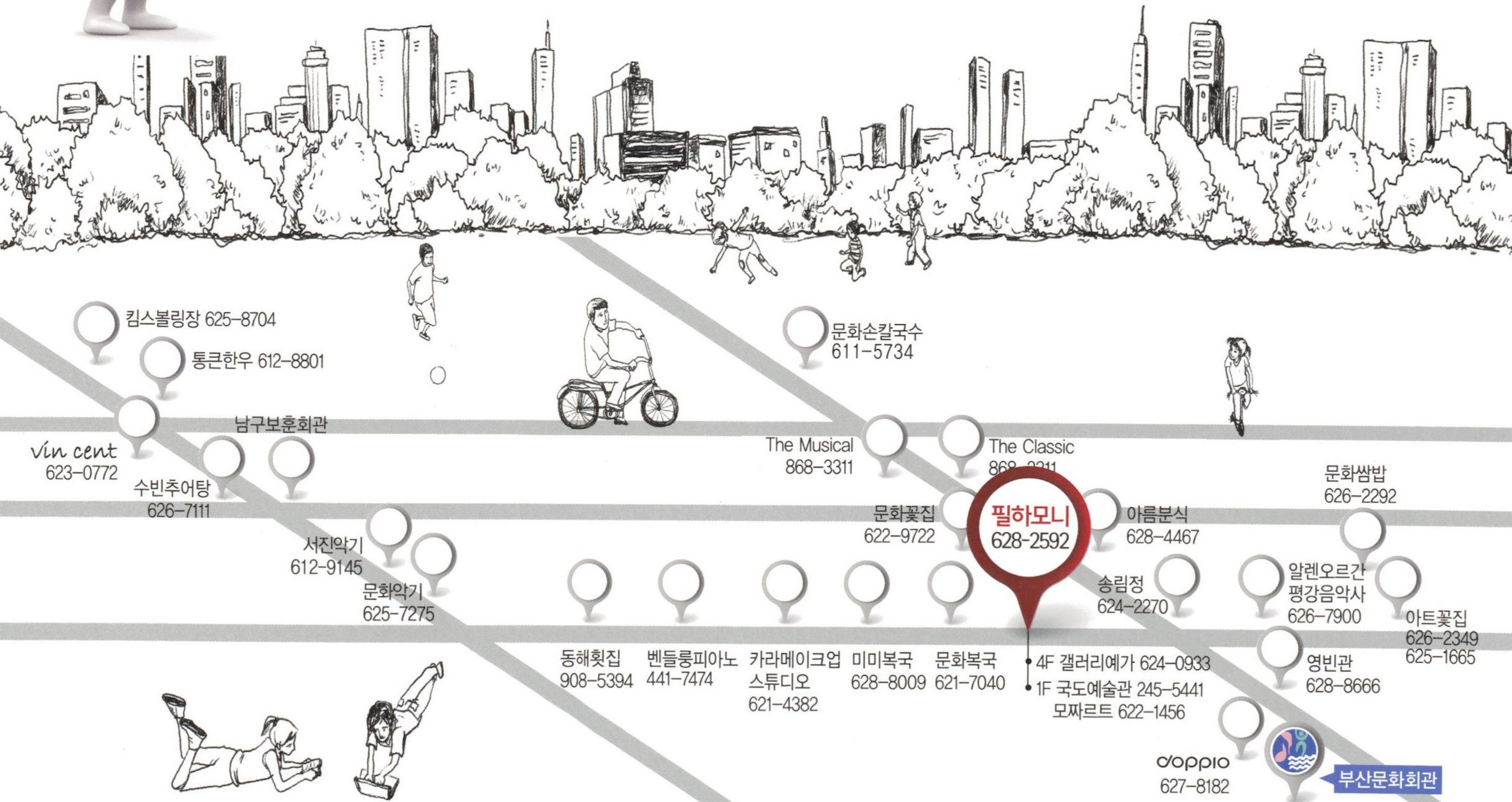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람빌딩 2층 Tel. 051)626-259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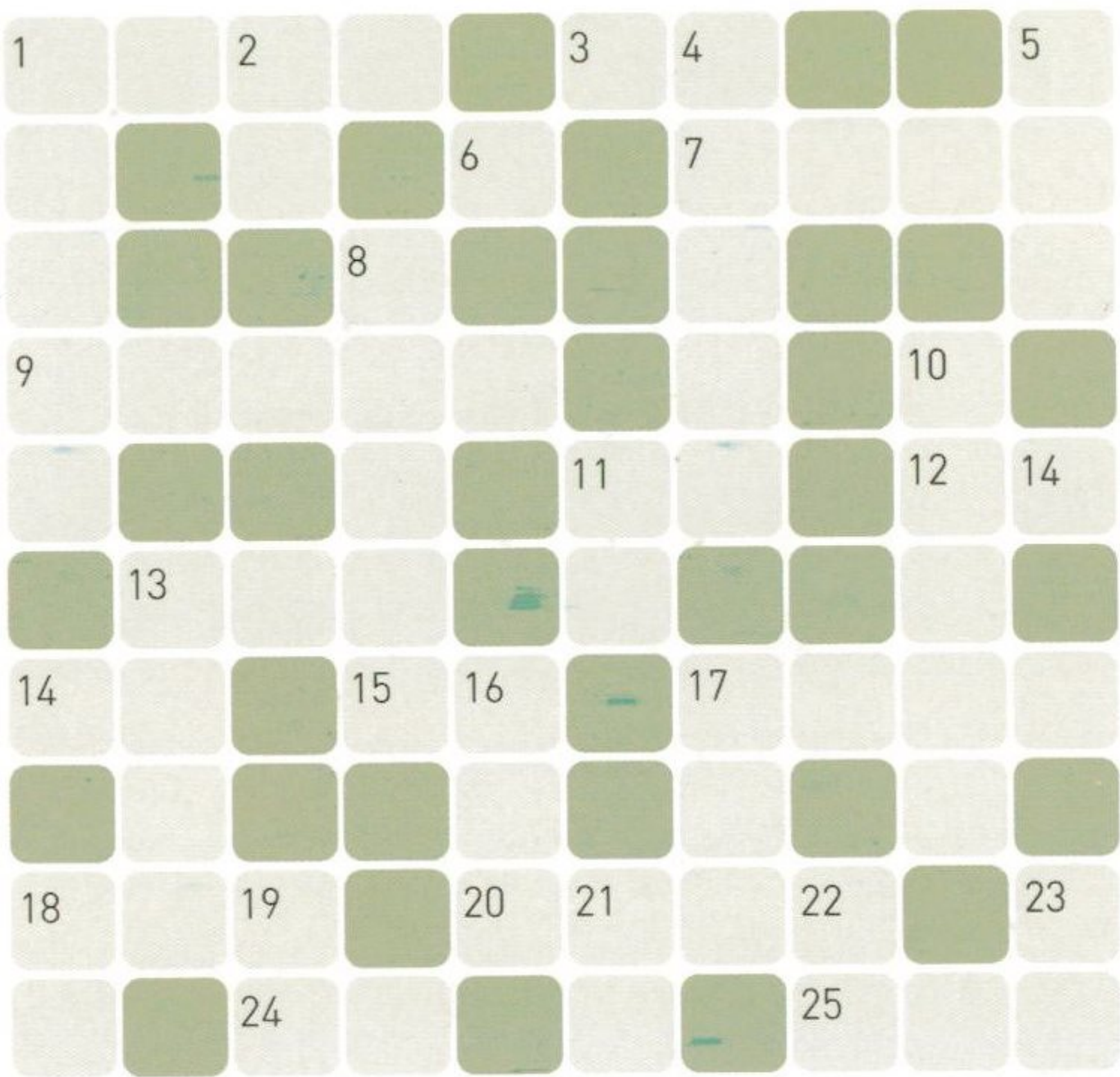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와 할인쿠폰 소지자
특별우대
Tel. 051-752-9811(광안), 051-747-9812(해운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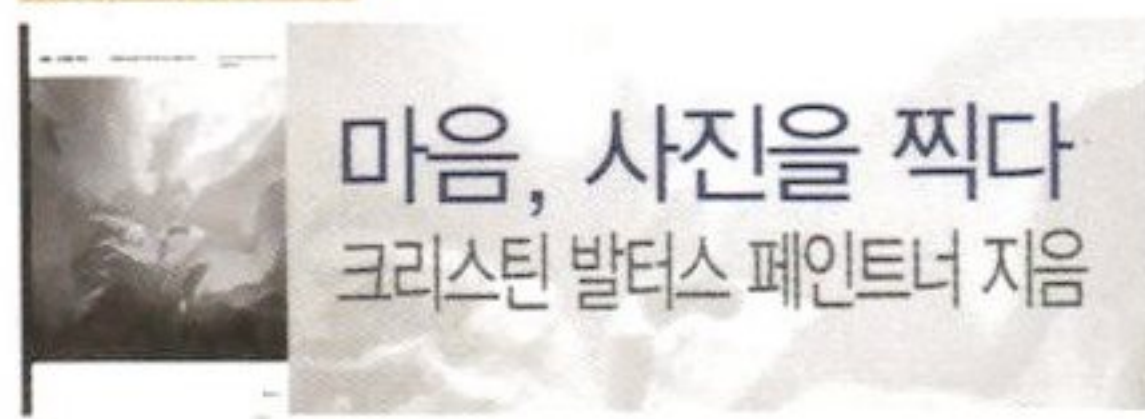
공연시간에 쫓겨 힘든 것 많으시죠.
한눈에 볼 수 있는 부산문화회관 주변 안내도입니다.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공간소극장 | 051-611-8518
 조은극장 | 1588-2757
 큰집 | 051-245-3320
 문학동네 | 031-955-8869



퍼즐로 배우는 문화상식

가로열쇠

- ① 작곡가 레온카발로의 유일한 출세작으로, 19세기 후반 이탈리아 몬탈토에서 일어난 치정살인극을 소재로 한 오페라. 부산시립교향악단 웰빙콘서트 시리즈 '11시에 만나요!' 오페라 하이라이트 두 번째 무대로 4월 25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 ③ 고구려의 시조. 부여의 속어로 '활을 잘 쏜다'는 뜻에서 부쳐진 이름이다.
- ⑥ 책이나 공책 등의 날장을 세는 단위.
- ⑦ 교육, 과학, 문화 부문의 국제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세계 평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국제 연합 전문기구의 하나. 1946년에 창설되었으며, 본부는 파리에 있다.
- ⑨ 일제강점기 독립운동가 김좌진의 아들 김두한이 밀바닥 생활에서 시작해 종로 주먹계를 평정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임권택 감독의 영화. 개봉 당시 관객동원 최고기록을 세우는 등 전국 관객수 200만 명을 기록하며 한국영화 100만 명 관객 시대에 기폭제가 되었다.
- ⑪ 반시(씨없는 감)와 미나리, 운문사, 소싸움 축제로 유명한 경상북도 소재의 도시.
- ⑫ 두 사람이 서로 맞잡고 넘어뜨리거나, 지름 4.6m의 씨름판 밖으로 밀어내어 힘과 기술을 겨루는 일본식 씨름.
- ⑬ 대하소설 5부작 '토지'를 비롯 '김약국의 딸들', '시장과 전장', '파시(波市)' 등 사회와 현실에 대한 비판성 강한 문제작들을 발표한 한국문학의 거장.
- ⑭ 창자가 끊어진다는 말로, 마음이 몹시 슬프다는 뜻. ○○의 미아리고개.
- ⑮ 체크무늬 판과 말을 이용하여 두 사람이 펼치는 게임. 서양장기.
- ⑰ 기원전 334년 알렉산더 대왕의 동방 원정에서부터 기원전 30년 로마의 이집트 병합 때까지 그리스와 오리엔트가 서로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생긴 역사적 현상. 세계 시민주의·개인주의적 경향이 나타났으며 자연 과학이 발달하였다.
- ⑲ 근현대 여성 명창으로서 판소리 최고봉을 이뤘던 국창으로 불렸던 명창. 호는 만정(晩汀).
- ⑳ 나무 인형이 인간이 되기까지의 과정을 그린, 이탈리아의 작가 콜로디(Collodi, C.)의 동화.
- ㉒ 눈앞에 없는 것이 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 환영 1(幻影).
- ㉔ 1943년 독립운동 혐의로 일본 경찰에 검거되어 일본 후쿠오카 형무소에서 옥사한 시인. 광복 후 그의 유고를 모은 시집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발간되었다.

세로열쇠

- ① 고려 고종 23년(1236)부터 38년(1251)에 걸쳐 완성한 대장경. 경판(經板)의 수가 8만 1,258판에 이르며 현재 합천 해인사에 보관하고 있다.
- ② 7현으로 된 우리나라 현악기의 하나. 활로 줄을 문질러 연주하는데, 현악기 가운데 가장 좁은 음역을 가진 저음 악기이다.
- ④ 조선 세종 때 안견이 그린 산수화. 비단 바탕의 수묵 담채화로, 안평 대군이 꿈에 도원경을 거닌 이야기를 안견에게 그리게 하였다. 현재 일본 텐리 대학 중앙도서관에 보관되어 있다.
- ⑤ 상품의 포장이나 꼬리표에 표시된 검고 흰 줄무늬. 제조 회사, 제품의 가격, 종류 따위의 정보를 나타낸 것으로, 광학적으로 판독되어 컴퓨터에 입력된다.
- ⑧ 단테가 사모한 여인으로, 그의 대표작 '신곡'에서 이상적 여성으로 묘사되었다.
- ⑩ 이탈리아의 지휘자. 악보에 충실한 연주 태도와 속도감을 지닌 엄격한 표현 기법으로, '무대 위의 독재자'로 불리기도 했다.
- ⑪ 춘분과 곡우 사이의 절기로 봄밭갈이를 시작하는 시기. 올해는 4월 5일
- ⑬ 손뼉을 치며 크게 웃음.
- ⑮ 미국의 만화가 슐츠가 1949년부터 그린 신문만화 피넛(Peanuts)의 주인공 찰리 브라운의 애견. 어린 아이처럼 과자를 좋아하고, 성장기에 있는 소년처럼 사랑에 빠지기도 하며, 어른들처럼 작가가 되기를 꿈꾸는 캐릭터다.
- ⑰ 핀란드의 수도. 핀란드만 안에 있는 무역항으로 철도와 항공의 중심지이며, 유럽에서 가장 큰 도자기 공장이 있다.
- ⑱ 겨우내 먹기 위하여 김치를 한꺼번에 많이 담그는 일.
- ⑲ 공연을 목적으로 하는 연극의 대본.
- ㉒ 스웨덴의 공업 기술자, 화학자. 다이너마이트, 무연 화약 등을 발명하였으며, 사후 유언에 따라 그의 유산을 기금으로 매년 물리학·화학·생리학 및 의학·문학·평화, 경제학 등 여섯 분야의 수상자를 선정해 ○○상을 수여해오고 있다.
- ㉔ 미술의 사회적 역할에 관심을 가지고 민화, 무속화, 불화, 탈춤, 굿 등 한국 전통의 민중 문화를 연구하고 이를 민족 예술로 승화시키는 작업을 펼쳤던 현대 판화의 선구자. 민화나 풍속화 같은 전통 미술의 형식을 빌려 강렬한 선과 형태로 민중의 삶과 애환, 분노를 표현했던 그의 목판화는 민중 판화의 전형이 되었다.
- ㉔ 전라북도 도청 소재지. 제지업이 발달하였으며, 특히 창호지, 장판지, 태극선의 생산으로 유명하다.

지난호 정답



3월 퍼즐 당첨자

공간소극장 초대권	백혜숙(부산진구 동평로) 이은정(부산진구 백양대로) 제인주(수영구 광안로) 천성희(북구 만덕로) 한동준(수영구 남천동로)	큰집 식사권	김영권(사상구 냉정로) 남호기(서구 구덕로) 백용민(사하구 낙동대로) 이지영(서구 대티로) 채병관(북구 양달로)
조은극장 초대권	김수진(수영구 황령대로) 박종근(중구 대교로) 신정숙(서구 대신로) 조현미(금정구 금강로) 홍수현(동래구 복천로)	도서 뉴욕 아티스트	남성현(중구 중앙대로) 배은미(부산진구 복지로) 송지현(북구 금곡대로) 정숙희(해운대구 우동1로) 하영주(기장군 차성로)

20% Discount
센텀점 토다이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Discount
모차르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Discount
센텀점 하나돈까스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10% Discount
Since 1981 피하모니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 Discount
연극 '롬넘버 13'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20% Discount
연극 '코미디 님버원'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20% Discount
연극 '러브앳츄얼리'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20% Discount
뮤지컬 '사랑할까요?'
 * 쿠폰소지회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공연당일 현장에서 본 쿠폰을 제시하시면 할인됩니다.
 * 티켓수령시 본 쿠폰과 신분증을 지참하셔야 합니다.
 *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할인됩니다.



우 편 엽 서

요금수취인
 후납부담
 발송유효기간
 2014. 1. 1 ~
 남부산우체국승인
 제265호

보내는 사람
 이 름 _____
 주 소 _____

연락처
 □□□□-□□□□

받는 사람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대연동)
 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부 <예술의 초대> 담당자 앞
 608-811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CULTURAL SCHEDULE

부산문화회관 4월 공연일정

2014 APRIL 4

1	19:30 부산시립교향악단 제499회 정기연주회 바르톡의 관현악을 위한 협주곡 대극장 2만원, 1만5천원, 1만원, 5천원 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20	14:00 뮤지컬 맘미아 오리지널팀 내한공연 대극장 18:30 15만원, 12만원, 9만원, 6만원/예술기획성우(1599-1980)
	19:30 사랑반울림 for you 중극장 초대/김정애(010-9334-6105)		17:00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IN 부문 극단 몽키프로젝트 '뮤지컬 꽃동네' 중극장 2만원, 1만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4	19:00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개막식 및 개막 축하공연 '음악 중극장 2만원, 1만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19:00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폐막식 중극장 부산연극협회(645-3759)
5	17:00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제141회 정기 모차르트 '레퀴엠' 대극장 균일 2만원/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607-3161~2)	21	19:30 제38회 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 베토벤 교향곡시리즈 'YG Concert' 중극장 균일 2만원/부산심포니오케스트라(621-4577)
	17:00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개막 축하공연 '음악 중극장 2만원, 1만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22-25	19:30 뮤지컬 맘미아 오리지널팀 내한공연 대극장 15만원, 12만원, 9만원, 6만원/예술기획성우(1599-1980)
5~6	17:00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OFF 부문 극단 도깨비 '모자여행' 소극장 2만원, 1만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23	19:30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제40회 청소년 협연의 밤 중극장 균일 2만원/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607-3123)
7-8	19:30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IN 부문 극단 바다와 문화를 사랑하는 사람들 '비어짐을 담은 사발 하나' 중극장 2만원, 1만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19:30 강인경 귀국 피아노 독주회 소극장 균일 1만원/음악풍경(987-5005, 010-6803-3886)
7-9	19:30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OFF 부문 극단 도깨비 '모자여행' 소극장 2만원, 1만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25	11:00 부산시립교향악단-2014 웰빙콘서트II '팔리아치' 중극장 균일 1만원/부산시립교향악단(607-3111~3)
10-11	19:30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IN 부문 극단 누리에 '칼치' 중극장 2만원, 1만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26	15:00 뮤지컬 맘미아 오리지널팀 내한공연 대극장 19:30 15만원, 12만원, 9만원, 6만원/예술기획성우(1599-1980)
11-13	14:00~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부산시민연극제 16:00 소극장 무료/부산연극협회(645-3759)		16:00 토요일무대-부산세소폰앙상블 소극장 무료/부산문화회관(607-6056)
13-14	17:00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IN 부문 19:30 극단 배우창고 '가가가 오신다' 중극장 2만원, 1만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27	14:00 뮤지컬 맘미아 오리지널팀 내한공연 대극장 18:30 15만원, 12만원, 9만원, 6만원/예술기획성우(1599-1980)
15-18	19:30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OFF 부문 극단 아프리카 몽 'Y(와이)' 소극장 2만원, 1만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27-28	19:30 제37회 피아니스트 페스티벌 중극장 균일 1만원/박정남(010-4391-1106)
16-17	19:30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IN 부문 극단 이그라 '들꽃소리' 중극장 2만원, 1만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28	19:30 4인 연주회 소극장 무료/이미나(011-9332-5438)
18	19:30 뮤지컬 맘미아 오리지널팀 내한공연 대극장 15만원, 12만원, 9만원, 6만원/예술기획성우(1599-1980)	29	19:30 부산시립합창단 제151회 정기연주회 '음악, 사람의 마음에 귀 기울이다' 대극장 1만원, 7천원, 5천원/부산시립합창단(607-3141~3)
19	15:00 뮤지컬 맘미아 오리지널팀 내한공연 대극장 19:30 15만원, 12만원, 9만원, 6만원/예술기획성우(1599-1980)		19:30 이태리음악연구회 제38회 정기연주회 '봄의 향연' 중극장 균일 1만원/정기희(010-8254-6178)
	17:00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IN 부문 극단 몽키프로젝트 '뮤지컬 꽃동네' 중극장 2만원, 1만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전 시	부산문화회관 기획 하나의 역사, 70억의 기억 '라이프 사진전' 1월 5일(일)-4월 12일(토) 대전시실 관람시간 10:00~20:00 입장권 일반 1만 2천원 / 중고생 1만원 / 초등 8천원 문의 부산문화회관(607-6053) / 다카무네이센(612-6619)
	17:00 2014 제32회 부산연극제 OFF 부문 극단 아프리카 몽 'Y(와이)' 소극장 2만원, 1만5천원/부산연극협회(645-3759)		제8회 대한민국 미술전람회 부산공모전 4월 16일(수) 10:00-4월 19일(토) 15:00 주최 새국어교육협회 부산지회
			제20회 대한민국 전서예대전 입상작 4월 23일(수) 13:00-4월 26일(토) 14:00 중 대전시실 주최 새대한민국 서예인 연합회

토다이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20% 할인
(평일 점심제외)
신세계백화점 맞은편 센텀 임페리얼 타워 6층
예약 : 051)731-7000
*본행사는 토다이 센텀점에 한정합니다.

모차르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음료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벨딩 1층
051)622-1456

하나뿐가스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점심특선 제외)
센텀SH-벨리 210호
051)747-8244

필하모니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식사 10% 할인
부산문화회관 앞 가림벨딩 2층
051)626-2592

연극 '물넘버13'

2013.3.20(목)-5.18(일)
평일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후 4시, 7시
(월요일 공연없음)
입장권 : 군일 3만원
장 소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문의 및 예매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연극 '코미디 넘버원'

2013.2.27(목)-4.27(일)
화-금 오후 8시, 토요일 오후 4시, 7시
일요일 오후 3시, 5시30분, 8시(월요일 공연없음)
입장권 : 군일 3만원
장 소 : BS부산은행조은극장 2관
문의 및 예매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연극 '러브앤투얼리'

2014.3.14(금)-6.8(일)
평일 오후 5시, 7시, 토요일 오후 3시, 5시30분, 8시
일요일 오후 3시, 6시(5/7일, 월요일 공연없음)
입장권 : 군일 3만원
장 소 : 조은극장 스타홀
문의 및 예매 : BS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무지컬 '사랑했어가요?'

2014.3.11(토)-4.27(일)
화-금 오후 8시, 주말-공휴일 오후 5시
(월요일 공연없음)
입장권 : 군일 2만원
장 소 : 공간스극장
문의 및 예매 : 공간스극장 611-8518

CULTURAL SCHEDULE

Cultural performances scheduled in Apri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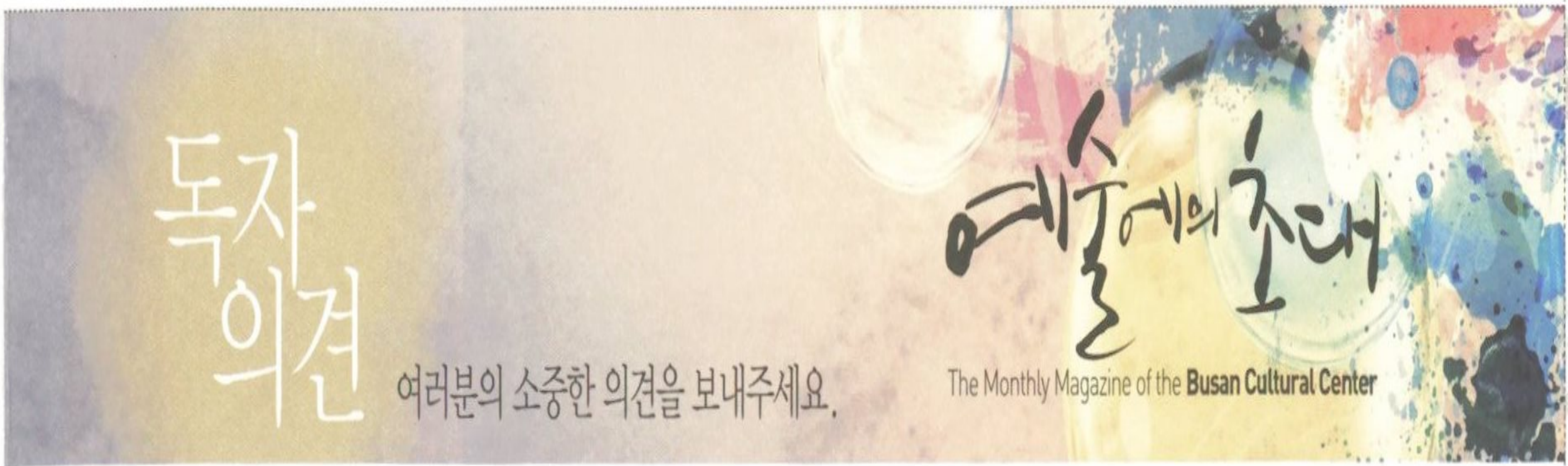
2014 APRIL 4

Table with 2 columns: Date and Performance Details. Includes events like 'The 499th Regular Concert of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Musical Mamma Mia!', 'The 32th Busan Theater Festival', etc.

우 표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1. 이번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Grid for question 1 with numbers 1-25 and checkboxes.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Grid for question 2 with numbers 1-25 and checkboxes.

3. 미흡하거나 개선해야 할 점은?

Grid for question 3 with numbers 1-25 and checkboxes.

Exhibit

LIFE 'To see Life To see the World'
1. 5~4, 12 12,000/10,000/8,000
*Explanation Time : 11:00 a.m., 2:00 p.m, 5:00 p.m
D. Communication(612-6619)

Wolfgang Amadeus Mozart

Requiem



지휘 전 상 철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수석지휘자)



Sop. 김민지



Alt. 장소영



Ten. 김경여



Bass. 양재원



- I. INTROIT {입당송} II. KYRIE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 III. SEQUENTIA {연속된 노래들} 1. Dies irae (진노의 날, 운명의 날) 2. Tuba mirum (놀라운 금관 소리 울려 퍼지네) 3. Rex tremendae (무서운 대왕)
- 4. Recordare (주여 생각해보소서) 5. Confutatis (사악한 자들이 혼란스러울 때) 6. Lacrimosa (눈물과 한탄의 날)
- IV. OFFERTORIUM {제헌경, 봉헌미사} 1. Domine Jesu Christe (주 예수 그리스도) 2. Hostias (주께 바칩니다)
- V. SANCTUS (거룩하시다) VI. BENEDICTUS (주에 축복있으라) VII. AGNUS DEI (하느님의 어린 양) VIII. COMMUNIO {영성체송}

출연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주최 부산광역시

주관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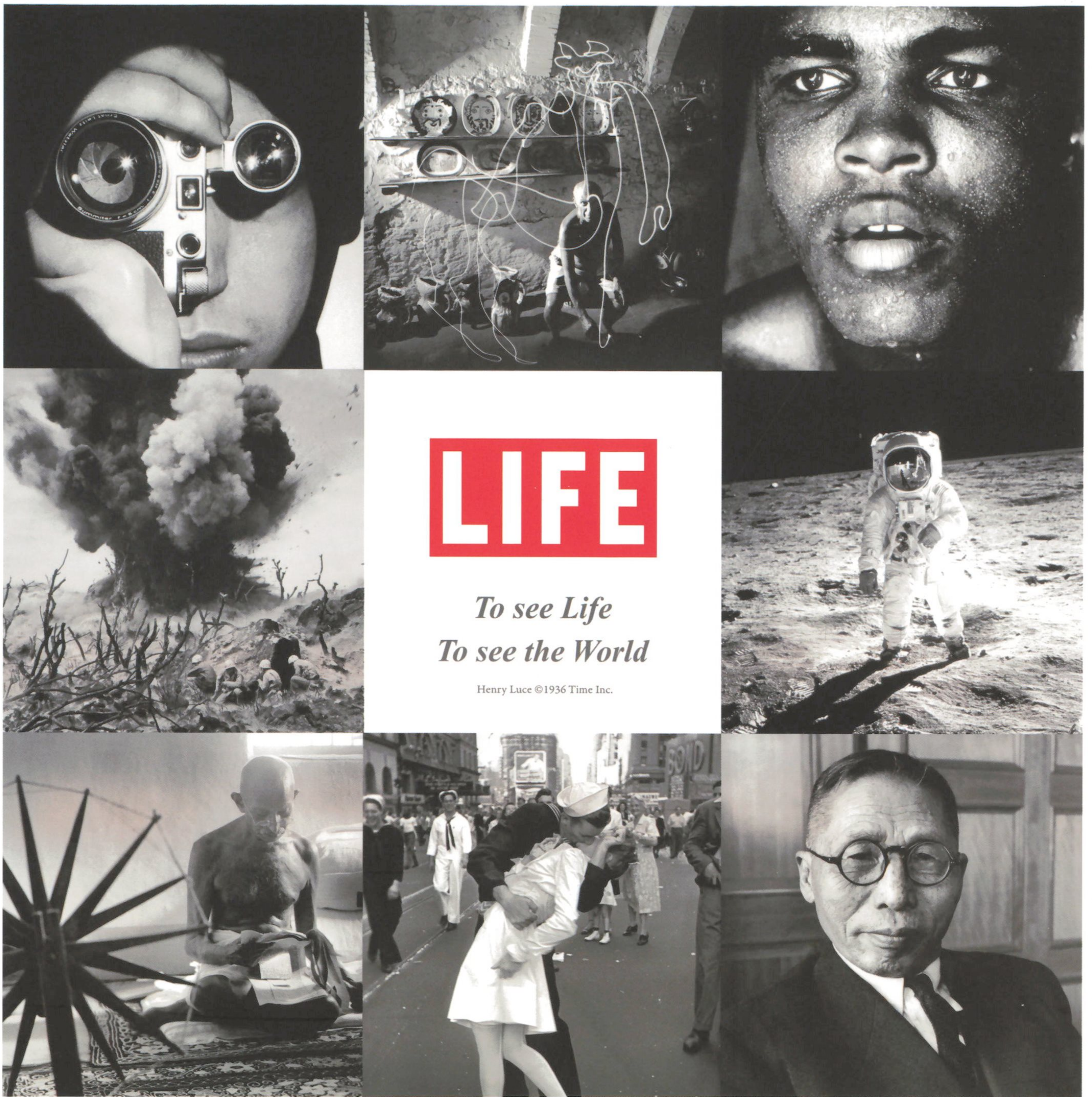
2014. 4. 5(토) 17:00

입장료 1,000원

문의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051) 607-3161 홍보마케팅부 051) 607-31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BUSAN CULTURAL CENTER MAIN HALL



LIFE

*To see Life
To see the World*

Henry Luce ©1936 Time Inc.

정점의 순간에서 전설이 된 20세기 최고의 기록 <LIFE>, 그들이 남긴 불멸의 역사를 만난다.

라이프 사진전

하나의 역사 70억의 기억

2014.1.5 - 4.12

10:00~20:00 /

부산문화회관 대전시실

www.seelife.co.kr

티켓. 일반/대학생 12,000 중학생/고등학생 10,000 초등학생/유아 8,000 특별할인 6,000

(만65세 이상 / 국가유공자 / 장애우 / 다자녀)

전시문의 612.6619

주최. 부산광역시 부산 MBC | 주관. 부산문화회관 Dcomm UNIQUEPIECE

© The Picture Collection Inc. All rights are reserved.